

Jeonbuk State Institute

기획연구

2025-0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Developing Jeonbuk-Specific Resources into Global Tourism Content

김형오 김수지 성효인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김형오

日本 릿쿄대학 관광학박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지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성효인

한양대학교 관광학 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기획연구

2025-0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Developing Jeonbuk-Specific Resources into Global Tourism Content

김형오 김수지 성효인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김형오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공동연구	김수지	연구위원	3장 2절, 3절
	성효인	연구원	2장 1-3절, 3장 1절

자문위원	송광인	전주대학교 교수
	장병권	호원대학교 교수
	최영기	전주대학교 교수

연구관리 코드 : 24GI1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 자산을 지역 고유의 색채를 반영한 글로컬(glocal)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국제적 산업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이런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관광자원 콘텐츠화와 글로벌 활용도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관광자원 현황을 검토하여 경쟁력이 높은 특화자원을 파악하고 이중 내재적 가치가 높은 자원들을 선별하여 글로벌 관광콘텐츠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2024년)과 목표연도(2026년~2033년)임
- 내용적 범위는 국내외 관광트렌드 조사, 지역특화관광 개념 및 정책동향,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조사 및 종합분석, 글로벌 관광콘텐츠 전략 수립, 글로벌 관광콘텐츠 사업계획을 제안함
-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관광 관련 홈페이지 조사, 전문가 심층인터뷰, 빅데이터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관광콘텐츠 전략과제를 도출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관광콘텐츠 비전 및 추진과제

- 관광비전으로 “K-로컬 감성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전북관광”을 도출하였음. 이는 전북만의 콘텐츠를 국내·관광객들의 욕구에 맞게 큐레이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해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목표는 ① 전북의 감성관광 경쟁력 강화, ② 관광체류환경 기반 조성, ③ 글로벌 마케팅 역량 확보 등으로 설정함. 이들 목표는 각각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로 연계되며, 자연관광 콘텐츠사업(2개 사업), 역사관광 콘텐츠사업(2개 사업),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계획(2개 사업)과 홍보·마케팅 사업계획을 제시함
- 정책제언으로는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 협력 강화가 요구되며,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 내재화 및 글로벌 관광콘텐츠로서 성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함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관광콘텐츠 추진과제 종합

추진과제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 우선순위
자연관광 콘텐츠 사업계획	K-세계자연유산 : 고창 유네스코 복합유산 관광벨트 구축	고창군 일원	5
	K-해양관광 : 군산·부안 K-해양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군산시·부안군 일원	6
역사관광 콘텐츠 사업계획	K-세계문화유산 : 익산 백제왕도 세계문화유산 융복합 관광도시 조성	익산시 일원	4
	K-종교관광 : 전북 K-종교관광 융복합 거점도시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2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계획	K-미식관광 : 전북 미식관광 특화도시 조성	전주시, 순창군 일원	1
	K-전통문화 : 전북 K-전통문화 대표축제 글로벌 관광자원화 사업	김제시, 남원시 등	3
홍보·마케팅 사업계획	전북 K-관광 콘텐츠 통합 홍보·마케팅 전략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차 례

CONTENTS

요 약	i
-----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3. 연구 내용	7

제2장 지역특화관광의 개념 및 정책동향

1. 관광산업 변화 및 전망	13
2. 지역특화관광의 개념	24
3. 지역특화관광 관련 정책동향	30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 관광자원 현황 분석

1. 관광자원 현황	61
2. 관광자원 실태분석	104

3. 전문가 심층인터뷰	128
4. 종합분석	135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관광콘텐츠 추진방향 및 과제

1. 비전 및 목표	141
2. 추진방향	145
3. 추진과제	147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177
2. 정책제언	180

참고문헌	183
------------	-----

영문요약 (Summary)	186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1] 지역특화 재생사업 사업내용	30
[표 2-2] 명승옛길 지정현황	32
[표 2-3]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내용	33
[표 2-4] 전국 지역단위 농촌사업 지정 현황(2024)	34
[표 2-5] 농촌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대상지(2024)	36
[표 2-6]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우수사례(2024)	36
[표 2-7] 전국 로컬 100사업 선정 현황(2024)	38
[표 2-8] 가고 싶은 K-관광섬 선정현황(2024)	39
[표 2-9] 지역특화관광자원 선정(1) 생태녹색관광사업	40
[표 2-10] 지역특화 관광자원 선정(3) 레저스포츠산업	41
[표 2-11] 지역특화 관광자원 선정(4) 걷기여행길사업	41
[표 2-12]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지자체 선정지	41
[표 2-13]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지자체 선정지(표계속)	42
[표 2-14]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지자체 선정지(표계속)	43
[표 2-15]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지자체 선정지(표계속)	44
[표 2-16] 2025년 광역지자체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내용	45
[표 2-17] 관광거점도시별 기본계획 추진방향(안)	48
[표 2-18] 2017~2022년 국가어항 관광객 수	49
[표 2-19] 어촌체험휴양마을별 특화유형	50
[표 2-20] 해양치유산업 협력지자체별 특화프로그램(안)	51
[표 2-21] 지자체별 해양치유센터	52
[표 2-22]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사업 지원유형'	54
[표 2-2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축제 사례	56
[표 3-1] 2019~2023년간 관광활동 중 '자연 및 풍경감상' 순위 및 비중	62
[표 3-2] 2020~202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자연 및 풍경감상' 만족도 순위 및 점수	62
[표 3-3] 전국·전북특별자치도 자연공원 지정 현황(2023)	63

[표 3-4]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공원 지정 현황(2023)	63
[표 3-5]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지정 현황(2023)	64
[표 3-6] 전북특별자치도 군립공원 지정 현황(2023)	64
[표 3-7]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 지정 현황(2023)	65
[표 3-8]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현황(2023)	65
[표 3-9]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현황(2023)	66
[표 3-10]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욕장 현황(2023)	67
[표 3-11] 전북특별자치도 국유림 명품숲 선정 현황(2023)	68
[표 3-12] 전국 내륙습지 현황(2022)	69
[표 3-13] 전국 연안습지 현황(2023)	70
[표 3-14] 전북특별자치도 연안습지 현황(2023)	70
[표 3-15] 전국 습지보호지역 현황(2024)	71
[표 3-16] 전국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보호지역 현황(2024)	71
[표 3-17] 전북특별자치도 습지보호지역 현황(2024)	72
[표 3-18] 전국 하천 현황(2022)	72
[표 3-19]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하천 현황(2022)	73
[표 3-20]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소속 권역(2022)	73
[표 3-21]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현황(2023)	74
[표 3-22] 코리아둘레길 조성 현황(2023)	75
[표 3-23] 서해랑길 전북특별자치도 조성 현황	75
[표 3-2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천리길 지정 현황(2024)	76
[표 3-25] 2019~2023년간 '역사유적지 방문' 순위 및 비중	77
[표 3-26] 2020~202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역사유적지 방문' 만족도 순위 및 점수	77
[표 3-27] 역사문화자원 활용사례	78
[표 3-28]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2024)	79
[표 3-29] 전북특별자치도 시도지정 문화재 현황(2024)	80
[표 3-30]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황(2024)	81
[표 3-31] 한국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현황(2024)	81
[표 3-32]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사찰 현황(2024)	82
[표 3-33]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2023)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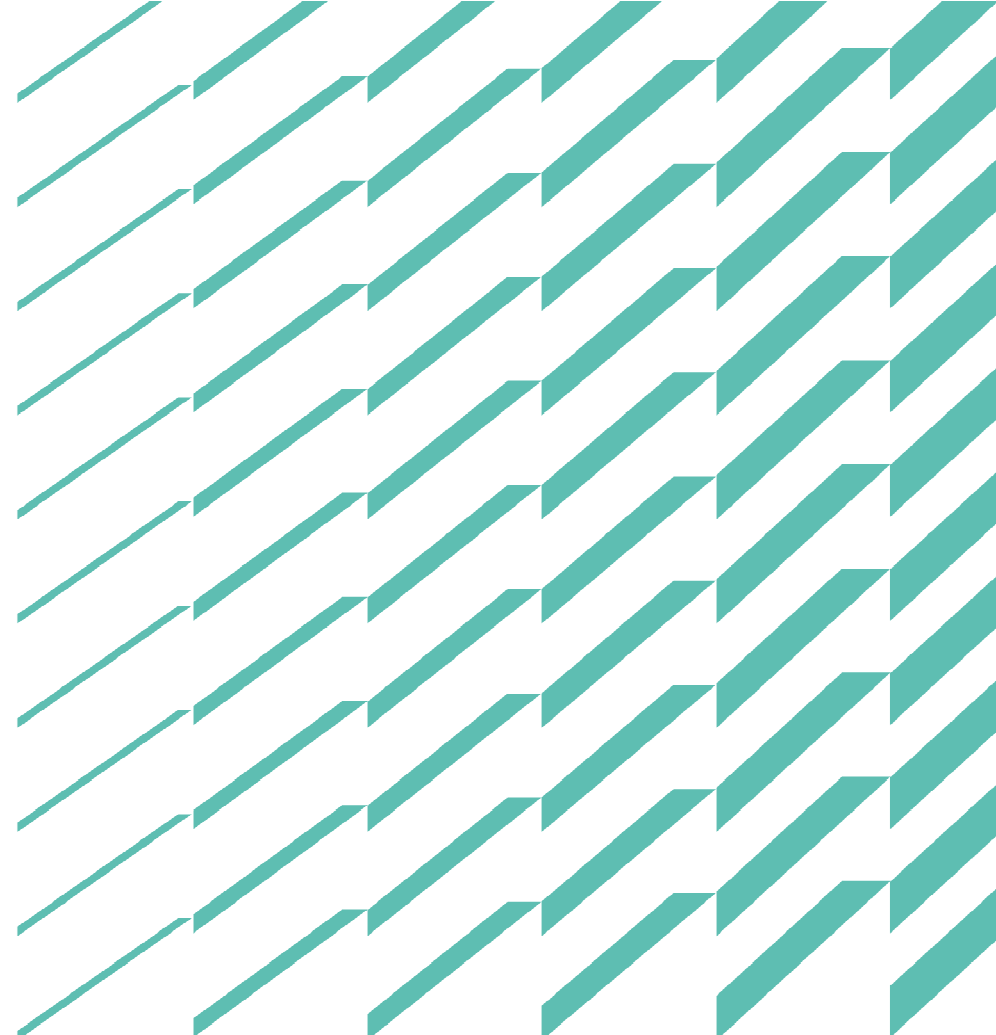
[표 3-34]	전국 관광농원 지정 현황(2023)	84
[표 3-35]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2023)	85
[표 3-36]	전북특별자치도 어촌체험휴양마을 현황(2023)	85
[표 3-37]	전국 산촌생태마을 지정 현황(2022)	86
[표 3-38]	전국 온천 현황(2023)	86
[표 3-39]	전국 박물관·미술관 현황(2023)	88
[표 3-40]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미술관 현황(2023)	88
[표 3-41]	전국 도서관 현황(2024)	89
[표 3-42]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도서관 현황(2024)	89
[표 3-43]	전국 지역별 도서관 활용 사례	89
[표 3-4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단지	90
[표 3-45]	전국 관광특구 지정 현황(2023)	90
[표 3-4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특구 지정 현황(2023)	90
[표 3-47]	전국 문학관 현황(2024)	91
[표 3-48]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문학관 현황(2024)	91
[표 3-49]	전국 지역특화거리 지정 현황(2024)	92
[표 3-5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거리 지정 현황(2024)	92
[표 3-51]	전북특별자치도 유원시설업 현황(2024)	93
[표 3-52]	전북특별자치도 유원시설업 현황(2024)_(표계속)	94
[표 3-53]	2024~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 목록	95
[표 3-5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문학관 현황(2024)	96
[표 3-55]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 축제	97
[표 3-56]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축제	98
[표 3-57]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겨울축제	98
[표 3-58]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축제	99
[표 3-59]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23)	101
[표 3-60]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23)_(표계속)	101
[표 3-61]	전북특별자치도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23)	101
[표 3-62]	전국 자전거도로 현황(2024)	102
[표 3-6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자전거도로 현황(2024)	102

[표 3-64]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24)	102
[표 3-65]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2024)	102
[표 3-66]	관광자원 실태분석 활용데이터 및 분석 방법	105
[표 3-67]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유형별 T-map 검색 건수 변화	108
[표 3-68]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유형별 T-map 검색 건수 변화_세부 관광지(1)	111
[표 3-69]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유형별 T-map 검색 건수 변화_세부 관광지(2)	112
[표 3-70]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유형별 T-map 검색 건수 변화_세부 관광지(3)	113
[표 3-7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지 유형별 KT_POI 방문자 수 변화	115
[표 3-7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지 유형별 KT_POI 관광지 방문자 수 변화_세부(1)	117
[표 3-73]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지 유형별 KT_POI 관광지 방문자 수 변화_세부(2)	120
[표 3-7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지 유형별 KT_POI 관광지 방문자 수 변화_세부(3)	121
[표 3-7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지 유형별 KT_POI 관광지 방문자 수 변화_세부(4)	122
[표 3-76]	심층인터뷰 주요 질문	128
[표 3-77]	전문가 조사 대상	128
[표 3-7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범주화(1)	129
[표 3-7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범주화(2)	130
[표 3-8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범주화(3)	131
[표 3-8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범주화(4)	132
[표 3-8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범주화(5)	133
[표 5-1]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관광콘텐츠 추진과제 종합	179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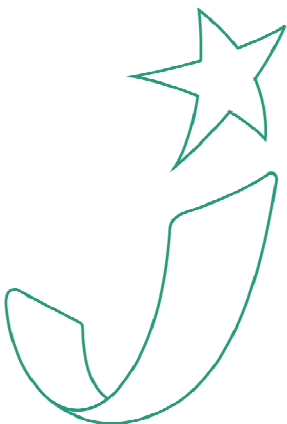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체계도	10
[그림 2-1] 2019~2023년간 국제 관광지표	14
[그림 2-2] 2023~20234년 문화유산관광 시장 전망	16
[그림 2-3] 2012~2022년간 국제 웰니스 관광의 변화 추이	17
[그림 2-4] 2023~2024년 생태관광 시장성장 전망	18
[그림 2-5] 2019~2032년 스포츠관광 시장성장 전망	19
[그림 2-6] 지역특화관광의 구성요소와 주요 콘텐츠 유형	27
[그림 2-7] 지역특화관광 개념과 관련 콘텐츠 연계모형	27
[그림 2-8] 지역특화관광의 추진방식 및 효과	28
[그림 2-9] 지역특화관광의 방법론적 접근방식 전환	29
[그림 2-10]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비전 및 목표	37
[그림 2-11] 지역 관광거점도시 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사업구성	47
[그림 2-12]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54
[그림 3-1]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류체계 기준	61
[그림 3-2] 글로벌 관광콘텐츠 사업계획 도출	137
[그림 4-1] 비전 및 목표	142
[그림 4-2] 영국 도싯 해안(Jurassic Coast)	149
[그림 4-3]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	153
[그림 4-4] 프랑스 퐁텐블로 궁전	157
[그림 4-5] 인도 보드가야 불교성지	161
[그림 4-6] 도톤보리 음식테마거리·구로몬 시장·교토 니시키 시장	166
[그림 4-7] 일본 아모로리 네부타축제	170
[그림 4-8]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 통합 브랜드>Hello BC)	173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주요 내용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4월 14일,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을 공식 선포하고,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계획은 2026년까지 문화·체육·관광 자산을 지역 고유의 색채를 반영한 글로컬(glocal)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생산·체험·소비가 이루어지는 ‘국제적 산업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며,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관광 분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음식, 자연, 역사 자원 등 지역특화 자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대한민국 맛의 수도'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음식관광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정자연과 역사·종교 자원을 결합한 치유관광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전북만의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함
-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자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보유 자원의 관광 콘텐츠화가 낮은 편임. 다양한 전통문화, 역사자원, 자연자원 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글로벌 수요와 연결한 콘텐츠 전략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기존 관광정책이 국내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외 관광객 대상 인바운드 관광기반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므로, 국제적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시급함

-
-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고유자원을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함. 관광산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자원의 콘텐츠화와 브랜딩이 핵심이므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전략 모색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환경과 현실적 과제를 기반으로, 전북의 관광자원을 글로벌 관광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 자원 중 내재적 가치가 우수한 자원을 중심으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비전과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종합분석을 기반으로 관광콘텐츠 선정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콘텐츠를 도출
- 이를 통해 K-컬처 본류로서의 전북특별자치도 위상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가치 있고 매력적인 지역특화자원을 발굴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4년
- 목표연도 : 2025년~2033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원

■ 내용적 범위

- 국내외 관광 트렌드 변화조사 : 국내외 관광환경 및 전망 조사
- 지역특화관광 개념 및 정책동향 검토 : 문헌고찰을 통한 개념 정의 및 정부정책 검토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조사·종합분석 : 관광자원 유형별 분류기준 설정, 전북 관광자원 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북 관광자원과 관련한 관광객 방문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특화 관광자원으로 발전 가능한 자원을 도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최신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콘텐츠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글로벌 관광콘텐츠 전략 수립 :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제안
- 글로벌 관광콘텐츠 사업계획 : 자연관광, 역사관광, 문화관광과 같이 관광자원 유형별 특성 반영과 함께 홍보·마케팅도 고려하여 글로벌 관광콘텐츠화 사업계획 수립

나. 연구방법

1) 문헌고찰

■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 침체된 관광산업이 점차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외 관광업계 현황과 변화를 조사하여 대응방안 모색과 함께 사업 방향을 정함

■ 지역특화관광 개념 및 정책동향 검토

- 문헌고찰을 통해 지역특화관광 개념을 정의하고,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동향 및 지역특화 활용정책 등을 검토함
 - 정부정책에 부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도모

2) 빅데이터 분석 및 의견 조사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분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지자체별 웹사이트,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등 공공데이터 및 선행문서를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을 조사하고 앞서 결정한 관광자원 유형에 맞게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을 분류하여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실태분석

- (빅데이터 활용) KOSIS, DATA, KT/SKT 데이터 기반 관광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여건을 조사·분석함

- (빅데이터 활용) 통신, 카드, 내비게이션 등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트렌드 변화와 함께 관광객이 주로 선호하는 여행을 추론함
- 이를 통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전략을 수립해 효율성을 제고함

■ 전문가 심층인터뷰

- 전북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전북 관광자원 현황 조사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글로벌 관광 콘텐츠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받아 연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고함

3. 연구내용

- 본 연구는 국내외 관광산업 동향 조사를 시작으로 지역특화관광의 선행연구와 국내 관광정책 현황 분석, 자원 분류체계 수립, 전북 관광자원 조사 및 유형 분류, 빅데이터 기반 전북 관광산업 현황 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함.
-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실태 파악 및 글로벌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1) 국내외 관광산업의 흐름과 지역특화 관광에 대한 종합적 검토

■ 글로벌 및 국내 관광산업 현황 조사

- UNWTO, OECD와 같이 관광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리서치 사이트에서 전망한 관광산업 동향을 조사함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이 공신력을 인정받은 국내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 관광트렌드를 조사함

■ 지역특화관광 개념 및 지역특화 관련 관광산업 정책 현황조사

- 선행연구를 참고해 지역특화관광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정리하고 지역특화관광의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함
-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지역특화관광 관련 사업들을 조사하여 국내 지역특화관광의 정책 방향을 탐색함

2) 전북 관광산업 자료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 및 추진방향 설정

■ 관광자원 분류체계 조사 및 결정

-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관광유형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분류기준을 선별하여 본 연구의 관광자원 분류기준을 설정함

■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

- 전북 관광자원을 조사한 후 앞서 결정한 관광자원 유형별 분류기준에 맞춰 관광자원을 분류함

■ 빅데이터 분석

-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전북에서 선호되는 주요 관광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관광트렌드를 분석하여 전북 관광의 향후 방향을 제안함

■ 전문가 인터뷰

- 전북관광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수집된 자료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향후 정책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함

3)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화를 통한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 전북관광 지향점과 핵심목표

- 전북관광산업 실태조사를 근거로 글로벌 관광콘텐츠화를 위해 전략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

■ 전략방향 설정

- 사업을 전략적으로 기획 및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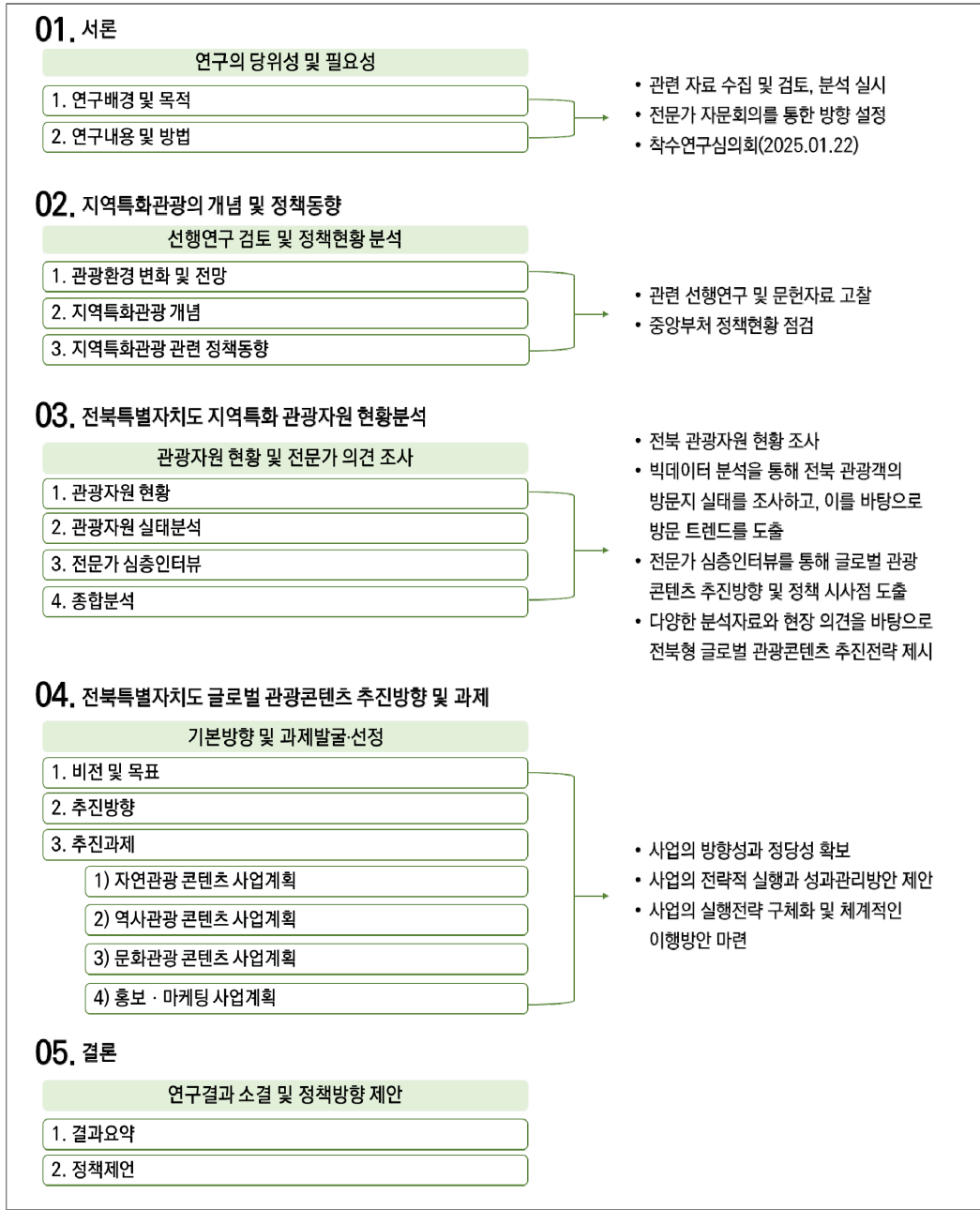
■ 실행과제 도출

- 자연·역사·문화관광처럼 관광유형을 분류한 후 유형별로 전북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실행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전북이 국내 관광의 중심지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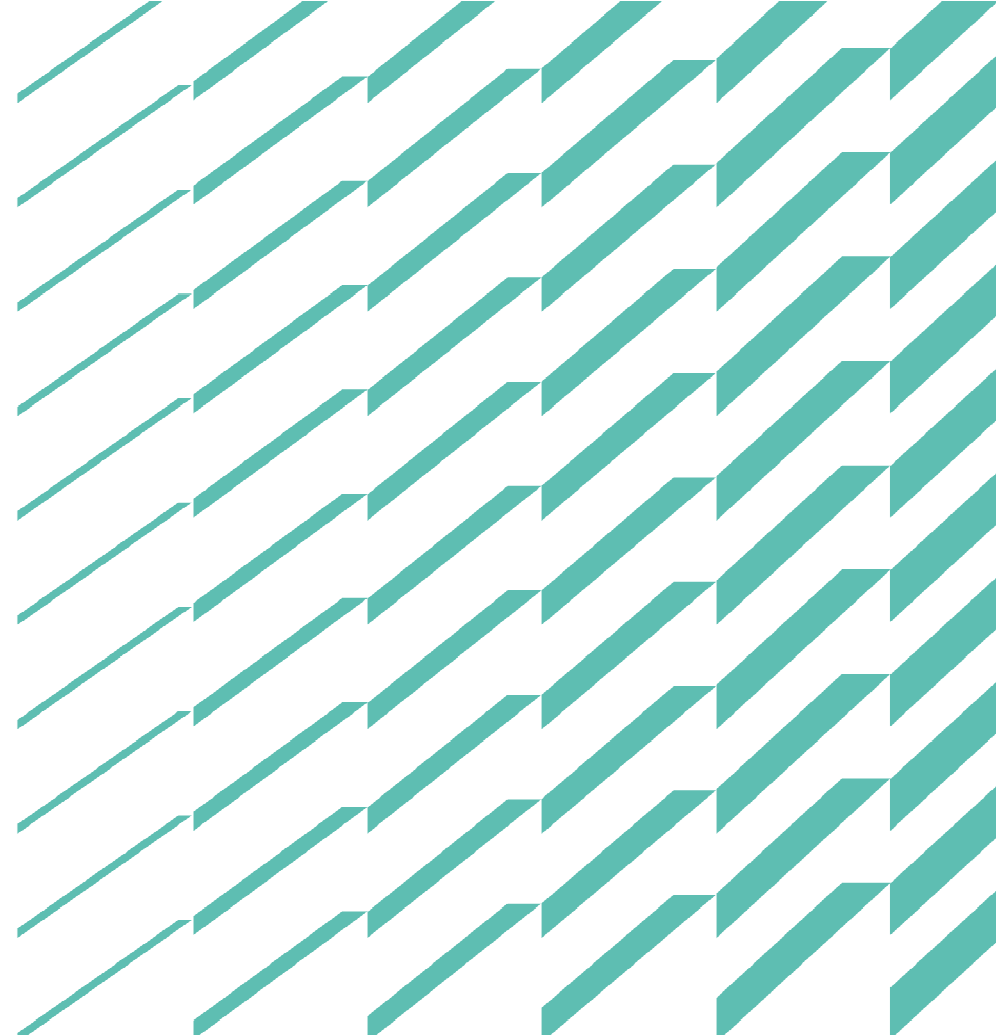
4)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과 정리 및 시사점 도출

- 앞선 조사내용과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결과 정리 및 핵심 시사점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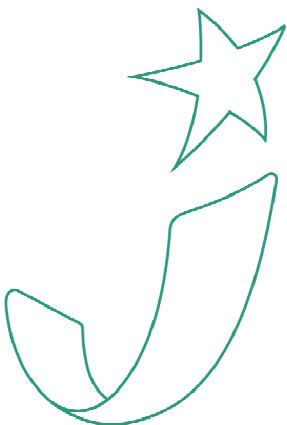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체계도



제2장

지역특화관광의 개념 및 정책동향

1. 관광산업 변화 및 전망
2. 지역특화관광의 개념
3. 지역특화관광 관련 정책동향



제2장 지역특화관광의 개념 및 정책동향

1. 관광산업 변화 및 전망

가. 국제 관광산업 변화 및 전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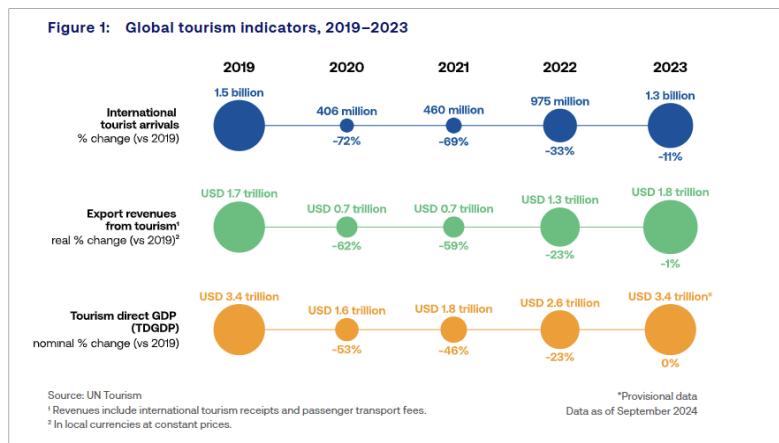
■ 앤데믹 시대 속 국제관광 수요 회복

- 앤데믹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제관광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UNWTO, OECD는 공통적으로 '2025년 관광산업은 코로나19 발생 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실제로 국제관광의 수치는 2023년경에 크게 반등해 코로나19 이전 수치의 89%까지 회복하여 약 13억 명의 입국자 기록
- 또한, 전세계 여행지의 국제 관광수입은 1조 5천억 정도인데 이는 2019년(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치의 98% 정도이며, 2023년 관광의 경제기여도는 약 3조 4천억 정도로 해당 수치는 전세계 GDP의 3% 정도에 해당함
- 2024년 11월경 OECD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국제관광 지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9월 국제관광객은 약 11억명으로 2023년 대비 11% 가량 증가함. 해당 수치는 2019년(코로나19 발생 전) 수치의 98% 가량임
 - 해당 결과는 유럽에서의 관광수요 증가, 대형 관광업계의 준수한 실적, 아시아와 태평양 관광지의 관광객 회복이 지속되면서 발생함. 이렇듯 관광산업은 회복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되거나 국가별로 관광업계의 회복 속도는 다소 차이가 존재
- 국내외 관광업 회복과 함께 관광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짐. 관광업계가 회복되면서 일부 관광지의 관광객 수용력이 초과되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UNWTO 홈페이지, OECD(2024).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24 참고

- 이와 관련해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균형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도 존재

- 글로벌적으로 중요 이슈인 기후변화도 계절성이 있는 관광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관광지 피해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관광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이렇듯 전반적으로 사회·경제·환경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2-1] 2019-2023년간 국제 관광지표

자료 : UNWTO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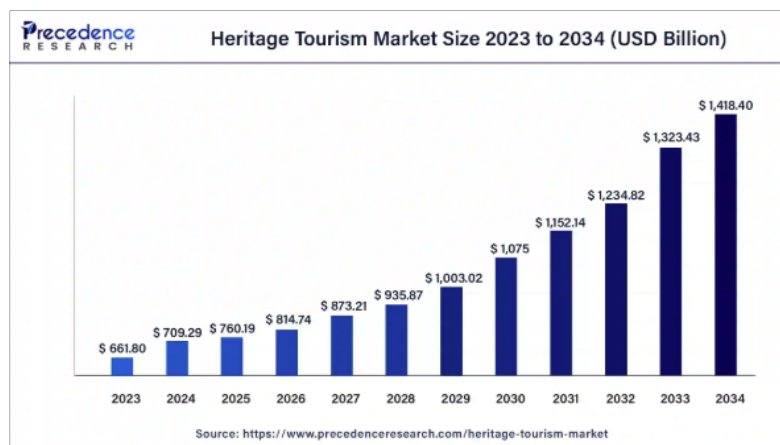
■ 국제 관광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²⁾

- 앤데믹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광업계가 회복되면서 국제적으로 관찰되는 여행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 세계 개별 여행객 중 혼자 여행하는 여성의 비율이 80% 정도 차지함
 -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안전하고, 특별하고 개인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여행경험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ntrepid Travel과 같은 회사는 여성 여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에 맞춰 대응 필요
- 둘째, 젊은층 사이에서 단체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친구들과 끼리의 여행, 단체여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활동적인 모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중 68%는 여행을 상호 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의미있고 사회적인 활동으로 생각
- 셋째,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여행지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 유명한 관광지의 오버투어리즘에 지친 여행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여행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 관광객의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넷째,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여행이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임. 지역사회의 질서가 우선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European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DMOs)는 생물종 보존과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다섯 번째, 기술발전으로 인한 관광객의 관광행태가 변하고 있음. 인공지능이 개인특성에 맞는 여행을 추천하고 예약 프로세스를 활용해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여행정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여행객들이 여행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여행 및 관광산업이 세계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함

2) Global travel trends for 2025: Sustainability, tech integration, emerging destinations.(2024. 12. 31).[International Travel News] 참고

■ 2025년 국제관광 트렌드³⁾

- 첫째, 관광객들이 현지 지역문화, 역사와 연결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몰입감이 있는 경험을 추구해 문화유산 및 문화여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됨. 문화유산관광은 더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
 - 문화유산여행, 자원봉사여행, 문화 관련 몰입경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문화 및 역사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여행비중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의 약 73%가량이 문화 및 역사적 장소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
- 각 나라의 정부가 관광산업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고 관광시장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시행한 결과 전 세계 문화유산관광 시장규모는 2023년 6,618억 8,000만 달러, 2024년 7,092억 9,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4~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17%로 예측됨
- 관광객들이 진정성 있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원하면서 문화유산관광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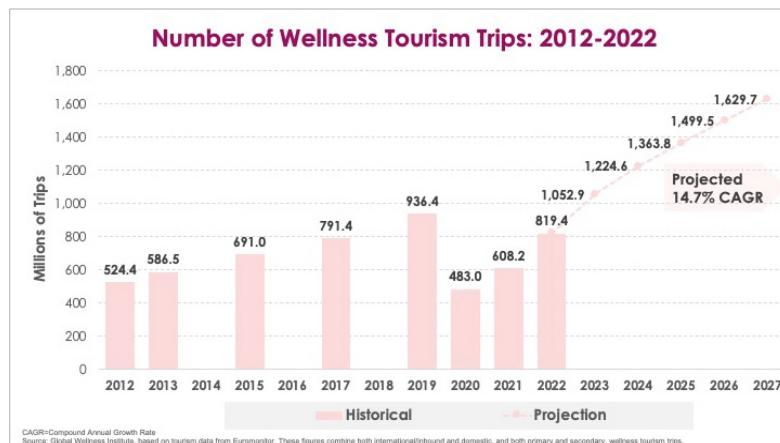


[그림 2-2] 2023~20234년 문화유산관광 시장 전망

자료 : Precedence Research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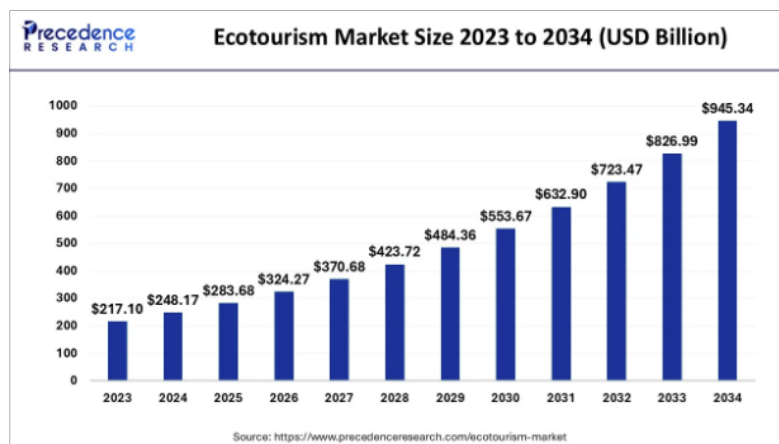
3) Global travel trends for 2025: Sustainability, tech integration, emerging destinations.(2024. 12. 31).[International Travel News], GLOBAL WELLNESS INSTITUTE 홈페이지, WORLD ECONOMIC FORUM 홈페이지, Foutune Business Insight 홈페이지 등 참고

- 둘째, 관광객은 전통적인 스파방문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측됨
 -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 관광수요는 2012~2019년까지 매년 약 8.6%씩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9억 3,640만 건으로 정점 기록
- 웰니스 관광지출도 2012~2019년까지 매년 7.3%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7,024억 달러로 정점을 찍음.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앤데믹시대 도래에 따라 점차 회복하고 있음
 - 2020~2022년까지 웰니스 여행은 매년 30.2%씩 증가했으며, 지출은 매년 36.2%씩 증가
- 현재, 북아메리카가 전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2024년 34%), 2024~2034년까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2024년 웰니스 관광시장 점유율이 27%로 북아메리카(34%), 유럽(2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웰니스관광 인프라 개발, 프리미엄 호텔의 웰니스관광 상품 출시, 디지털 기술 보급 등으로 웰니스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2-3] 2012~2022년간 국제 웰니스 관광의 변화 추이
자료 : GLOBAL WELLNESS INSTITUTE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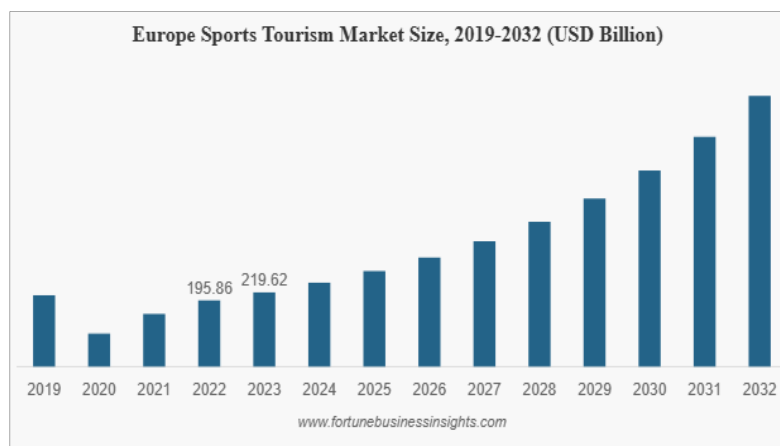
- 셋째, 특별한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실제로 트립어드바이저는 2021년 이후 자연 및 문화적 명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포럼의 여행 및 2024 관광개발 지수(TDDI)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결과와 동일함
- 글로벌 생태관광의 시장규모는 2024년에 2,481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34년 간 약 9,453억 4,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2024~2034년까지 성장률은 연평균 14.31%로 전망됨
- 자연 및 야생동물 관광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직접 국립공원, 자연, 야생동물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여행이 증가하면서 자연, 관광, 경제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측됨



[그림 2-4] 2023~2024년 생태관광 시장성장 전망

자료 : Precedence Research 홈페이지

- 넷째, 스포츠�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스포츠�관광은 체험 및 관람의 형태를 가짐. 개인적인 측면에서 건강증진, 사회친화력 제고 등의 효과가 있으며, 관광목적지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중요성을 지님(최옥환, 2014; 김화룡, 2019; 서재필·최덕환, 2021)
 - 관광과 스포츠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며, 스포츠�관광은 도시와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다양화 및 성장, 사회개발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 수행
 - 주요 스포츠 행사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더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점차 증가
- 2023년 스포츠클럽 세계시장규모는 5,443억 8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4~2032년간 6,186억 9천만 달러~2조 895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하여 평균 성장률은 16.43%로 추정됨⁴⁾



[그림 2-5] 2019~2032년 스포츠클럽 시장성장 전망

자료 : Fortune Business insights 홈페이지

4) Fortune Business insights 홈페이지

나. 국내 관광산업 변화 및 전망⁵⁾

■ 일과 여가 균형 중시 및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환경으로 관계인구 중요성 증가

- 위케이션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생겨난 관광형태로 관계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지역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정 수 이상의 관광객의 소비가 정주인구 1인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증대가 중요해짐
 - 해당 경향을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위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조성함.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일과 여가 조화'를 보장하는 여가친화기업 168개사를 인증함. 또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 위케이션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임

■ '개인'에게 집중하는 경향 증가

- '휴식'이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활동부터 음식까지 개인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함
- 2025 국내관광 트렌드의 8가지⁶⁾ 테마 중 하나도 '웰니스 치유여행 개인 맞춤화'로 개인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추구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음
 - 2025년 웰니스 관광트렌드도 개인의 장수에 초점을 맞춘 휴양과 함께 웰빙 리트리트 프로그램(건강진단 기반 개인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과 여행을 접목시킴

5) 진보라. (2022).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3-2025. 한국관광정책, (90), 128-138.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2025). 관광건설링 이슈발굴 참고

6) '지방소멸위기와 지역의 관광산업 기반 구축 노력', '반려동물 친화관광 확장', 'K-컬처 시대, 한류산업 확장 및 다변화', '미식여행', '범용화된 AI기술 활용', '웰니스 치유여행 개인 맞춤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의 편리성 강화', '로컬리즘 추구'

- 특히 여성의 상태(출산-산후조리-폐경 등)에 따른 맞춤형 여성건강 웰니스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음. 이를 통해 웰니스 관광도 개인 맞춤형 관광으로 변화할 것이며, 건강 관리와 여행이 결합된 관광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측됨
- 웰니스 관광 선호증가에 맞춰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우수 웰니스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유한 관광지를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신규 지정된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77곳이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됨
- 또한, 관광객들은 개인 취향에 맞는 테마와 관광체험을 중심으로 관광활동을 하면서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함. 혼행도 보편화되는 등 관광행태가 더욱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K-컬처의 영역 증가로 한국 방문동기 다양화

- 코로나19 속에서도 오징어 게임, 킹덤과 같은 OTT 드라마의 인기, 한국가수의 인기 증가, 웹툰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K-컬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방문 동기가 다양해짐. 한류의 범위도 과거 케이팝, 한국드라마 중심에서 예능, 웹툰, 뷰티, 패션, 게임, 예술 등 모든 K-컬처로 확장됨
-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 드라마, 영화에서 예능, 웹툰, 뷰티, 패션 등으로 한류의 영역이 확장되거나 일상화되는 경향이 등장함
 -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서비스업종 거래액은 2019년 대비 231% 증가한 364억 원임
 - 외국인의 K-패션 소비량도 증가하였는데 2024년 5월 기준, 무신사 스탠다드 ‘명동점’ 오프라인 스토어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전체 대비 45%임
 -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시즌’은 역대 최고 시청을 기록하였으며, 결승전을 시청한 약 320만 명 중 240만 명이 해외시청자임

■ 관광계층의 다양화

-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관광약자와 채식주의자, 반려동물 가구 등 모두 관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정착됨에 따라 무장애 관광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시니어(50대 상)층 여행, 반려동물 동반여행, 아기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여행이 증가함
- 이에 맞춰 국립공원도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무장애관광지를 선정하고 무장애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반려동물 동반 국내여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나홀로 여행객의 25%가 반려동물과 여행을 하고 있음. 구글 트렌드에서도 숙박이 증가하는 시기에 애견 동반 여행 관련 검색이 증가함
 - 이에 맞춰 지자체들은 반려가족을 위한 특색있는 관광 수용태세를 준비하거나 지역 자원봉사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 반려가족들을 위한 공원 관리·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음

■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관광업계 전반의 변화

- 최근 관광객은 온라인기술을 여행기록, 예약, 웨이팅 등에 활용하고 있음. 2025년 국내관광 트렌드 8가지 중 ‘범용화된 AI기술 활용’,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의 편리성 강화’는 발전한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편리성이 강화된 개별 맞춤형 관광서비스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이렇듯 디지털기술이 관광산업 전반에 적용되면서 개별 관광경험의 효율성이 높아져 한정된 시간 내에서도 관광객의 경험은 다양화되고 그에 따라 관광경험의 품질과 만족도는 증가
-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2025년에는 기술과 융합된 트레블 테크, 간편 결제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실시간 통번역체계 발달로 여행 언어장벽의 해소 등이 예상됨
 - 중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간편 결제 편의성을 향상하고 서울시는 AI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들의 언어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

■ ‘로컬여행’에 대한 관심증가 및 지역역량 중요성 강조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잘 알려진 관광지보다 숨겨진 명소를 발견하는 여행이 선호되면서 ‘로컬여행’의 선호도가 증가함. 해당 경향에 맞춰 지역 자체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내 관광지들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짐
 - 최근, 지역만의 특징이 담긴 식품, 공간, 굿즈, 서비스가 Z세대 사이에서 hip하게 여겨지는 로컬힙 현상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관광객들이 지역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자원과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유흥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역특산물과 공연을 결합하는 등 성공 사례가 보고 되고 있음
- 또한, 관광객들이 로컬여행을 선호하면서 ‘관광두레’와 같은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가 활성화되었고, 지역소재를 활용한 독창성을 발휘하는 로컬크리에이터가 등장함
- 2025년 관광트렌드 중 하나도 ‘로컬리즘’임. 지속적으로 지역 로컬푸드, 지역 밀착형 경험 등 로컬 철차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편, ‘로컬리즘’의 핵심은 지역만의 특색과 지역주민의 관광사업 참여가 중요함

■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여행 선호 증가

- 기후변화가 국내외적인 이슈로 주목받음에 따라 해당 경향으로 인해 관광업계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여행사들은 저탄소 교통수단, 친환경 숙소로 구성된 여행상품을 출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탄소중립 캠페인 ‘지구를 위한 다시 보기’ 행사를 추진한 바 있음
- 관광객들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도 강해져 탄소중립여행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짐. 이처럼 탄소중립은 사회 전 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지역특화관광의 개념

가. 지역특화관광의 정의

- 지역관광에 있어서 ‘특화(特化)’의 개념이 중요시됨. 특화란 지역 내 관광자원의 양적 비중이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원의 질적 우수성과 특별성을 의미함⁷⁾. 관광 자원, 관광상품, 관광서비스 등에 있어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존 자원을 중심으로 ‘특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됨
- 이러한 지역특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관광시장 확대, 관광상품과 서비스의 질, 나아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지역특화 전략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매력적인 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관광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에 추진한 ‘지역특화 관광개발’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그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함. 따라서 콘텐츠의 소비성, 즉 소비자의 변화하는 여행 흐름에 부합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세부 관광콘텐츠를 활용해 상품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지역특화사업인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사업’에서는 “스포츠 자원과 지역별 비교우위 관광자원 등이 융·복합된 신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 성과로 수익창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⁸⁾. 해당 정의에서는 ‘융복합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이 강조됨
-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서울특화관광’은 “오래된 것부터 새로운 것까지 모든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서울, 모든 사람을 매료시킬 만한 현재 건축과 고궁의 매력”을 강조하며, 이는 지역특화관광이 역사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의미함. 이러한 지역특화관광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오도록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7) 김향자(2022). 지역특화 관광개발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22쪽.

8) 문화체육관광부(2019).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사업 신규 공모(보도자료).

- 김향자(2022)는 지역특화관광 개발을 “지역의 문화, 자연, 사업 등을 기초로 하여 관광객에게 소구력이 있는 자원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며,⁹⁾ 지역특화관광의 개발, 판매, 소비,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지역특화관광 개발 시 인문학적 소양, 디자인적 사고, 주민의 삶에 대한 존중과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 유통 및 판매 등 마케팅 방식이 필요하다고 함
- 이밖에 지역특화의 개념은 관광분야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예를 들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 공모사업(2023)’에서는 “지역의 전통적·역사적·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콘텐츠,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신규 콘텐츠로서 경기도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연계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있음¹⁰⁾ 이는 있는 그대로의 콘텐츠 외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신규 발굴 콘텐츠까지 포함함
- 또한, 제주영상·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는 “제주지역 특화성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개발하여 제주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지역콘텐츠 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 활성화 및 지역 콘텐츠사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할 때 지역특화관광은 지역의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특성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특화산업을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지역 내외에서 생산요소(자본, 기술, 노동력 등)를 동원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정의함
 - 이 개념에 기초할 때, 지역특화관광은 기존에 특화된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성장가능성이 있는 관광형태를 의미

9) 김향자(2022). 지역특화관광 개발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28쪽.

10) 경기콘텐츠진흥원(2023).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 공고문(보도자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지역특화관광은 “지역의 자연적·역사적·문화적 자원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경제성을 갖춘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정의 가능함
 - 이 개념 속에는 타 지역과의 차별성, 콘텐츠의 소비성, 민관 협력성, 경제성 등의 특징을 내포
 - 이는 지역특화 관광개발이 점적인 자원이나 시설의 조성 개념에서 벗어나 관광상품화 및 서비스 혁신까지 포함한 지역관광 혁신생태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
- 광역이든 기초이든 지역특화관광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관광유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특화관광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형태임.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사업추진 시 지역특화 관광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한 차원 높은 ‘전북특별자치도 특화관광’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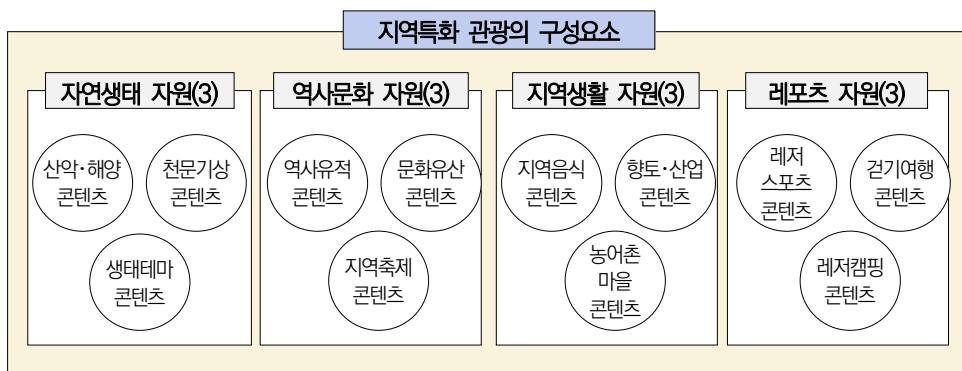
나. 지역특화관광의 특징

- 이상에서 논의한 지역특화관광의 개념에 기초할 때 지역특화관광의 특징은 자원 콘텐츠의 특성, 관광자원의 상품컨셉트 창출, 민관협력형 사업과 효과, 그리고 방법론적 접근방식의 전환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는 관광자원 콘텐츠의 특성과 유형임. 지역특화관광의 자원(콘텐츠)을 발굴하고 잘 분석하여 타 지역 대비 비교우위의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에 추진한 ‘지역특화 관광개발’ 사업의 관광콘텐츠 유형은 생태녹색관광, 산업관광, 레저스포츠관광, 걷기여행길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음.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시도라 볼 수 있지만 각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를 좀 더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현 정부 관광정책인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지역특화 관광의 내용을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관광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다소 일반적인 유형들임.¹¹⁾
 -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화관광을 한류관광, 서울도보해설관광, 의료관광, 시티투어버스를 선정하고 있음¹²⁾. 이는 서울시가 보유한 잠재력(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초점을 둔 것임

11) 문화체육관광부(2022),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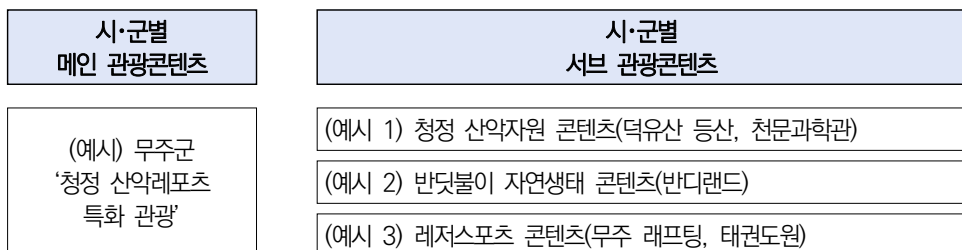
12) 서울특별시·서울관광재단(2023), 서울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 이와 관련하여 지역특화관광의 자원(콘텐츠)은 산악·해양 콘텐츠, 생태테마 콘텐츠, 역사유적 콘텐츠, 전통문화 콘텐츠, 지역음식 콘텐츠, 레저스포츠 콘텐츠, 문화유산 콘텐츠, 농촌마을 콘텐츠, 지역축제 콘텐츠, 향토·산업 콘텐츠, 천문기상 콘텐츠, 걷기여행 콘텐츠, 레저캠핑 콘텐츠 등 12가지로 구분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가 분류한 지역특화 관광자원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테마여행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구분하면 자연생태 자원(3개), 역사문화 자원(3개), 지역생활 자원(3개), 레포츠 자원(3개)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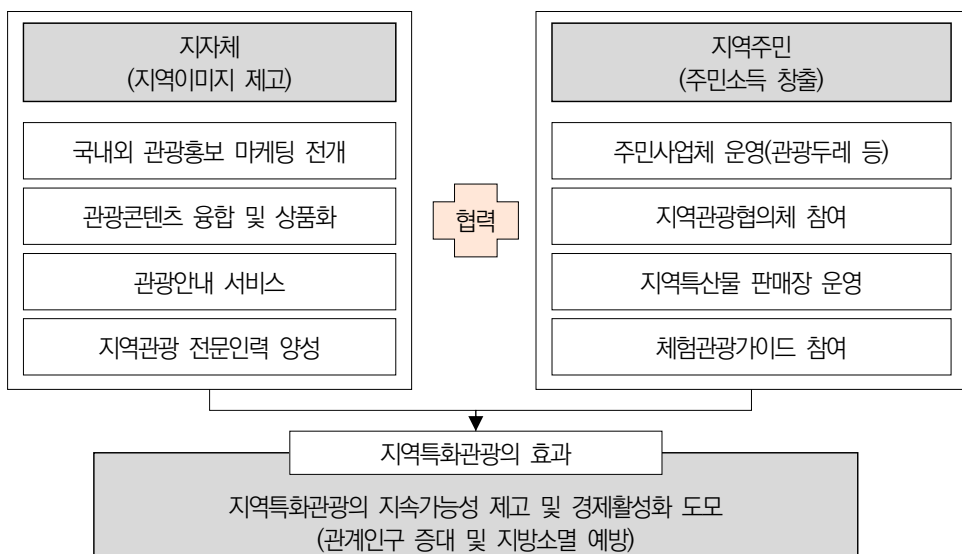
[그림 2-6] 지역특화관광의 구성요소와 주요 콘텐츠 유형

- 둘째는 지역관광자원의 상품 개념트 창출로 지역특화관광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메인(main) 콘텐츠와 서브(sub) 콘텐츠의 유기적인 결합과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무주군의 경우 '청정 산악레포츠 특화 관광'이 메인 관광콘텐츠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브 관광콘텐츠는 청정 산악자원 콘텐츠, 반딧불이 자연생태 콘텐츠, 그리고 레저스포츠 콘텐츠를 들 수 있음. 이러한 조합과 융합을 통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호감을 얻을 수 있음



[그림 2-7] 지역특화관광 개념과 관련 콘텐츠 연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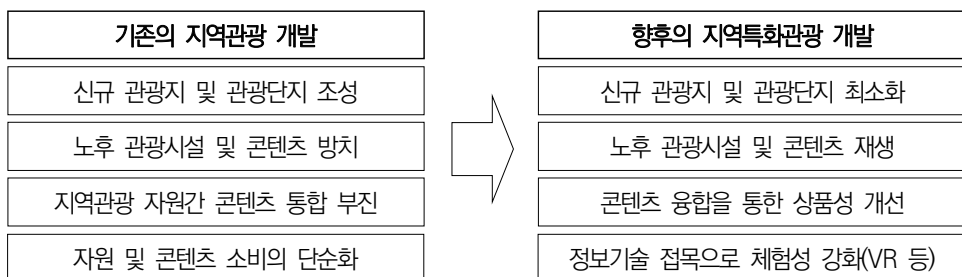
- 셋째는 민관협력형 추진방식과 사업성과임. 지역특화관광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보고 느끼고 맛보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임. 따라서 추진 주체는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장 필요하지만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
-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자체들이 지역의 관광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지역특화 관광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2-8] 지역특화관광의 추진방식 및 효과

- 지역특화관광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지역 내 자본의 순환을 가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생활여건을 현재보다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지역특화관광을 육성하여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리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 관광콘텐츠 융합 및 상품화, 관광안내 서비스, 체험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함. 또한, 지역주민은 주민사업체 운영, 지역관광협의체 참여, 지역특산물 판매장 운영, 체험관광가이드 참여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러한 협력방식을 통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비슷한 사례로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의 ‘2023 전북특별자치도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을 들 수 있음. 해당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개발 역량강화와 전북특별자치도지역 특화 소재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³⁾
- 나아가 도시 소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광서비스로 관계인구를 증대시키고 지방소멸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뒀다 함
- 넷째는 지역특화관광의 방법론적 접근방식의 전환임. 지역특화관광은 새로운 시설이나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자원의 재생, 통합, 융합, 패키징과 같은 소프트한 개발방식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음. 여전히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관광자원 및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지역특화관광의 핵심은 부존자원의 발굴과 통합적 노력을 통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되도록 상품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다만 유희공간 및 유희시설의 재생 등을 통하여 부족한 하드웨어 기반을 보완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특화 관광의 핵심적 접근방식은 신규 자원 개발 및 조성보다는 유희시설 보완,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재생, 콘텐츠의 융합을 통한 상품성 개선, 디자인 패키징에 초점을 뒀다 함
- 나아가 보고 즐기는 단순 관광체험에서 벗어나 AR, VR, MR 등 다양한 정보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체험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 추세



[그림 2-9] 지역특화관광의 방법론적 접근방식 전환

13)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202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공고(보도자료).

3. 지역특화관광 관련 정책동향

가. 중앙정부 부처

1) 국토교통부

■ 지역특화 재생사업

- 지역특화 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시행됨. 기존 공모유형이 아닌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생을 하는 것이 특징임. 지역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며,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도시 육성을 목표로 함
- 2024년부터 용도지역·면적 등 기존 공모유형의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자율적인 특화사업을 추진함. 사업유형은 도시브랜드화,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지원,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등으로 구분됨

[표 2-1] 지역특화 재생사업 사업내용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도시브랜드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보존·확립 및 관광객 친화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역사, 문화, 건축 등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 거점 조성, 지역명소와 연계한 방문코스 개발, 도시 브랜드 및 테마상품 개발 지원
상권 활성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및 창업 공간 지원
창업지원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위기지역,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위한 공유 오피스 조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일자리 창출, 청년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집중 육성이 필요한 지역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코리빙 하우스 조성 등

자료 : 국토교통부(2024). '24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2022년 15곳, 2023년 16곳, 2024년 하반기에는 12곳이 선정됨. 2024년일 경우 비수도권 지역이 10곳(83%), 인구 10만 이하 소도시가 6곳(50%)이 선정되어 해당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선정지역은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활력을 높이며, 상권 및 관광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2) 국가유산청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전국에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각 지역의 인적·물적자원과 연계하여 국민이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됨
 - 세부사업은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국가유산 야행’,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으로 구성
 - ‘생생 국가유산’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지역의 국가유산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여 이를 콘텐츠화하고 국가유산이 역사교육의 장이자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
 -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은 지역의 향교, 서원과 배향인물이 가진 역사적 의미, 가치 활용을 통해 향교와 서원을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산 야행’은 지역에 집적된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연계하여 밤시간에 특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은 사찰이 보유한 국가유산,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전통산사의 국가유산적 가치, 의미를 체험, 공연, 답사 등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고택·종갓집 활용’은 고택과 종갓집의 전통의복, 식사, 생활습관, 의례 등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주변 지역의 생태·문화자원과도 연계하여 고택·종갓집을 지역 문화유산 자원으로 발전시킴
-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유산을 특화하여 체험 중심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역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방문객들의 체류시간도 늘려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고용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지역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게 지역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늘리고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고품격의 국가유산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 명승 옛길 조성사업

- 명승옛길 조성사업은 지역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명승지를 선정하고 이를 연결하는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역사·전통적 가치를 가진 옛길을 정비 및 복원하여 지역 고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함
- 단순 등산로,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 과거부터 사람들이 이동했던 길을 복원하고 길에 산재되어 있는 과거의 흔적들도 보존하여 방문객들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음
- 현재 명승옛길은 총 10개소로 각 길별로 보유한 고유의 역사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관광콘텐츠 개발하는 등 지역의 역사를 현대적인 시점에서 재조명하여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2-2] 명승옛길 지정현황

구분	세부내용
죽령 옛길	· 소백국립공원에 위치, 영주와 단양을 연결하던 옛길로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된 오랜 역사를 가진 옛길임
대관령 옛길	· 오래전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역로이자 교통로이며, 고려시대~조선시대 동안 주요 교통로 역할을 함
구룡령 옛길	· 양양과 홍천을 연결,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상품 교역로임. 고성 지방 선비들이 과거를 치르러 지나가던 길이자 일제 강점기 잔재가 남아있는 길임
문경새재	· 조선 태종때 개통된 관도 벼슬길로 <세종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됨. 정자, 주막터, 성황당 등 과거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음
충주 계림령로 하늘재	·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길로 고구려, 백제의 영토분쟁 역사가 전해짐, 월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볼 수 있음
문경 토끼비리	· 태조 왕건이 남쪽으로 진군 시 이곳에 이르러 길이 없어졌는데 마침 토끼가 벼랑을 따라 달아나면서 길을 열어주어 '토천(兔遷)'이라 부른데서 유래
삼남대로 갈재	· <신증동국여지승람>, <호남읍지> 등 각종 지리지, 고지도,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과거 돌길 및 흙길의 원형이 남아있음
관동대로 구질현	· 관동대로의 일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구질현이라 기록됨. 남한강 수운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해야 했던 길임
창녕 남지 개비리	· 일제강점기 지형도에 기록된 경로가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낙동강에 형성된 식생이 옛길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형성함
삼남대로 누릿재	· 정약용과 관계가 깊은 고갯길로 그의 다양한 시, 글, 많은 문인들의 방문기록이 내려오는 등 역사적 가치가 크고 서낭당터와 같은 과거 흔적들이 남아있음

자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국가유산 방문의 해

-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은 지역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 국가유산(문화, 자연, 무형유산 등)을 활용하는 사업임. 전국 최초 광역단위 프로그램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첫 사업시행지임
 -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해당 사업을 통해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 모델을 제시할 예정
- 계절별 유산체험, 방문자센터 운영, 스텝 투어 등으로 구분·운영되며, 이를 통해 계절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여 제주도를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역사문화자원을 지역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자원이 집약된 고도(古都), 근대역사문화공간, 역사문화권, 세계유산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함
 - 지역별로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은 교육, 연구,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기여 가능

[표 2-3]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고도(古都)	·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정지구 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 한옥 지원, 담장·간판 등 가로경관 정비 등('24년 30억원) · 고도 역사도시 조성으로 관광거점 구축('24년 93억원) - 서동 생가터·대통사 유적정비,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 고도 확대 지정 (고령-대가야, 함안-아라가야, 전주-후백제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 8개 지역 대상 등록문화자원 정비 및 경관 개선 (목포, 군산, 영주, 영덕, 익산, 통영, 서천, 진해 / '24년 22억원) - 전선 지중화, 가로경관 및 골목길 정비, 야간조명, 편의시설 등
역사문화권	· 정비 선도사업(강릉, 나주, 해남, 함안) 착수('24년 18억원) · 역사문화권별 복합문화공간 건립 추진(가야·마한·후백제역사문화센터)
세계유산 거점 지역	· 백제왕도, 신라왕경 등 핵심유적 기반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조성 등 거점별 인프라 구축 - 익산센터('24.8월 개관), 부여센터('24년 발굴조사), 경주센터(신규, '24년 기본계획 수립)

자료 : 문화재청(2024).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

-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농촌관광 운영주체들과 연계·협력하고 특색 있는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해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 농업·농촌의 역사·공익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기획의 장으로 지역 내 농촌 관광자원과 일반 자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려는 기초지자체가 사업대상
 - 201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
- 지역농촌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자원(ex. 국가중요농업유산, 경관작물 재배지역, 국유림명품숲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대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맞는 사업전략 수립, 관광사업자로서 주민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함
 - 이를 통해 점차 농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2017~2024년까지 전국 총 26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됨. 2024년까지 사업 선정지는 3개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관광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2개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함. 3개년부터는 사업 고도화 단계로 2년 동안의 사업성과를 평가해 사업에 재공모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타 사업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표 2-4] 전국 지역단위 농촌사업 지정 현황(2024)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	-	-	-	-	-	-	-	1	1	4	3	1	5	3	4	2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5년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추진계획(안)

■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

-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임. 약 270억 원 규모로 새로 재편된 농촌공간에 테마·치유관광, 위케이션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를 시범조성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위케이션·농촌관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함
 - 빈집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창업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재생을 확산('24년, 2개 지역 → '25년, 5개 지역)하고 이를 통해 농촌 인프라 확충
- 이를 위해 지자체 공간계획 수립을 기초로 5개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함. 또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과 함께 근거 법률도 마련할 계획임. 이를 통해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경제적 활력 창출함 (농림축산식품부, 2025)

■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202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창조관광¹⁴⁾의 일환임.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변 명소, 즐길거리, 먹거리를 하나로 묶어 관광객들의 삶의 방식과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함
-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농촌특화 테마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며, 농촌 경영체와 민간 여행사가 협업하여 농촌에 특화된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함
 - 참가자들이 농촌문화체험을 넘어 배움, 휴식, 즐거움, 자기표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로컬여행 선호', '힐링여행 및 웰니스관광 선호' 경향을 반영한 융복합관광상품임

14) 지역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기획·운영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과 방문자 간 교류와 개인의 자기표현을 증진하는 창조적인 관광활동

- 2024년 사업대상지는 시·군 20개소이며, ‘강원 원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익산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됨. 우수사례 선정 시 개발된 관광상품의 매력성 외에도 운영체제도 평가하여 농촌지역 자생력 강화라는 사업성격을 더욱 공고히 함

[표 2-5] 농촌 크리에이터 자원사업 대상지(2024)

구분	브랜드명	구분	브랜드명
경기 가평군	체험나라 공화국 in 가평	전북 무주군	Re:Born in Muju / 무주 1614
강원 평창군	플레이 어올림픽 평창	전북 익산시	다이로움 시골여행
강원 삼척시	삼척 힐링 상상(想像)투어(투어)면책 삼척	전남 영암군	내안에 품은 영암, 달품에
강원 원주시	원주 사색(思索) 크리에이투어	전남 순천시	두루미(美) 순천마을여행
강원 횡성군	횡성군 8대 명품과 함께하는 팔방미인투어	전남 곡성군	팜컬처랩(Farm Culture Lab), 문화법석 난리곡성
강원 양양군	Endless Summer 양양	경북 영주시	테이스트 로컬라이프(탐미여행 플러스 in 소백산자락)
충북 충주시	태어난 김에 충주 일주	경북 고령군	고령 통통 어와달달 별곡
충북 보은군	유희한 #보은투어	경남 거창군	신비한 웰니스 거창(가창하게 노는법)
충남 부여군	부여 Meet the Origin 투어	경남 남해군	보물섬 남해 탐구생활
충남 홍성군	따르릉 홍성 유기'논'길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농촌카툰투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놀며 배우며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농촌!

[표 2-6]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우수사례(2024)

소관 지자체	브랜드	공동협업체 구성	사업내용
강원 원주시	원주 사색(思索) 크리에이투어	(사)원주시농촌 체험휴양 마을협의회 (주)맛조이코리아	· 상품개발 우수 - '자연·음식', '웰니스', '크리에이터', '문화예술' 4가지를 핵심테마로 삼아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보는 여행이 아닌 참여형 여행으로 전문가를 매칭함 - 여행전문가의 역할은 민간여행사(맛조이코리아)의 상품 코스 개발·판매, 컨설팅 지원임
충남 홍성군	따르릉 홍성 유기'논'길	홍성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행복한여행 나눔	· 거버넌스 구축 우수 -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 1번지인 홍성의 시그니처 농촌 여행으로 유기'논'길+전기자전거를 접목하여 홍성만의 특별한 여행코스를 개발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홍성통*, 로컬여행사, 지역관광네트워크(DMO사업단)간 자원공유 및 피드백 등 체험마을 순회, 월례회의 운영 등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함
전북 익산시	다이로움 시골여행	익산농촌활력 지원센터 (주)해밀여행사	· 주민협업체 운영 우수 - 코레일 및 지역상품기업(하림) 연계상품을 운영함 - 지역에 귀농한 농촌관광 청년활동가(투어메이트)들의 상품개발 참여 및 가이드 참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으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2025년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자 선정 계획(안)

4)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상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는 도시를 의미함
 -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3년 12월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2억 원을 지원받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2024년 모두 최종 지정됨
 - 선정된 지자체별로 향후 3년(2025~2027년)간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문화향유·참여자 수 2천만 명, 동네문화공간 2만 곳 활용 및 조성,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자 함

문화의 힘으로 도시 전체를 바꾸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1. 예술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	
대구 수성구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의 미술, 아트뮤지엄시티 조성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유통의 도시, 문화도시 안성
경남 통영시	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크리에이티브 통영
2. 문화산업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 도시	
전남 순천시	창작의 메카, 콘텐츠로 피어나는 문화도시 순천
전북 전주시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 전주
경남 진주시	빛 담은 문화도시 진주
3. 뿌리 깊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도약을 도모하는 도시	
경북 안동시	놀이로 즐거운 전통 문화도시 안동
전남 진도군	대한민국 문화도시 민속문화의 섬, 진도
충북 충주시	국악콘텐츠 허브시티 충주
4. 천혜의 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도시	
강원 속초시	‘맛’으로 엮여가는 도시의 ‘맛’, 음식문화도시 속초
부산 수영구	골목에서 바다로 해변 문화컨벤션 도시 수영
5. 지역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충남 홍성군	유기적인(人) 문화도시 홍성, 문화의 맛으로 통하다

[그림 2-10]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비전 및 목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문화의 힘으로 도시 전체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최종 지정

로컬 100사업

- 로컬 100사업은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임. 매력성을 가진 문화시설, 프로그램, 로컬콘텐츠, 로컬스토어, 로컬상권을 종합하여 심사를 한 후 지역 특화성과 매력성이 가장 우수한 100곳을 선정함
- 해당 사업은 지역문화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지역문화 대상 사업¹⁵⁾이 단순 정책포상에 그치고 있어, 대국민적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역문화매력자산(문화, 예술, 관광, 역사 등)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됨
 - 지역문화매력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지역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방문자 증가를 통해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2025년 로컬 100사업 관련, 인플루언서와 협업 숏폼 제작, 콜라보상품 개발 등 민관 협업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임

[표 2-7] 전국 로컬 100사업 선정 현황(2024)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0	5	8	6	5	5	3	2	1	13	20	6	3	5	4	6	7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재)지역문화진흥원(2024). 100가지 지역문화이야기 로컬 100

K-관광섬 육성사업

- K-관광섬 육성사업은 섬별로 고유자원(인문, 생태, 자연)을 활용하여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현대사회 트렌드에 맞춰 저밀도·청정 관광지인 섬에 관광과 K-컬처를 융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하는 사업임(문화체육관광부, 2023)
- 2022년 전국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도서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함. 섬의 가치와 잠재력, 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5개의 섬을 최종사업지로 선정함

15) 매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 우수사례를 2곳 이내로 선정 후 포상

-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섬은 4년(2023~2026년)간 100억 원 내외(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를 지원받아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관광사업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편의서비스 기반 강화, 섬별 정체성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표 2-8] 가고 싶은 K-관광섬 선정현황(2024)

구분	지자체	비전
거문도	여주시	함께 행복한 산다이-거문도(Sunday island)
말도·명도·방축도	군산시	고군산군도 하이트레킹(Walk on the sea)
백령도	옹진군	서해의 최북단 별뜨락 '대한민국 평화·생태 섬, 백령도'
울릉도	울릉군	아름다운 자연과 고유문화를 즐기는 울루랄라 울릉도
흑산도	신안군	생태·역사 관광의 섬, 자산어보 흑산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을 더 빛나게, 발전방안 모색

- 현재, 각 지자체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 지역특화 관광콘텐츠사업¹⁶⁾

- 국내외 관광객들이 그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사업을 추진함
- 2021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생태녹색관광, 산업관광, 레저스포츠관광, 걷기여행길 활성화 등 4개 분야의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를 선정함
- 첫째, 생태녹색관광은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과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두 분야로 나뉨. 먼저 생태 테마 관광자원화는 관광객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과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인문학적 이야기를 결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12개소가 선정됨.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5개소가 선정됨

16)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지역특화 관광자원' 새롭게 선정, 발표. (2021.01.27.). [티브이뉴스].
https://www.ttlnews.com/article/KOREA/9333?utm_source=chatgpt.com 참고하여 작성

- 둘째, 산업관광은 지역의 특화산업, 기업체, 산업시설 등의 산업자원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해 방문객에게 특색있는 체험형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2개소가 선정됨
- 셋째, 레저스포츠관광에서 전개하는 사업은 소규모·개별관광에 어울리는 특성이 있음.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이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5개소가 선정됨
- 넷째, 걷기여행 활성화는 지역의 매력적인 걷기여행길과 대표 관광자원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지역특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5개소가 선정됨

[표 2-9] 지역특화관광자원 선정(1) 생태녹색관광사업

사업명 및 분야		지자체	사업명
생태녹색 관광사업 (17)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12)	부산 금정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경북 성주	500년 왕버들 성밖숲이 주는 자연의 선물
		전남 해남	땅끝 황토나라 꿈지락 캠핑
		강원 원주	성황림, 신과 함께하는 숲 속 여행
		대전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경남 고성	고성에서 몽골까지, 날아라 고성 독수리
		경기 시흥	갯골생태공원 - 바람언덕에 그린 스쿨
		충남 서천	휴일N 놀러와유(遊)
		충북 제천	축백 생태숲과 함께하는 인문기행
		전남 여수	싸목싸목 낭만 낭도
		전남 보성	보성차밭 & 울포솔밭 해수욕장(보성 물들茶)
		대구 달서	달서 대명유수지 맹꽁이 나라 생태학교
	노후관광 시설재생 (5)	경남 김해	김해천문대!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강원 횡성	호수에 어린 오색빛 꿈길여행
		경남 하동	섬진강 생태여행, 반딧불이가 덮고 자는 모래이불
		경남 창원	진해 경화역(폐역)에 내린 별빛 생태인문학 향연
		경북 문경	꽃따라 단풍따라 떠나요, 문경 옛길 탐방-자연생태박물관

[표 2-10] 지역특화 관광자원 선정(3) 레저스포츠산업

사업명	지자체	사업명	종목
레저 스포츠 산업 (5)	강원 강릉	해중공원을 누비는 신비한 바다 속 산책	스킨스쿠버 등
	충남 부여	하늘·땅·물에서 즐기는 관광레저스포츠 체험	열기구, 패러글라이딩 등
	강원 원주	온몸이 짜릿짜릿! 산악자전거와 캠핑을 한곳에서 즐기자!	MTB, 캠핑 등
	전남 신안	신안 섬 자전거 여행 상품 운영	자전거
	대구 달성	체류형 레저관광, 낙동강 레포츠 랠리	수상스키, 카약 등

[표 2-11] 지역특화 관광자원 선정(4) 걷기여행길사업

사업명	지자체	사업명	코스
걷기 여행길 사업 (5)	울산 동구	취향의 발견 해파랑길 걷기플렉스	해파랑길 8코스
	충남 서산	구석구석 함께 걸아볼까 YOU! 서산	서해랑길 66코스
	경남 고성	같이 갑시다. 고성 해양 치유길	남파랑길 31, 33코스
	대구 동구	팔공산 왕건길 걷기(克己)여행	팔공산 왕건길
	전남 해남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	남파랑길 89, 90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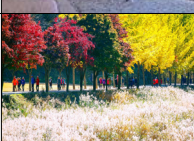
[표 2-12]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지자체 선정지

구분	관광자원	사진	소개
생태 녹색 관광 (생태 테마 관광 자원화)	회동수원지 (부산 금정)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010년 45년 만에 개방된 회동수원지는 잘 보존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프로그램과 땅되산 황토숲길, 대숲길, 수변길 등 아름답고 걷기 좋은 산책코스가 있어 도심 속 힐링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음
	성박숲 (경북 성주)		500년 세월의 왕버들 52그루가 모여 사는 성박숲은 매년 여름이면 보랏빛 맥문동이 질푸른 왕버들과 멋진 풍경을 연출하며 성주생명문화축제(5월) 및 와숲축제(8월)를 개최하고 있음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전남 해남)		바다를 바라보며 숲길을 산책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최적지이며, 황토의 특성을 살린 테마촌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해남의 대표 힐링 문화공간임
	성황림 (강원 원주)		천연기념물 제93호인 원주 성황림은 성황제 또는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곳으로 '신들의 숲'이라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성황림 생태 이야기, 호흡명상 프로그램, '나만의 숲'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음
	대청호 (대전)		봄과 여름에는 초록빛으로 물든 억새와 갈대가 대청호의 푸른 물빛과 어울리며, 가을에는 아름다운 억새와 갈대가 자천에 흐드러져 있는 전경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함. 예술가와의 산책, 도자기 풍경 만들기 등의 체험을 즐길 수 있음

[표 2-13]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지자체 선정지(표계속)

구분	관광자원	사진	소개
생태 녹색 관광 (생태 테마 관광 자원화)	시흥갯골 생태공원 (경기 시흥)		내륙 깊숙이 형성된 갯골과 옛 염전의 정취를 간직한 장소임.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汽水)지역의 특성이 있으며 내륙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경관이 연출됨. 칠면초, 나문재 등 염생식물과 붉은발 농게, 방게도 관찰, 염전체험도 즐길 수 있음
	장항 송림산림욕장 (충남 서천)		천연 해송 사이로 쪽 뺨는 “시인의 하늘길”과 송림백사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철새 하늘길”을 걸을 수 있음. 높이 15m, 길이 250m 해송 숲 위로 가로질러 바다로 이어지는 스카이워크에서의 아찔함과 8월말 맥문동꽃의 장관을 경험할 수 있음
	촉백생태숲 및 옥순봉 (충북 제천)		1548년 퇴계 이황이 보고 그 모양이 죽순(竹筍)과 같다 하여 이름 붙인 대한민국 명승 제48호 “제천 옥순봉”의 인문학 콘텐츠와 대한민국 유일 촉백나무 숲 탐방 및 촉백 활용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한 생태-인문학 관광 최적지임
	화정면 낭도리 일원 (전남 여수)		2003년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된 낭도는 공룡발자국 화석과 주상절리 등 다양한 퇴적층과 해안선을 감상할 수 있으며 행안부 선정 “202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섬”으로 선정됨. 100년 전통의 낭도 ‘젓쌈막걸리’와 곳곳의 절경은 ‘싸목싸목’* 걸으며 즐길 수 있는 낭도의 낭만임. *‘천천히’의 전라도 방언
	보성차밭 울포솔밭 해수욕장 (전남 보성)		보성은 산비탈에 자리 잡은 한반도 최대의 이색 차밭경관과 차 관련 간식거리가 대중화 되어 있고, 호수처럼 잔잔한 득랑만과 은빛 모래가 펼쳐진 울포솔밭해수욕장은 녹차해수탕, 콘도, 맛집 등이 준비하여 보성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임
	대명유수지 (대구 달서)		대명유수지는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로 알려졌다, 맹꽁이 이외 살, 족제비, 황조롱이 등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임. 특히, 억새와 갈대가 펼쳐져 있어 가을철 인생샷 및 출사 명소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
생태 녹색 관광 (노후 관광 시설 재생)	김해 천문대 (경남 김해)		2002년도 개관한 영남 최초의 시민천문대로서 타지역 천문대와 달리 2개의 대형 천체망원경을 보유 중이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김해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가야사와 연계한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황성호수길 (강원 황성)		황성호수길은 황성호란 아름다운 호수와 이를 둘러싼 주변의 산을 테마로 하여 총 31.5km, 6개 코스로 조성되었음. 이 중 제5코스는 푸른 황성호를 따라 걸으며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 있고 9km 남짓한 거리와 평이한 난이도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들이 코스로 제격임

[표 2-14]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지자체 선정지(표계속)

구분	관광자원	사진	소개
생태 녹색 관광 (노후 관광 시설 재생)	지리산생태 과학관 (경남 하동)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고소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시관과 영상체험관, 야생화단지를 고루 갖춘 체험 위주의 과학관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반딧불이, 섬진강과 같은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이 가능함
	진해 경화역 (경남 창원)		2006년 폐역이 된 진해 경화역은 여좌천, 내수면환경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벚꽃 생태관광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경화역은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기간은 물론, 철길을 따라 관광객들의 가벼운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임
	문경새재 "옛길" (경북 문경)		대한민국 명품 문경새재 옛길에 위치한 생태문화 거점시설 문경자연생태박물관 재생사업을 통하여 지역에 산재된 생태녹색 감성 여행 정보 제공, 이색적인 체험 여행, 지역민을 활용한 여행서비스 등을 제공될 예정임
산업 관광	삼탄 아트마인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은 국내 최초로 폐광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해석된 근대산업문화유산으로 역사문화교육적 가치가 높은 곳임. 근대산업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단순히 즐기는 여행이 아닌 세대적 교훈과 문화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임
	자연드림 파크 (충북 괴산)		괴산 자연드림파크는 공방, 영화관, 숙박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갖춘 친환경 유기농 식품산업 클러스터(단지)로서 괴산군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과정을 보고 체험가능한 제조공방 견학, 연구원들이 식품의 곰팡이독소와 중금속 검사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검사센터 견학, 유기농 할링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 가능함
레저 스포츠 관광	해중공원 (강원 강릉)		강릉 해중공원은 경포 인근 사근진 해변에서 3km 떨어진 해역에 113ha 규모로 조성된 수중공원임. 수심은 20~30m이며 여러 암반 지형에 인공어초, 침선어초(2,000톤, 800톤) 등 다양한 바다 속 볼거리를 제공함. 또한, 강릉의 문화와 역사, 탐험과 신비가 가득한 물속 옛 전설의 보물섬과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볼 수 있음
	백마강 일원 (충남 부여)		전국 유일하게 독점 운영하고 있는 열기구 체험과 국내 최초 도입된 육상과 해상을 넘나드는 수륙양용버스, 국내 최장거리 코스의 ATV 및 카누체험 등 백마강을 배경으로 백제의 역사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부여의 관광지들을 한눈에 보며 체험할 수 있어 언택트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음

[표 2-15]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지자체 선정지(표계속)

구분	관광자원	사진	소개
레저 스포츠 관광	산악자전거 캠핑 (강원 원주)		원주시 신림면 황둔 지역은 산림레포츠 체험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 수려한 치악산, 감악산이 위치하고 캠핑장 및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어 가족단위로 다양한 레포츠 체험과 산림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음
	신안섬 자전거길 (전남 신안)		신안 자전거 길은 해안 임도, 방조제길, 노두길 등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 섬과 섬을 잇는 특색있는 자전거 여행코스임. 이 중 압해&기점소악도(70km / 신안군청~죽도 노두길~천사섬 분재공원~기점·소악도) 코스는 해안을 바라다보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대표코스임
	낙동강 레포츠밸리 (대구 달성)		수상레저센터, 구지오토캠핑장, 강변오토캠핑장으로 구성된 수상레저시설과 야영장을 갖춘 낙동강수변 종합관광휴양지로 가족이나 연인끼리 카라반에서 야영을 하며 모터보트, 카약, 윈드서핑, 세그웨이, 산악용오토바이 등 레저 체험을 할 수 있음
걷기 여행길 활성화	해파랑길 8코스 (울산 동구)		동남단 꼬리지점 뾰족하게 튀어나온 끝자점에 있는 해파랑길 8코스 5.6km구간. 낭만가득 일몰과 유채꽃밭이 조화로 온 솔도를 시작으로 100년 역사 1만 5천그루 송림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일출명소 대왕암공원을 따라 취향을 공유하는 건강한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함
	가로림만 프로그램 (지곡편) (충남 서산)		칠지도 아철자가 있는 쇠팅이 마을에서 백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음. 또한, 창작예술촌에서 지역예술가들의 예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갯벌체험, 도예(서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함
	남파랑길 고성-31 고성-33 (경남 고성)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를 따라 조성된 해안 둘레길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지개다리, 공룡발자국과 기암절벽이 계곡을 형성한 상족암군립공원을 거닐며 코로나19와 일상속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음
	팔공산 걷기 여행길 (대구 동구)		2019-2020년 한국관광 100선 선정! 천혜의 자연경관 팔공산은 3대 문화권 유적이 집적된 역사문화자원의 보고로, 고려태조 왕건길(신승경장군유적지), 팔공산 순환도로 단풍길, 벚꽃길, 올레길, 녹색길, 힐링길 및 길에서 만나는 사찰(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축제 등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걷기(극기) 여행에 충분히 매력을 갖고 있음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89, 90코스 (전남 해남)		미항사와 달마산 일원에 조성되어 빼어난 산세와 다도해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17.74km의 남도 대표 명품 둘레길임. 달마고도에서 다양한 테마의 걷기 프로그램,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남도의 정이 살아있는 달마장터 등이 운영될 계획임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며,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매년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함
- 해당 사업으로 인해 지역문화의 가치 재발견, 문화적 다양성 증대, 지방의 문화적 자립성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됨. 2025년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1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표 2-16] 2025년 광역지자체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부산	영상+인디 콘텐츠 거점-1인 및 소규모 인디콘텐츠 육성
대구	게임테크 허브
인천	글로벌 콘텐츠 진출 거점- 국내외 콘텐츠 기업 비즈니스 교류거점
광주	캐릭터시티 조성-국내 IP 기반 캐릭터 산업 육성
대전	특수영상 제작 거점-특수영상 기반 융복합클러스터
울산	자동차, 정유, 조선산업 연계 콘텐츠 육성
경기	슈퍼 IP 융복합 거점- IP융복합 콘텐츠 생산기지
강원	강원형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충북	스토리 기반 지역콘텐츠 거점-기록, 설화, 이야기 등 스토리콘텐츠화
충남	콘텐츠창업 인큐베이팅 거점-콘텐츠 신기술 창제작 인력 양성
전북	전통한류 연계 콘텐츠 거점-전통역사 기반 콘텐츠 산업 육성
전남	남도 전통문화기반 콘텐츠산업-설화기반 애니웹툰 창제작 지원
경북	경북 웰니스콘텐츠 클러스터 조성-헬스케어, 스포츠 혁신센터
경남	문화+산업단지-빙산, 원자력, 제조기술연계 콘텐츠 육성
제주	관광+로컬콘텐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5).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연계사업

- 레저스포츠산업은 지역 고유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태를 가져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산업임(신성연, 2023).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추진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은 외부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스포츠자원과 지역특화 관광자원 등이 결합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함
 -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며,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3년간 사업비를 투자함
-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은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사업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사업은 지역특화 스포츠 종목 육성을 위한 스포츠이벤트(대회 등) 개발로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임
 - 두 사업 모두 지역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스포츠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잘 구축된 스포츠 인프라는 스포츠 관광사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음
- 앞서 언급된 두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로 확장시킬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은 스포츠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관광거점도시 조성

- 외래관광객들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관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함
 - 2019년 기준 외래관광객은 1,750만 여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나, 관광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양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지역관광목적지 형성과 지역특성에 기반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음. 이를 해결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권태일 & 김영훈, 2020)
- 부산광역시,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가 사업대상지이며, 임지역별 고유 관광브랜드 구축, 지역관광 추진조직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별 고유여건과 보유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관광이미지를 형성하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
 -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각인 및 지속적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그림 2-11] 지역 관광거점도시 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사업구성

자료 : 김현주 & 조아라(2020). 관광 거점도시 추진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향

-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으로 약 16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5억 4천만 원의 수입유발효과, 약 8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 내 관광산업 성장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 예측됨

[표 2-17] 관광거점도시별 기본계획 추진방향(안)

구분	세부내용	
부산광역시 (국제관광도시)	현황	· 관광목적지로 연상되는 한국 여행지 2위, 전체 방한 관광객 중 부산방문 비율 14% · 해양, 역사문화, 콘텐츠, 영화, 축제 등 풍부한 도시관광자원 보유, 관광인프라 우수 · 국제적 관광인지도, 브랜드 마케팅 미흡
	목표	· 영화와 축제 등 우수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 관광브랜드 마케팅 강화 및 국제적 관광인지도 확립을 통한 해양문화도시 조성
강원 강릉시 (지역관광거점도시)	현황	· 방한 관광객 중 강릉 방문 비율 1%(16만 명), 중국(30%), 동남아 국가(22%) 순 · 바다·호수 등 자연, 전통 및 현대 등 이미지가 복합적인 지역, 인프라·접근성 양호 · 야간관광 관련된 교통, 콘텐츠 등 개선 필요
	목표	· 경포 호수와 해변의 자연 풍경, 오죽헌·선교장 등 한국적 풍류와 풍경,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도시 육성
전북 전주시 (지역관광거점도시)	현황	· 전체 방한 관광객 중 전주 방문 비율 약 1.2%(18만 명), 외래객 증가 추세 · 전통문화와 한옥마을 위상이 확고, 권역 내 연계자원 풍부 · 방한 관광객 대상 체계적 전략, 직접적 관문 공항은 부재하나 광역교통접근성은 우수
	목표	·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주 전역으로 여행 범위 확장 등 한(韓)문화 관광도시로 전주 정체성 강화 및 브랜드 확산
전남 목포시 (지역관광거점도시)	현황	· 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관광객 높은 증가 추세(2017년 대비 2019년 540% 증가) · 목포 역사문화 자원과 음식에 대한 방한 관광객 만족도가 높고, 잠재력 있고 집적된 자원 풍부 · 야간 관광콘텐츠, 관광 안내 체계 등 관광 수용태세는 다소 미흡
	목표	· 근대화문화자원과 예술·남도 음식·자연 등 목포 자원의 관광 잠재력 강화를 통해 낭만도시로 육성하고, 먹거리 세계화 및 관광 수용태세 개선
경북 안동시 (지역관광거점도시)	현황	· 방한 관광객 중 안동 방문 비율 1%(16만 명), 내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16.6% 증가 중 · 한국 유교 문화의 고장으로 대표성이 높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다수 보유 · 교통이 다소 취약하나 준고속철도(예정), 신공항 유치 등 교통 부문 개선 기대
	목표	· 한국의 유교와 전통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심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인프라 개선

자료 : 정광민(2021). 관광거점도시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5) 해양수산부

■ 어촌관광 활성화

- 어촌은 오랫동안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서 마을이 형성·유지되면서 독특한 자연경관, 특산물, 고유풍속이 자리잡음. 이를 활용하여 어촌은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연경관 경험, 전통 어촌생활체험, 휴식 등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체험’, ‘힐링·휴식’이 여행트렌드인 현대사회에서 매력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음
 - 2018년 어촌체험휴양마을 98개소, 방문객은 약 679만 명이며(1개소당 약 6.93만 명), 2022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124개소, 방문객은 약 1,458만 명(1개소 당 11.76만 명)으로 약 115% 증가
 - 2017~2022년간 국가어항 관광객 수는 증가추세로 2017년 47,205,751명에서 2022년 53,889,500명까지 약 14.16% 정도 증가

[표 2-18] 2017~2022년 국가어항 관광객 수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47,205,751	48,640,514	48,721,754	49,634,684	52,252,20	53,889,500

자료 : 해양수산부(2023). 2023 국가어항 기초조사

-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 정주환경 개선, 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어촌의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함. 이를 통해 어촌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어촌문화 체험 기회 제공 및 어촌주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함
-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현대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임. 주요 내용으로 ‘해양교통시설 현대화’, ‘어촌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부처 연계사업’이 있음
 - 어촌이 보유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어촌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및 체험시설 조성
 - 해양레저 대중화와 국민관광 이용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사업 수행

- 2024년 어촌 뉴딜 300사업이 준공된 고창 동호항은 동호해수욕장 노을쉼터, 경관조명, 해안둘레길 등을 조성하였으며,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활용 사업도 실시할 계획임. 또한, 향후 노을대교, 고창종합테마파크, 명사십리 해양관광레저파크까지 연결할 예정
- 거제 학동항일 경우 몽돌 파도소리를 테마로 몽돌테마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선착장, 조명시설, 포토존 등 시설 설치로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기반 확립
-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체험 중심의 관광을 제공하는 마을로 관광객은 어업체험, 해양레저, 수산물 요리체험 등을 통해 어촌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접할 수 있음
- 2022년, 어촌을 방문하는 로컬여행이 일상회복과 함께 체험형 활동을 찾는 수요와 맞물려 증가추세를 보이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관광시설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음
- 각 어촌마을지역의 고유한 관광 요소(자연경관, 인적·물적 자원 등)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등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발전시키려고 함. 인천 옹진군 영암, 선재, 경남 고성군 룡대미, 남해군 유포 총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문화예술, 해양배움, 탄소중립 등 마을별 특화유형을 도출함

[표 2-19] 어촌체험휴양마을별 특화유형

구분	세부내용
영암어촌체험휴양마을	마을 내 국악인 등 예술자원이 풍부한 장점을 살려 아트어촌체험센터를 조성하여 문화예술 마을로 특화함
선재어촌체험휴양마을	시원한 바다 풍경과 아름다운 목섬을 배경으로 족욕장을 조성해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해양치유 마을로 특화함
룡대미어촌체험휴양마을	인근 보리섬 관광수요에 맞춰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내센터를 개선하고, 지역민담 등 어촌문화와 생태학습을 통한 해양배움 마을로 조성함
유포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센터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등 탄소중립 마을로 조성함

자료 : 한국어촌어항공단 보도자료(2022).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으로 이색 변신 기대!

-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상에서도 어촌의 기초인프라를 개선해 관광지 기반 마련,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콘텐츠 강화 및 시설고도화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해양치유산업 육성

- 해양치유산업 육성사업은 갯벌, 소금, 해조류 등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치료,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임. 여러 연구를 통해 해양자원이 심신안정, 신체건강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자 고령화사회 진입, 웰니스관광 선호 증가에 맞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고자 추진함
 -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선도국은 해양치유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특화함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심신안정·휴식(38.7%), 기분전환·일상탈출(38.4%)과 같은 휴식 목적으로 바닷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양관광정책 방향으로 국민 해양생태 휴양공간 조성(33.3%) 응답이 가장 많았음
- 5개 권역(서해, 동해,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제주)로 구분하여 해양치유자원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화된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지역별로 해양생태환경에 따른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며, 기존 해양관광인프라(해수욕장, 해양레저관광거점, 마리나 등)와 연계하여 해양치유서비스를 발굴하고자 함
 - 해수욕장 내 해양치유 체험구역(노르딕 워킹존, 비치박스 등) 조성, 해안경관 감상(해변, 해상, 해충)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구성. 지역별 웰니스 관광지, 온천시설, 리조트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마련, 지역 수산물·전통음식을 활용한 치유식단 개발

[표 2-20] 해양치유산업 협력지자체별 특화프로그램(안)

구분	세부내용
완도	온화한 해양기후와 풍부한 해조류 자원을 기반으로 재활치료·대사증후군 완화 프로그램에 특화, 재활병원 또는 스포츠 전지훈련장 유치 및 연계 추진
태안	매장량이 풍부한 피트, 소금자원, 모래해변을 기반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 완화 및 피부미용 특화 프로그램 개발, 수도권 등 대도시 방문객 대상 서비스 제공
울진	청정한 해양기후와 염지하수 자원을 기반으로 4계절 관광자원 및 해양레저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림·온천 치유와 융합
고성	우수한 해양경관과 기후자원을 바탕으로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및 피로회복 특화 프로그램 개발

자료 : 해양수산부(202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

- 2025년까지 완도, 태안, 울진, 고성별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정 테마를 소재로 한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할 예정임.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치유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지역관광과도 연계하여 해양치유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모델을 활성화할 계획임

[표 2-21] 지자체별 해양치유센터

구분	테마	세부내용
완도	스포츠재활형	· 4개 해양치유센터 중 가장 먼저 완공됨 · 동계훈련이나 전지훈련으로 완도를 찾는 스포츠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장비 구매와 재활프로그램도 특화시킬 예정 ·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도 운영하여 센터 외 다양한 해양치유활동 제공
태안	레저복합형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서핑·카약 등 해양레저콘텐츠 및 해수욕장·리조트 등 휴양인프라 활용 · 센터 주변 해양경관을 즐길 수 있는 치유공간 10개소 설계, 센터 주변 해송파도를 주제로 한 해변치유의 길 3개소 조성
울진	중장기 체류형	· 해양치유센터와 자연치유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야외해수풀(염지하수), 해변(노르딕워킹, 요가, 명상), 숲속 산책로(해송) 등의 프로그램 계획 · 장기체류 대상자를 위해 부속동에 건강증진센터(검사실, 재활치료시설, 메디컬테라피센터 등)와 숙박 시설(2인실, 가족실 등)도 조성할 계획
고성	기업연계형	· 인근 대규모 산단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연계형 해양치유공간을 조성 · 기업체 종사자 스트레스·피로 회복과 해양치유 아카데미를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 거점 마련, 지역 기업·대학과 연계한 워크숍 및 해양치유 아카데미 유치 등을 추진

자료 : 1. 2025년까지 4개 해양치유센터 문 연다.(2024.03.15.).[현대해상].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8>
 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 재생과 회복의 바다, 태안 해양치유센터 첫삽 뜨대!
 3. 경남 고성군, 해양자원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박차.(2020.01.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142200052>

- 산림의 치유자원(치유의 숲, 치유농장 등)과도 연계하여 육지와 해양의 치유산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며, 미술·음악과 같은 타 분야와도 융합하는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양치유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임

6) 행정안전부

■ 생활권¹⁷⁾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 코로나19로 일상생활권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지역의 고유성이 새로운 경쟁 요인으로 주목됨에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특히 저출산, 수도권 과밀화 등에 의해 지방소멸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마다 고유성을 강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생활권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 지역을 방문하고 정착할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임. 해당 사업은 지역성, 고유성, 참여성, 창조성을 4대 핵심가치로 내세워 지역 고유가치를 활용해 차별화된 지역성장기반 구축, 지역 경쟁력과 활력 증진, 지역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임¹⁸⁾
 - 지역성 : 해당 생활권의 지역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관
 - 고유성 :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해당 지역만의 고유 특색 활용
 - 참여성 :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
 - 창조성 :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의미있는 가치(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 창출
- 사업단계는 총 3단계로 1단계 지역가치 발굴, 2단계 운영계획을 포함한 마스터 플랜 선(先)수립, 3단계 핵심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실험 추진 순으로 진행됨
 - 1단계 : 차별성 있는 지역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매력·개성적인 지역 고유가치¹⁹⁾ 발굴
 - 2단계 : 운영계획 포함, 지역가치를 살리고 기추진된 도시재생 등 개별사업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생활권 활성화 계획 마련
 - 3단계 : 지역커뮤니티(행정·행정·주민·로컬크리에이터 등)기반의 지역가치 제고와 함께 핵심기반 조성 및 생활실험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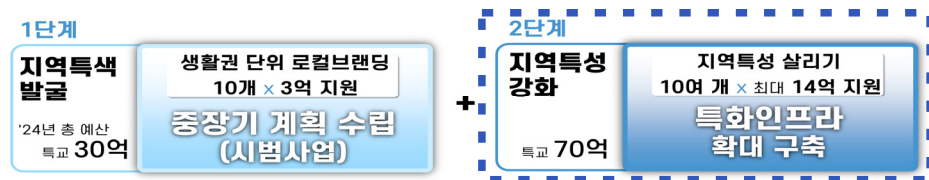
17) 여가·소비·친교 등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이자, 로컬브랜딩의 기반이 되는 고유성(역사문화, 자연환경, 지리적 위치 등)을 공유하는 단위(행정안전부, 2023)

18) 행정안전부(2023). '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

19) 고유자원(자연·환경, 역사·문화, 지리·장소, 커뮤니티, 상업 등), 라이프스타일

■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향상시켜 지역방문과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이은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2단계에 해당함



[그림 2-12]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자료 : 행정안전부(2024). 산촌마을부터 광역시 변화가까지 지역 고유 특성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 생활권 단위로 지역이 주도하여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특화시키며, 이를 통해 고유자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분산된 자원과 개별사업들을 네트워크화시킴
 - 대규모 인프라형 지역발전 대신 종합적인 관점으로 생활권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지향
- 거점시설, 로컬디자인, 특화상권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지자체 공모 시 공통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성 강화, 통합적 관점의 생활권 전반 활성화, 국비·지방비 지원종료 후에도 사업지속성에 대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표 2-22]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사업 지원유형’

구분	사업내용
거점시설	· 지역 내 유희공간(신축도 가능), 고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방문·체류와 지역경제(생산·소비 등)를 활성화하는 거점시설로 구축
로컬디자인	· 공공시설물(거리, 광장 등)등에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적용, 생활권의 가치를 높이고 유입·경제활성화 유도
특화상권	· 지역 내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골목경제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자료 : 행정안전부(2024).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계획

- 2024년 10개의 지자체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자원(자연환경, 역사·문화, 사람 등)을 활용해 지역의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 계획임

나. 전북특별자치도

1) 문화체육관광국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함.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시군의 지역별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관광명소를 고도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사업은 전북 14개 시군에 각 1개소씩 명품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지역관광 개발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약 945억 원이며 도비 400억 원과 시군비 545억 원이 매칭 형태로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임
- 추진 배경으로는 관광의 질적 전환 요구,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북 관광의 매력도 제고 필요성이 있으며, 2023년부터 시군 공모와 전문가 평가, 전북연구원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4년에는 시군별 세부계획을 수립함. 이에 따라 2025년에는 평가등급별로 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함
- 주요 사업 내용은 ‘기반사업’과 ‘진흥사업’으로 구성됨. 기반사업은 관광지의 물리적 인프라 조성으로 야간경관, 전망대, 테마공원, 친환경 모빌리티 등이 포함되며, 진흥사업은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 중심으로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특화 축제, 마케팅 등이 추진됨
 - 무주는 로봇 테마파크인 ‘태권브이랜드’를 중심으로 가족형 체험공간 조성
 - 임실은 옥정호 봉어섬에 물안개길과 힐링 콘텐츠를 개발
 - 김제는 모악산 도립공원을 야간형 관광지로 조성
- 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북 도내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소비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전략사업으로 기대되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임

■ 지역특화형 축제 육성사업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 축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중소 규모 축제이며,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형성, 관광 비수기의 관광객 유치, 지역 향토자원의 상품화 등의 목적이 있음
-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첫째, 지역특화축제는 지역 고유자원과 계절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유한 축제이며, 둘째, 겨울축제는 관광 비수기인 동절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축제임. 셋째, 유망축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생축제로 향후 대표축제로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지원됨
- 총사업비는 6억 2천만 원(도비 2억 4,800만 원, 시군비 3억 7,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사업은 시군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축제를 선정하고 등급별로 차등 지원함

[표 2-2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축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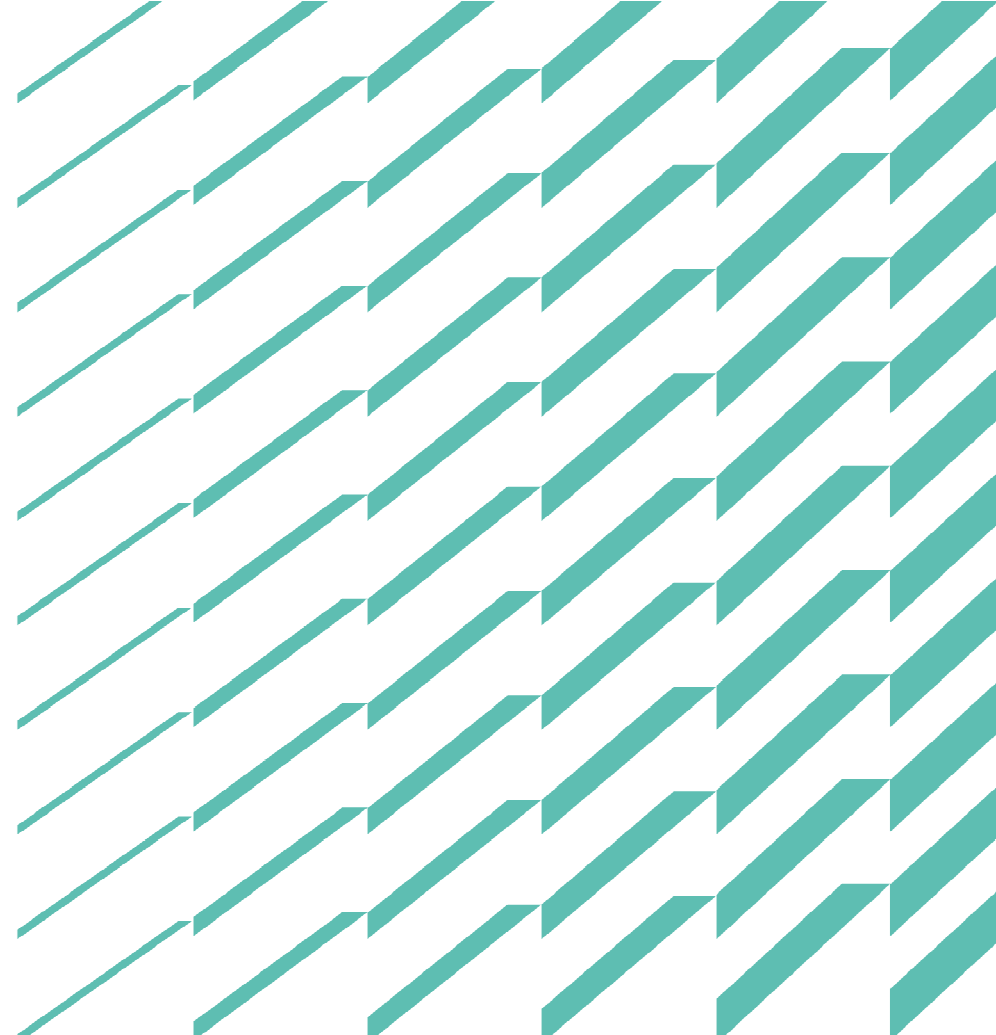
축제명	개최 시기 및 장소	주요 콘텐츠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9월 / 군산시 우체통거리	· 손편지쓰기 대회, 나만의 우표 만들기 등 감성체험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11월 / 진안시장	· 김장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지역식문화 연계
완주 삼례딸기축제	3월 / 삼례농협	· 딸기 수확, 딸기 홍보관, 문화공연
무주 쫄쫄놀이축제	겨울 / 무주읍 일대	· 눈놀이 체험, 겨울놀이 콘텐츠 운영
임실 산타축제	겨울 / 오수공원	· 트리조명, 크리스마스 체험 이벤트 등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2024). 관광산업과 내부자료

- 지역특화형 축제 육성사업은 전북 관광의 사계절화, 지역 간 균형발전, 주민 주도형 관광모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에는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우수 축제를 대표축제로 성장시키는 체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관광수요 분석 기반의 콘텐츠 고도화, 홍보 채널 다변화 등도 과제로 제시됨

■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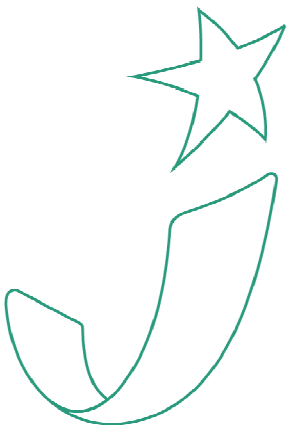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는 ‘치유와 힐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환경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도내 우수한 치유관광지를 발굴하고,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며, 관련 콘텐츠와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전북을 치유여행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정책임
-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연간 운영되는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사업’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치유관광지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구분됨. 이를 통해 전북형 치유관광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위탁 수행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며, 2025년 총사업비는 도비 90백만 원임. 주요내용은 전북형 치유관광지 10개소 선정,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편의시설 정비, 안내 시스템 보완 등), 관광컨설팅 및 콘텐츠 운영 지원 등
- 또한 ‘치유관광지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2025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됨. 총사업비는 약 473억 원(도비 200억, 시군비 273억)임
 - 도내 4개 시군(완주, 진안, 임실, 순창)이 참여함. 각 시군은 지역 고유자원(산림, 온천, 미식, 숲 등)을 활용하여 체류형 힐링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융합모델로 평가됨
 - 완주군(구이권역 치유관광 거점 개발), 진안군(마이테라피 타운 조성), 임실군(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벨트 조성), 순창군(실랜드 치유관광지 기반 조성)
- 다만, 현재의 사업은 초기단계로서 수용태세 개선 및 콘텐츠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참여 시군의 역량 차이로 인한 성과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과제로 제기됨. 이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 전문 컨설팅 인력 확대 등이 요구됨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 관광자원 현황분석

1. 관광자원 현황
2. 관광자원 실태분석
3. 전문가 심층인터뷰
4. 종합분석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 관광자원 현황 분석

1. 관광자원 현황

가. 관광자원 유형별 분류

- 관광자원 유형은 여러 학자와 유관 기관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관광자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관광자원의 범위와 한계도 불명확해 유형별 체계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관광자원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분류체계를 활용함
 - 한국관광데이터랩은 이동통신(KT, SKT)데이터,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종합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실제 여러 기관에서도 관광정책, 사업기획 시 해당 정보들을 활용



자료 : 한국관광공사(2022). 2022 기초지자체별 관광유형 고도화 및 활용방안 도출

[그림 3-1]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류체계 기준

- 한국관광데이터랩 상 분류기준에 따라 ‘자연관광’, ‘역사관광’, ‘체험관광’, ‘문화관광’, ‘레저스포츠’, ‘쇼핑’, ‘음식’, ‘숙박’, ‘기타관광’ 등 총 9가지 유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관광자원을 분류하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나. 자연관광자원

- 자연관광자원은 강, 고개/재령, 국/도립공원, 늪지(소류지), 동굴 등 자연생태계 구성 요소가 해당되며, 여러 자연 동식물의 서식장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또한, 개발 시 많은 논의를 거쳐 최대한 원형과 자연물로서 지니는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개발해야 하며, 자연관광자원이 형성하는 풍경은 해당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여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함
- 코로나19 이전·이후에도 자연 및 풍경감상은 관광활동 유형 중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해 선호도가 지속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연 및 풍경감상’ 만족도 관련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5위안에 들고 있음. 자연관광자원은 방문객들에게 휴식, 체험, 탐험의 기회를 주며, 독특한 자연경관은 해당 지역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자연자원의 현황을 파악해 경쟁력을 점진하여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인프라, 관광코스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표 3-1] 2019~2023년간 관광활동 중 ‘자연 및 풍경감상’ 순위 및 비중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연 및 풍경감상	1위 (74.4%)	1위 (78.1%)	1위 (81.3%)	1위 (81.0%)	1위 (78.3%)

자료 : 연도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표 3-2] 2020~202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자연 및 풍경감상’ 만족도 순위 및 점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자연 및 풍경감상	4위 (88.0점)	5위 (87.2점)	3위 (87.4점)	5위 (85.9점)

자료 : 연도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 공식적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중앙부처의 관리대상이 되고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갖춘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연관광자원은 다음과 같음

1) 자연공원

- 자연공원이란 자연생태계,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여 자연환경 보전, 국민여가와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일정구역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으로 구분됨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총 96개소(국립 23개소, 도립 30개소, 군립 28개소, 지질 15개소)임.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13개소(국립 4개소, 도립 4개소, 군립 2개소, 지질 3개소)가 있으며, 이는 전국 대비 13.5%임

[표 3-3] 전국·전북특별자치도 자연공원 지정 현황(2023)

(단위: 개소)

구분	개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전국	96	23	30	28	15
전북특별자치도	13	4	4	2	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국립공원

- 국립공원은 한국을 대표할 만한 우수한 자연생태계 또는 수려한 자연경관지를 보유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임. 전북특별자치도 내 총 4개소(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가 있으며, 도 내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499,978km² 임

[표 3-4]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공원 지정 현황(2023)

(단위: 개소, km²)

구분	개소	위치	공원구역		비고
			지정일	면적	
소계	4	-	-	499,978	
지리산	1	전남·북, 경남	1967.12.29	111,482	
내장산	1	전남·북	1971.11.17	46,889	
덕유산	1	전북, 경남	1975.02.01	187,673	
변산반도	1	전북	1988.06.11	153,934	해상 17,227

주석 :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면적만 표기

자료 : 전라북도(2021).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 도립공원

- 도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자연경관을 대표할 만한 장소임. 도립공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총 4개소(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가 있으며, 도 내 도립공원의 총면적은 164,144km² 임

[표 3-5]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지정 현황(2023)

(단위: 개소, km²)

구분	개소	위치	공원구역		비고
			지정일	면적	
소계	4	-	-	164,144	
모악산	1	전북 김제, 완주, 전주	1971.12.02	43,309	
대둔산	1	전북 완주, 충남 논산, 금산	1977.03.23	59,932	
마이산	1	전북 진안	1979.10.16	17,220	
선운산	1	전북 고창	1979.12.27	43,683	

주석 :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면적만 표기

자료 : 전라북도(2021).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 군립공원

- 군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지를 보유하여 시군의 자연경관을 대표할 만한 장소임. 군립공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2개소(강천산 군립공원, 장안산 군립공원)가 있으며, 도 내 총면적은 21.999km² 임

[표 3-6] 전북특별자치도 군립공원 지정 현황(2023)

(단위: 개소, km²)

구분	개소	위치	공원구역		비고
			지정일	면적	
소계	2	-	-	21.999	
강천산	1	전북 순창군 팔덕면	1981.1.7.	15.812	
장안산	1	전북 장수군 장수읍	1986.8.18.	6.187	

주석 :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면적만 표기

자료 : 전라북도(2021).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 지질공원

-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 중요성과 우수한 경관을 가진 지역으로 보전·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가치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장소임.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은 3개소(전북 서해안권, 진안·무주, 고군산군도)이며, 도 내 총면적은 1,787.93km² 임

[표 3-7]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 지정 현황(2023)

(단위: 개소, km²)

구분	개소	위치	공원구역		비고
			지정일	면적	
소계	3	-	-	1,787.93	
전북 서해안권	1	고창군, 부안군	2017.9.13.	520.3	
진안·무주	1	진안군, 무주군	2019.7.10.	1,154.62	
고군산군도	1	전북특별자치도 고군산군도와 주변 해역	2023.06.21	113.01	

주석 :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면적만 표기

자료 : 전라북도(2021).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군산시,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2023.06.24.). [우리문화신문]. https://www.koya-culture.com/news/article.html?no=141073&utm_source=chatgpt.com

2) 생태관광지

- 생태관광지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체험·교육시킬 수 있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의해 지정된 장소로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생태관광지 3개소가 있음
 -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생태관광자원 조사·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소득 창출 및 홍보방안 조기 정착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8]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현황(2023)

구분	특징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자연적으로 산지저층습지와 소택지 등의 습지원형으로 복원과정을 거침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전국 최고 저층형 산지습지인 월영습지 보유, 내장산 국립공원 위치, 화전민터, 천주교 성지 등 우수한 문화역사자원 소재
남원 지리산정령치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정령치습지는 지리산 해발 1,172m에 있으며, BC 1690년에 생성됨.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삶이 서식하고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꽃창포를 볼 수 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3) 자연휴양림·산림욕장

■ 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도모, 산림소유자의 소득향상, 국민 보건휴양·정서함양·산림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 숙박시설·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휴양시설이 설치된 야외휴양공간임²⁰⁾
- 2023년 기준 전국에는 총 197개소(국립 46개소, 공립 127개소, 사립 24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있음. 그 중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연휴양림은 총 17개소(국립 5개소, 공립 11개소, 사립 1개소)로 이는 전국 대비 8.6%임

[표 3-9]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현황(2023)

(단위 : 개소, ha)

구분	개소	명칭	위치	면적
국립 자연휴양림 (5/46)	소계(5)	-	-	3,140
	1	덕유산	전북 무주 무풍 구천동로	743
	1	화문산	전북 순창 구림 안심길	289
	1	운장산	전북 진안 정천 휴양림길	1,958
	1	변산	전북 부안 변산 변산로	31
	1	신시도	전북 군산 옥도 신시도길	119
공립 자연휴양림 (11/127)	소계(11)	-	-	1,894
	1	와룡	장수 천천 와룡	57
	1	세심	임실 삼계 죽계	101
	1	고산	완주 고산 오산	672
	1	남원홍부골	남원 동 인월	100
	1	방화동	장수 번암 사암	101
	1	무주	무주 설천 청량	31
	1	데미샘	진안 백운 신암	230
	1	성수산	임실 성수 성수	135
	1	향로산	무주 무주 오산	268
	1	용굴산	순창 동계 어치	163
	1	선암	김제 금구 월전	36
사립 자연휴양림 (1/24)	소계(1)	-	-	32
	1	남원	남원 갈치	3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0) 산림청 홈페이지

- 국민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와 함께 자연휴양림 방문객 및 숲속야영장 수요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 요구가 확산되면서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산림휴양 시설 조성 및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짐. 그 결과 2023년 해외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전년 대비 346%)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총 1,929만 명으로 작년보다 19만 명 증가함

■ 산림욕장

- 산림욕은 숲의 나무들이 발산하는 피톤치드를 직접 마시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심신의 단련과 안정을 도모하는 자연건강법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완화 및 심신안정, 운동신경 단련 등의 효과가 있음. 2023년 기준 전국에는 총 218개의 산림욕장이 있으며, 그 중 전북특별자치도의 산림욕장은 총 19개소로 전국 대비 약 8.7%를 차지함

[표 3-10]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욕장 현황(2023)

(단위 : ha)

명칭	위치	조성연도	면적
향로산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06	1996	62
대아	완주군 동상면 대아수목로 94-34	1998	30
방화동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로 778	2000	10
추령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777	2001	10
정읍사	정읍시 시기동 산9	2001	18
산천	완주군 동상면 대아수목로 94-34	2002	15
강천산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97	2005	10
석불산	부안군 하서면 석불산길 138	2005	5
덕발굴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산61-2	2006	5
백운동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3	2007	5
작골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산105-23	2008	5
외룡	장수군 천천면 비룡로 632	2008	5
쌍암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산172-1	2008	5
월곡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산9-1	2008	10
월산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145	2011	5
내동산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	2012	8.2
부귀편백숲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산89	2015	8
왕정공원	남원시 산곡동 산26	2022	3
봉어섬	임실군 운암면 용운리 261-12	2022	7.3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4) 국유림 명품숲

-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숲을 지역의 주요 산림관광자원 및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유림 명품숲으로 지정·경영하고 있음
- 국유림 명품숲들은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을 위한 경영·경관 숲, 희귀 수종 등 연구적 가치가 우수한 보전·연구형 숲, 편안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휴양·복지형 숲으로 구분하여 경영·관리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유림 명품숲은 총 5개소(산림경영형 명품숲 2개소, 산림보전형 명품숲 2개소, 산림휴양형 명품숲 1개소)임

[표 3-11] 전북특별자치도 국유림 명품숲 선정 현황(2023)

(단위 : ha)

유형	선정년도	면적	명품숲명	주소
산림경영형 명품숲	2017	44.0	무주 덕유산 독일가문비숲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 외2
	2020	73.0	고창 문수산 편백숲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산100 외1
산림보전형 명품숲	2023	3.5	무주 명천마을 소나무숲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377-1
	2023	1.6	진안 하초마을숲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396
산림휴양형 명품숲	2018	1,031.0	진안 운장산 갈거계곡숲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8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5) 습지

- 습지는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가 포함됨.²¹⁾ 습지는 자연적 혹은 인공적으로 형성되며, 자연생태계 속에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 자연재해(홍수, 가뭄 등) 피해 예방, 오염물질 제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습지는 생태관광의 대상지가 될 수 있으며,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숙박업,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음. 또한, 기후변화로 자연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일환으로서 각광받고 있음

21)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가) 내륙습지

-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이 내륙습지에 해당함. 전국의 내륙습지는 2022년 기준으로 2,704개소(하천습지 1,326개, 호수습지 635개, 산지습지 466개, 인공습지 277개)이며, 이 중 전북특별자치도에는 318개소(하천습지 130개, 호수습지 99개, 산지습지 63개, 인공습지 26개)가 있음. 이는 전국 대비 11.8%에 해당함

[표 3-12] 전국 내륙습지 현황(2022)

(단위 : km²)

구분	면적	개수(개소)				
		합계	하천습지	호수습지	산지습지	인공습지
서울특별시	0.7	8	4	1	-	3
부산광역시	63.5	23	17	3	3	0
대구광역시	10.4	22	7	10	1	4
인천광역시	8.0	24	15	1	-	8
광주광역시	9.6	51	11	25	11	4
대전광역시	1.9	14	4	1	5	4
울산광역시	7.2	30	17	5	4	4
세종특별자치시	10.7	13	8	-	5	-
경기도	151.2	196	115	13	35	33
강원특별자치도	63.6	276	151	35	81	9
충청북도	42.4	182	88	9	36	49
충청남도	190.6	251	138	46	46	21
전북특별자치도	171.4	318	130	99	63	26
전라남도	220.8	473	211	152	73	37
경상북도	116.9	370	202	65	63	40
경상남도	81.9	326	192	77	25	32
제주특별자치도	2.8	127	16	93	15	3
합계	1,153.6	2,704	1,326	635	466	277

자료 : 1. 에코뱅크 홈페이지
2. 환경부&해양수산부(2022).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나) 연안습지

- 연안습지는 만조시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일컫음. 한국일 경우 「습지보전법」에 의한 연안습지 대부분이 갯벌이므로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
- 전국의 연안습지는 2023년 기준으로 2,443.3km²이며, 이중 전북특별자치도의 연안습지 면적은 108.4km²로 전국 대비 4.4%의 비율을 차지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연안습지에는 군산 비응도 갯벌, 고창갯벌, 부안 곰소만 갯벌이 있음. 이 중 고창갯벌은 면적이 가장 넓고 세계자연유산에 지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표 3-13] 전국 연안습지 현황(2023)

(단위 : km²)

구분	면적	구분	면적
부산광역시	19.0	전북특별자치도	108.4
인천광역시	688.6	전라남도	1,070.8
울산광역시	0.1	경상남도	69.8
경기도	147.4	제주특별자치도	3.3
충청남도	335.7	합계	2,443.3

자료 : 지표누리 홈페이지

[표 3-14] 전북특별자치도 연안습지 현황(2023)

(단위 : km²)

구분	연안습지명	면적	전국 대비
군산시	비응도 갯벌	23.8	1.0
고창군	고창갯벌	63.2	2.6
부안군	비응도 갯벌	21.5	0.9

자료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다) 습지보호지역

-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습지보전법이 있음. 해당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습지를 조사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
-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습지보호지역은 총 55개소(환경부 32개소, 해양수산부 16개소, 시·도 지정 7개소)임. 그 중 총 25개소 습지가 란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의 습지보호지역은 총 5개소로 전국대비 9.1%에 해당하며, 란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는 3개소임

[표 3-15] 전국 습지보호지역 현황(2024)

구분	개소	구분	개소
서울특별시	0	강원특별자치도	8
부산광역시	1	충청북도	1
대구광역시	1	충청남도	2
인천광역시	2	전북특별자치도	5
광주광역시	1	전라남도	11
대전광역시	2	경상북도	2
울산광역시	1	경상남도	8
세종특별자치시	0	제주특별자치도	6
경기도	4	합계	55

자료 : 환경부(2024).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란사르습지 등록 현황('24년 2월)

[표 3-16] 전국 란사르 협약 등록 습지보호지역 현황(2024)

구분	개소	구분	개소
인천광역시	1	전라남도	6
울산광역시	1	경상북도	1
경기도	2	경상남도	2
강원특별자치도	2	제주특별자치도	5
충청남도	2	합계	25
전북특별자치도	3		

자료 : 환경부(2024).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란사르습지 등록 현황('24년 2월)

[표 3-17] 전북특별자치도 습지보호지역 현황(2024)

(단위 : km²)

지정주체	습지명	위치	면적	람사르 등록여부
환경부	고창 운곡습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93	등록
환경부	고창 인천강하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0.722	-
환경부	정읍 월영습지	전북 정읍시 쌍암동 일원	0.375	-
해양수산부	고창갯벌	전북 고창군 부안면(Ⅰ지구), 심원면(Ⅱ지구) 일원	64.66	등록
해양수산부	부안출포만갯벌	전북 부안군 출포면·보안면 일원	4.9	등록

자료 : 환경부(2024).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 현황('24년 2월)

6) 강·하천

- 하천은 작은 개울(실개천)~큰 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산지에서 흘러나온 하천들이 모여 강(본류)가 형성되고 바다로 흘러감
 - 강·하천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형성되며, 현대사회에서는 강·하천을 레저·액티비티 및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의 강(본류)은 크게 6권역(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제주도)으로 나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권역에 속해 있음. 2022년 기준으로 전국 하천은 총 3,951개소(국가 105개, 지방 3,846개)임. 그 중 전북특별자치도의 하천은 471개소(국가 11개, 지방 460개)로 전국 대비 11.9%에 해당함

[표 3-18] 전국 하천 현황(2022)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가	105	6	5	2	2	4	4	1	3	20	8	7	8	11	7	6	11	0
지방	3,846	38	45	27	30	32	26	100	41	498	246	166	491	460	556	359	671	60
합계	3,951	44	50	29	32	36	30	101	44	518	254	173	499	471	563	365	682	60

자료 : 환경부(2023). 한국하천 일람(2022.12.31 기준)

[표 3-19]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하천 현황(2022)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국가	11	1	-	1	3	1	1	2	1	-	-	1	-	-	-
지방	461	11	4	27	73	37	8	44	35	30	29	29	21	84	29
합계	472 ²²⁾	12	4	28	76	38	9	46	36	30	29	30	21	84	29

자료 : 환경부(2023). 한국하천 일람(2022.12.31 기준)

[표 3-20]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소속 권역(2022)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낙동강					√									
금강	√	√	√	√		√	√	√	√	√			√	√
섬진강			√	√	√			√		√	√	√		
영산강													√	√

자료 : 환경부(2023). 한국하천 일람(2022.12.31 기준)

7) 국가생태문화탐방로

-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 자원 향유가 가능하도록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게 조성한 도보중심의 길로 탐방자원, 길(생태탐방로, 접근로, 연결로), 탐방시설, 탐방지역, 거점도시로 구성됨²³⁾
- 생태탐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공원 등 우수한 자연자원, 문화·역사자원이 있는 일부 지역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현재까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²⁴⁾ 2023년 기준으로 새롭게 지정된 고창군 ‘탐사르 운곡습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까지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총 8개의 국가생태문화탐방로가 존재함

22) 오수천일 경우 임실, 장수에 존재하므로 중복

23) 우리나라 생태관광이야기 홈페이지

24)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표 3-21]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현황(2023)

(단위 : km)

구분	탐방로명	준공	조성구간
군산시	금강생태문화탐방로	2011	33.9
완주군	만경강상류 강변길(고산자연휴양림 생태문화탐방로, 만경강 생태문화탐방로)	2011	26.6
고창군	고창선사문화탐방로	2013	35.3
	운곡습지 및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2019	10
	노동저수지 둘레길	2020	2.8
	람사르 운곡습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	-
부안군	해안생태문화탐방로	2013	66
	위도 고슴도치길	2018	35

자료 : 1. 환경부(2023),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현황('08 ~ '23, 72개소)

2.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7곳 신규 지정(2023.10.18.), [의투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675>

8) 걷기 여행길

- 걷기여행길은 지역 내 존재하고 있던 자원들을 연결하는 관광자원으로 대형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장점을 가진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임
 - 점형으로 분포된 지역의 역사문화, 자연생태자원을 선형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조성함
- 생태·녹색관광 수요증가에 따라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에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을 생태·녹색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하여 도보여행 수요 확산 및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가) 코리아둘레길

- 코리아둘레길은 한국의 동서 남해안과 DMZ 접경지역 등 한반도 외곽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하는 약 4,500km의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임. 2021년경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걷기여행길 육성지원사업으로 ‘코리아둘레길’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코리아둘레길은 해파랑길(동해안), 남파랑길(남해안), 서해랑길(서해안), DMZ 평화의 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서해랑길(서해안)영역에 해당됨. 현재,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에 조성되어 있음

[표 3-22] 코리아둘레길 조성 현황(2023)

구분	세부내용
해파랑길(동해안)	50개 코스, 750km 2016년 개통
서해랑길(서해안)	109개 코스, 1,800km 2022년 개통
남파랑길(남해안)	90개 코스, 1,470km 2020년 개통
DMZ 평화의 길	주노선 34개 코스, 약 500km + 테마노선 10개 코스 주노선 2024년 개통 예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표 3-23] 서해랑길 전북특별자치도 조성 현황

시군구	코스	시작점	종점
군산시	53	김제시 청하면 동자산리 새창이다리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외당마을버스정류장
	54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외당마을버스정류장	군산시 장미동 진포해양테마공원
	55	군산시 장미동 진포해양테마공원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장항도성장 입구
김제시	51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동진강 석천휴게소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거전버스정류장
	52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심포항	김제시 청하면 동자산리 새창이다리
고창군	41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해변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심원면사무소
	42	고창군 아산면 석천리 석천마을	고창군 상하면 상천리 상천마을
	43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버스정류장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 사포버스정류장
부안군	44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도청마을
	45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도청마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마포마을
	46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마포마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감교마을
	47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감교마을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우동마을
	48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우동마을	부안군 보안면 하입석리 하입석마을
	49	부안군 보안면 하입석리 하입석마을	부안군 주산면 석불리 석불마을
	50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부안군청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동진강석천휴게소

자료 : 두루누리 홈페이지

나) 전북특별자치도 천리길

- 전북특별자치도 천리길은 시군별로 산재한 길들 가운데 아름다운 경관, 역사적 가치, 특정한 이야기가 있는 길을 엄선하여 선정한 명품 걷기길로 강변길, 산들길, 해안길, 호수길로 구성되어 있음. 방문객들은 2~6시간 정도를 걸으며 전북 내 우수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천리길은 총 44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시군별로 3~4개 정도가 존재함
- 강변길은 7개소로 전북의 주요 강(금강, 만경강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경관을 둘러보는 길임
- 산들길은 25개소로 역사문화자원이 중점이며, 전북의 역사를 배우고 주변에 형성된 자연환경도 감상하는 길임
- 해안길은 6개소로 해안일대에 형성된 해안경관을 둘러보는 길임
- 호수길은 6개소로 시군별 우수한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경관을 둘러보는 길임

[표 3-2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천리길 지정 현황(2024)

(단위 : 개소)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강변길	-	-	2	-	-	-	-	1	2	-	1	1	-	-	7
산들길	3	1	1	2	3	2	3	1	1	3	-	2	3	-	25
해안길	-	1	-	-	-	1	-	-	-	-	-	-	-	4	6
호수길	-	2		1	-	-	-	1	-	-	2	-	-	-	6
합계	3	4	3	3	3	3	3	3	3	3	3	3	3	4	44

자료 : 전북생태관광육성센터(2024). 전북 천리길 가이드북

다. 역사관광자원

- 역사관광자원은 고궁, 고택/생가/민속마을, 기념비, 문화유적지 등이 해당됨. 해당 장소들은 실제 역사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가 오랫동안 형성해 온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임
- 역사관광자원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보호대상이며, 최대한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역사관광자원은 국가와 지역의 역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내국인에게는 역사의식 고취를 통한 민족의식 함양이 가능한 자원이며, 외국인에게는 자신이 방문한 나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자원임. 그러므로 역사관광자원은 기본적으로 교육적 성격을 가짐
- 관광객의 역사유적지 방문은 전체 여행지 활동에서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만족도는 전국에서 매년 5위 안에 들고 2023년에는 1위를 기록함

[표 3-25] 2019~2023년간 '역사유적지 방문' 순위 및 비중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역사유적지 방문	5위 (9.8%)	5위 (8.5%)	5위 (9.4%)	5위 (9.6%)	5위 (9.7%)

자료 : 연도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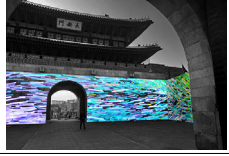
[표 3-26] 2020~202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역사유적지 방문' 만족도 순위 및 점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역사유적지 방문	3위 (83.0점)	5위 (82.4점)	5위 (82.2점)	1위 (84.5점)

자료 : 연도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 역사관광자원은 지역의 역사·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어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또한, 현대사회에서 역사관광자원에 디지털기술을 접목시킨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 개최를 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등 역사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표 3-27] 역사문화자원 활용사례

구분	세부내용	
고창 고인돌 유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 고인돌유적과 박물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적용해 화려한 미디어아트를 구현함 · 이외 인터랙션 콘텐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밤산책, 드론라이트 쇼 등을 선보임	
서울 봉은사 연꽃축제	· 봉은사는 신라 말기에 창건된 조계종 사찰로 연꽃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를 개최함	
수원화성문화제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활용하여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재현하고, 정조대왕이 시행한 정책, 부모에 대한 효심, 애민정신 등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를 연출함	
울산옹기축제	· 울산 전통 옹기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옹기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함 · 옹기제작 체험 및 전시, 전통공연 및 현대음악콘서트, 드론아트쇼 및 불꽃놀이, 플리마켓 개최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됨	
목포문화재야행	· 목포의 근대문화유산들을 연계하여 개최하며, '8夜'(야경, 아로, 야사, 야설, 야시, 야화, 야주, 야식)를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됨	

자료 : 지역별 홈페이지 참고

- 관광트렌드에 맞춰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디지털 기술 적용, 축제의 장으로 활용, 관광객 선호에 부합하는 기반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대중들이 역사관광자원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해 방문을 유도하여 해당 자원의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함
- 그러므로 단순 보존·보호하는 것을 넘어 현대사회의 트렌드에 맞게 역사관광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공식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중앙부처의 관리·보호대상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사관광자원은 다음과 같음

1) 문화재

-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는 327점이 있으며, 이는 전국 대비 6.2%에 해당함. 유형별로 국가등록문화유산 92점을 포함하여 국보 10점, 보물 110점, 사적 45점, 명승 12점, 천연기념물 35점, 국가무형유산 9점, 국가민속문화유산 14점이 지정되어 있음

[표 3-28]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2024)

(단위: 점)

구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유산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전국	5,301	4,331	362	2,419	563	137	418	118	314	970
소계	327	235	10	110	45	12	35	9	14	92
전북도	4	4	-	-	-	-	-	4	-	-
전주시	29	23	2	15	4	-	1	-	1	6
군산시	32	8	-	3	1	1	3	-	-	24
익산시	44	23	4	8	7	-	1	2	1	21
정읍시	28	17	-	8	5	-	3	-	1	11
남원시	38	38	1	24	6	1	2	1	3	-
김제시	30	22	1	15	3	1	2	-	-	8
완주군	18	14	1	10	2	1	-	-	-	4
진안군	13	10	-	4	1	1	4	-	-	3
무주군	9	8	-	2	1	2	3	-	-	1
장수군	12	5	-	1	2	-	2	-	-	7
임실군	8	4	-	1	-	-	2	1	-	4
순창군	4	4	-	1	-	-	-	-	3	0
고창군	31	29	-	11	7	2	7	-	2	2
부안군	27	26	1	7	6	3	5	1	3	1

자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는 총 684점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대비 6.9%에 해당함. 유형별로 문화유산자료 160점을 포함하여 유형문화유산 277점, 무형유산 77점, 시도기념물 122점, 민속문화유산 36점 등이 지정되어 있음

[표 3-29] 전북특별자치도 시도지정 문화재 현황(2024)

(단위: 점)

구분	총계	도지정문화재					문화유산자료	시도등록문화재
		계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전국	9,967	6,951	4,197	635	1,642	477	2,916	100
소계	684	512	277	77	122	36	160	12
전북도	10	10	-	10	-	-	-	-
전주시	82	63	21	26	12	4	14	5
군산시	24	18	13	2	2	1	6	-
익산시	59	42	23	7	11	1	14	3
정읍시	69	48	26	2	18	2	20	1
남원시	91	62	42	4	11	5	29	-
김제시	49	39	23	6	6	4	8	2
완주군	41	38	27	2	8	1	3	-
진안군	27	18	9	3	5	1	9	-
무주군	25	21	12	3	6	-	4	-
장수군	29	16	5	1	7	3	13	-
임실군	38	25	15	1	6	3	12	1
순창군	32	22	12	1	7	2	10	-
고창군	68	52	35	3	11	3	16	-
부안군	40	38	14	6	12	6	2	-

자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2) 유네스코 등재유산

- 유네스코 등재유산은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됨. 2024년 기준 한국은 총 57건(세계유산 16건, 세계기록유산 18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3건)이 등재되어 있음. 그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총 5건의 세계유산(고창 고인돌 유적,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정읍 무성서원, 고창 갯벌,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소재하고 있음

[표 3-30]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황(2024)

구분	지정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여부	소재지
석굴암·불국사	1995	X	
해인사 장경판전	1995	X	
종묘	1995	X	
창덕궁	1997	X	
화성	1997	X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	X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0	O	고창군 죽림리와 도산리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X	
조선왕릉	2009	X	
한국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	X	
남한산성	2014	X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O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2018	X	
한국의 서원	2019	O	정읍시 무성서원
한국의 갯벌	2021	O	고창갯벌
가야고분군	2023	O	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자료 : 국가유산포털 홈페이지

- 2024년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전통장류문화의 1번지로써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표 3-31] 한국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현황(2024)

구분	지정년도	구분	지정년도
종묘제례 및 제례악	2001/2008	택견	2011
판소리	2003/2008	한산모시짜기	2011
강릉 단오제	2005/2008	아리랑	2012
강강술래	2009	김장문화	2013
남사당놀이	2009	농악	2014
영산재	2009	줄다리기	2015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009	제주해녀문화	2016
처용무	2009	씨름	2018
가곡	2010	연등회	2020
대목장	2010	한국의 탈춤	2022
매사냥	2010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	2024
줄타기	2011		

자료 : 국가유산포털 홈페이지

3) 전통사찰

-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통사찰은 119개소이며, 경북(179개소)에 이은 두 번째 규모로 전국 사찰의 약 1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32]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사찰 현황(2024)

구분	계	등록사찰
전국	983	서울(60), 부산(36), 대구(21), 인천(9), 광주(6), 대전(6), 울산(11), 세종(8), 경기(105), 강원(48), 충북(85), 충남(75), 전북(119), 전남(98), 경북(179), 경남(105), 제주(12)
전주시	11	남고사, 서고사, 학소암, 불정사, 선린사, 승암사, 일출암, 동고사, 약수암, 실상사, 정혜사(보문종)
군산시	7	은적사, 상주사, 보천사, 불주사, 운심사, 성흥사, 지장암
익산시	9	문수사, 사자암, 송림사, 백운사, 자명사, 남원사, 심곡사, 태봉사, 석불사(화엄종)
정읍시	10	내장사, 정토사, 보림사, 유선사, 법인사, 정혜사, 일광사, 석탄사, 남산사, 다천사
남원시	15	선원사, 선국사, 대복사, 실상사, 귀정사, 덕음암, 극락암, 백련사(대각회), 승려사(선학원), 연화사, 용담사, 창덕암, 관음사, 미륵암, 심경암(관음종)
김제시	14	금산사, 청룡사, 문수사, 흥복사, 망해사, 학선암, 귀신사, 원각사, 용봉사, 조양사, 쌍용사, 청운사, 해봉사, 성모암(진묵대사유적진흥회)
완주군	10	안심사, 대원사, 위봉사, 송광사, 화암사, 정수사, 학림사, 원등사, 봉서사, 단암사
진안군	7	옥천암, 천황사, 고림사, 금당사, 은수사, 탑사, 보흥사
무주군	5	원통사, 북고사, 백련사, 안국사, 향산사(선학원)
장수군	6	영월암, 성관사, 팔성사, 신광사, 원흥사, 미륵암
임실군	4	신흥사, 죽림암, 해월암, 상이암
순창군	6	강천사, 만일사, 실상암, 대모암, 구암사, 일광사
고창군	8	상원사, 선운사, 문수사, 도솔암, 석상암, 참당암, 소요사, 용화사
부안군	7	개암사, 성황사, 월명암, 내소사, 내원암, 실상사, 용화사(화엄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전통사찰 현황(2024.9.9 기준)

라. 체험관광자원

- 체험관광자원은 특정 소재를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장소임. 주로 공방/공예, 관광농원, 온천, 체험농가 등이 체험관광자원에 해당됨
-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서 느끼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관광자원으로 관광객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가짐
- 여가시간이 늘어 여가 향유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특히 도시민들은 청정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6차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함
- 현재 농어촌지역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소득을 얻고 있음
- 농어촌지역만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지역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문화는 도시와 다른 매력이 있어 코로나19 속에서도 수요가 이어짐. 이로 인해 지자체 농촌유학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음
- 이렇듯 농어촌지역만이 가진 자원은 도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매력있는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어촌 지역자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대사회 트렌드에 맞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체험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 농촌체험휴양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상 농촌지역마을의 자연환경·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농촌체험·휴양 프로그램, 숙박,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됨
- 농촌체험마을의 목적은 도시민의 농촌관광수요를 농촌에 유치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농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임. 도시민들은 농촌체험마을에서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배우고 마을 공동체와 교류 및 협동활동을 경험할 수 있음
- 2023년 기준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195개소이며, 그 중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50개소로 전국의 약 12.6%를 차지하고 있음

[표 3-33]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2023)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95	-	-	5	7	1	6	5	3	112	220	79	134	150	175	131	141	2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 관광농원

- 관광농원은 농촌의 자연·역사문화자원 및 생산시설 등을 농촌체험·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국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2023년 기준 전국 관광농원은 총 974개소이며, 그 중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농원은 총 35개소로 전국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음

[표 3-34] 전국 관광농원 지정 현황(2023)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74	-	1	10	22	1	-	3	1	212	154	59	111	35	96	101	115	5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어촌체험휴양마을

-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증가하는 국민 여가수요에 대응하고 도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어촌과 바다에서 체험과 휴양을 함께 즐기도록 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됨. 또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특징과 차별점을 발굴해 지역체험, 숙박, 음식 등과 연계한 어촌테마파크 특화 조성과 함께 어촌마을 고령층들의 노후생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어촌마을 자치연금도 시행하고 있음.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형 어촌관광프로그램 개발, 안전·위생 등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례로 2023년에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73개소,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 4개소, 어촌마을 위케이션 11개소,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사고 보험료사업을 시행함
- 2023년 기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은 130개소이며, 그 중 전북특별자치도에는 8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음

[표 3-35]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2023)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0	-	3	-	10	-	-	2	-	9	11	-	14	8	32	6	28	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표 3-36] 전북특별자치도 어촌체험휴양마을 현황(2023)

시군구	마을명	주요 체험프로그램	2023년 체험객 수
군산시	선유도마을	갯벌체험(조개)	1,611명
군산시	신시도마을	갯벌체험(바지락), 개막이체험	167,479명
군산시	방축도마을	좌대낚시	1,539명
고창군	하전마을	갯벌체험(조개)	9,564명
고창군	만돌마을	갯벌체험, 염전체험, 어망체험	13,769명
고창군	장호마을	갯벌체험(조개), 후릿그물체험, 갯벌썰매	3,392명
고창군	동호마을	갯벌체험(조개, 동죽) 개막이, 동호항돌레길체험	체험객 없음
고창군	광승마을	갯벌체험(조개, 동죽), 별보기체험	체험객 없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4) 산촌생태마을

- 산촌생태마을은 산림 훼손 방지와 지속가능성 확보,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 도시민 대상 자연체험 교육 등을 통해 산촌-도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됨
- 2022년 기준 전국 산촌생태마을은 총 312개소이며, 그 중 전북특별자치도에는 49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약 15.7%를 차지하고 있음

[표 3-37] 전국 산촌생태마을 지정 현황(2022)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2	-	-	-	-	-	-	-	-	24	76	31	33	49	36	38	25	-

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

5) 온천

- 온천은 섭씨 25℃ 이상의 지하 온수로, 국민의 심신 휴양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온천법」에 따라 지자체는 온천 발견신고·수리,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 일일 적정 양수량에 의한 온천수 이용허가 등 온천 개발·이용 및 관리 업무 수행
- 2023년 기준 전국 온천은 총 44개소이며, 그 중 전북특별자치도에는 14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31.8%를 차지하고 있음

[표 3-38] 전국 온천 현황(2023)

(단위 : 개소)

계 (이용 업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575)	10 (5)	48 (62)	16 (13)	10 (2)	3 (2)	4 (59)	15 (18)	3 (3)	48 (41)	54 (43)	22 (46)	26 (79)	14 (5)	15 (26)	97 (98)	43 (69)	13 (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마. 문화관광자원

- ‘문화’는 일반적으로 시대 혹은 집단의 생활방식을 의미하며, 지적·정신적·심미적 계발의 일반적인 과정을 일컫거나 개인의 지적인 활동으로 만들어낸 지적인 작품과 실천 행위 등을 의미하는 유무형의 자원임. 문화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거나 새롭게 창작되므로 새로운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문화관광자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문화관광자원은 지역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각 지역들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브랜드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특정 시대 혹은 집단의 생활방식에 대한 출처를 전시하는 장소, 현대인들이 즐기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기 힘든 특정 동식물을 활용한 장소 등 특정 테마를 주제로 하는 장소들이 주로 문화관광자원에 해당됨
- 문화관광자원은 외부 방문자 및 지역민들에게 수준이 높은 여가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외적으로 로컬 여행이 주목받게 되면서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 지역문화를 활용한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
- 이에 대응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문화관광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테마를 도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의 관리대상이 되는 문화관광자원은 다음과 같음

1)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은 전시/관람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를 보존·전승·교육하는 공간이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2023년 기준 전국 박물관·미술관은 총 2,216개소(공립 899개소, 국립 94개소, 대학 194개소, 사립 1,029개소)임.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115개(공립 61개소, 국립 8개소, 대학 7개소, 사립 39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6.2%를 차지함

[표 3-39] 전국 박물관·미술관 현황(2023)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공립	국립	대학	사립
전국	2,216	899	94	194	1,029
서울특별시	340	58	28	45	209
부산광역시	80	26	3	20	31
대구광역시	59	23	4	17	15
인천광역시	67	41	1	2	23
대전광역시	44	13	1	15	15
광주광역시	46	13	3	9	21
울산광역시	25	23	-	-	2
세종특별자치시	13	4	2	-	7
경기도	345	129	8	18	190
강원특별자치도	208	93	3	9	103
충청남도	138	61	10	10	57
충청북도	108	57	8	11	32
전북특별자치도	115	61	8	7	39
전라남도	176	90	4	4	78
경상북도	148	80	4	19	45
경상남도	145	90	5	6	44
제주특별자치도	159	37	2	2	118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표 3-40]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미술관 현황(2023)

(단위 : 개소)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합계	36	6	14	7	7	5	10	4	4	2	2	7	4	7	115
공립	9	3	8	7	6	4	4	4	3	-	1	7	4	1	61
국립	3	-	2	-	-	-	-	-	1	-	1	-	-	1	8
대학	5	1	1	-	-	-	-	-	-	-	-	-	-	-	7
사립	19	2	3	-	1	1	6	-	-	2	-	-	-	5	39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2) 도서관

- 도서관은 정보 수집·정리·보존 장소이자 지역과 연계해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향유 공간임. 최근에는 음악, 미술 등과 결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며, 독특한 이색 도서관은 지역의 랜드마크,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24년 기준 전국 도서관은 총 1,271개소이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66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음

[표 3-41] 전국 도서관 현황(2024)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71	207	52	46	60	30	26	21	16	319	65	55	62	66	74	71	79	2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3-42]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도서관 현황(2024)

(단위 : 개소)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66	14	8	9	5	4	5	6	1	2	2	3	2	3	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3-43] 전국 지역별 도서관 활용 사례

구분	세부내용	
전주시	· 전주시는 코스마다 차별화된 특색과 전통을 지닌 도서관들을 둘러 보는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책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구축함	
의정부시	·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미술관과 도서관이 함께 있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예술문화자원을 도서관과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서관이라는 의미를 가짐.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 중 40%가 예술 전문도서로 미술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음	
인제군	· 인제군은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기존의 도서관을 건축하고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디자인함. 어린이도서관, 미디어아트실, 열린극장 등 여러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함	

자료 : 두가 켓 소리를 내었다·공공도서관은 변신 중. (2024.02.26.).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khnm.html?art_id=202402190530051&code=115&mode=view&utm_source=chatgpt.com

3) 관광단지

-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 관광 및 휴양을 목적으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의미²⁵⁾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1개소가 있음

[표 3-4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단지

관광단지명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31번지 일원	2017~2025년 (9년)	190,272백만 원 (민자 190,272)	· 관광단지 조성(A=795천㎡) - 관광호텔(67실), 인피니티풀, 클럽 팜장/한옥호텔(10실), 골프장(9홀) - 남원전통문화테마시설(도예, 공방, 식도, 체험), 아트뮤지엄, 테마식물원, 트라타에코로드, 단지내도로(550m)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내부자료

4) 관광특구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관광시설 밀집 지역에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배제하는 등 관광활동을 촉진하고자 1993년에 도입된 제도임. 2023년 기준 13개 시도에서 34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개소가 존재함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으로 정의됨

[표 3-45] 전국 관광특구 지정 현황(2023)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	7	2	-	1	-	1	-	-	5	2	3	2	2	2	4	2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표 3-4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특구 지정 현황(2023)

(단위 : km²)

시·도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	최초지정일
전북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7.61	1997.1.18.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3.45	1997.1.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5) 토지이음 홈페이지

5) 문학관

- 문학관은 특정 작가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작가를 중심으로 문학관을 설립·운영하여 지역 역사성과 가치를 널리 알림
- 2024년 기준 전국 문학관은 총 44개소이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7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15.9%를 차지함

[표 3-47] 전국 문학관 현황(2024)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	3	-	1	0	1	-	-	2	1	-	11	7	9	2	6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표 3-48]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문학관 현황(2024)

구분	국립/공립/사립	설립주체	문학관명
전주시	공립	비영리법인	전북문학관
전주시	공립	지방자치단체	최명희문학관
익산시	공립	지방자치단체	가람문학관
남원시	공립	지방자치단체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김제시	공립	지방자치단체	아리랑문학관
무주군	공립	지방자치단체	김한태문학관
부안군	공립	지방자치단체	석정문학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6) 지역특화거리

- 지역특화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조성·관리되는 장소임. 특정 주제로 동일 혹은 유사한 기능의 업종들이 특정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2024년 기준, 전국에 조성된 지역특화거리는 총 257개소이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9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3.5%를 차지함

[표 3-49] 전국 지역특화거리 지정 현황(2024)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7	24	12	29	25	10	14	15	0	46	2	6	12	9	21	11	12	9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표 3-5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거리 지정 현황(2024)

구분	거리명	거리 소개
전주시	건고싶은거리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상가 밀집 거리
	공구의거리	공구 관련 상가들이 밀집한 거리
	동문문화거리	한옥마을과 인접해 각종 문화시설 밀집
	영화의거리	구도심 영화관이 밀집한 거리
	웨딩거리	웨딩관련 업종의 상가가 밀집
	차이나거리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기념으로 조성된 거리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전통과 특색있는 군산의 짬뽕 관광자원을 활용 특화거리 조성
익산시	익산문화예술의거리	익산시 구도심 일원 KTX역세권과 연계한 주거문화상업 아트지구
정읍시	쌍화차거리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던 시절, 추운 겨울날 정읍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몸을 녹이라고 가족들이 쌍화차를 사식으로 넣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래되었다고 전해짐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7) 유원시설업

- 유원시설업은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유기사설의 수와 종류에 따라 종합·일반·기타 세 분야로 구분됨.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유원시설업은 총 105개소(일반 26개소, 기타 79개소)임

[표 3-51] 전북특별자치도 유원시설업 현황(2024)

구분	사설명	구분	사설명
일반	전주드림랜드	기타	Picoello
	전주한옥레일바이크(주)		월드킹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기와
	노리존		점핑봄
	전주디스코팡팡		타요키즈카페 서전주점
	금강랜드		주니어1234
	군산 아외수영장		키즈다쿵2
	송원해미리랜드		J키즈클럽
	놀이터디스코팡팡		(주)점핑고 전주점
	철보 물테마유원지		점핑파크
	남원랜드		해피 키즈팡팡
	오투아일랜드		키즈다쿵2 (전주혁신점)
	모악랜드		유한회사 메가시네마
	법용유원지		큐리 키즈카페 전주혁신점
	(주)무주덕유산리조트		방구방구 전주송천점
	무주놀이랜드		너티차일드 전주점
	나뭇리조트 Twin wave		차타타 군산점
	장수누리파크		챔피언 1250
	(재)순창발호테마파크		게임메가2씨티원
	고인돌박물관		게임메가씨티원
	석정휴스파		챌린지바운스놀이터
	오션플레이(소노벨변산)		금강랜드 키즈카페
	변산리조트		플레이타임
	부안곤충탐사과학관		마미아썬(조촌점)
	부안청자박물관		마미아썬(수송점)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		프레리 키즈카페 군산점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표 3-52] 전북특별자치도 유원시설업 현황(2024)_(표계속)

구분	시설명	구분	시설명
기타	우리방방	기타	(유)스파라쿠아
	키즈토리카페		그로잉 실내방방
	정음 VR체험관		퍼니팡팡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키즈아일랜드
	브리앙뜨키즈카페		헬로방방
	키즈카페 오드리베베		키즈니랜드
	춘향 VR 체험관		상상노리 전주효자점
	리틀엔젤		B.T 아일랜드
	뛰노리방방		한옥랜드
	꼬꼬마키즈랜드		사이버존 테마파크
	점폴린파크		월드킹
	아쿠아틱파크 아미존		청암산오토캠핑장
	미니특공대 키즈카페		브릭스
	키즈다쿵2 삼봉점		버드글램핑
	모넬로 전주점		야사노 익산직영점
	데미샘자연휴양림		월드킹
	유로번지점프		(주)플레이스원
	야구연습장		다이노키즈월드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주식회사 케이크머스
	더하루야영장		야사노정읍시기점
	해밀캠핑장		i아이 놀이터
	꿈꾸는 나무별		점프노리키즈카페 고창점
	향로산자연휴양림		플레이방&블록
	장수방화동캠핑장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수영장
	강마루 펜션		신림초등학교
	장수누리파크 어린이생활문화센터		대산초등학교
			돌개영농조합법인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8) 축제

가) 대표축제 현황

■ 문화관광축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지역축제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축제실태를 조사·평가하여 그중 우수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지원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2019~2022년간 축제가 취소되었으나, 앤데믹시대 도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 직접 재정지원, 재정지원이 종료된 명예문화관광축제와 예비축제 관련 과제 지원, 빅데이터 분석·홍보 등 다양한 간접적 지원도 강화하여 축제 개최 정상화와 축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²⁶⁾
-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문화관광축제(현행) 3개, 예비문화관광축제 1개, 명예문화관광축제 2개가 있음

[표 3-53] 2024~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 목록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 ²⁷⁾	명예문화관광축제 ²⁸⁾
순창장류축제 임실N치즈축제 진안홍삼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6)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7) 광역지자체별 성장 잠재력을 가진 축제들을 예비 축제로 지정하여 2년간 지원 및 평가, '26~'27 문화관광축제 지정심사 시 문화관광축제 진입 여부 결정

28) 누적 재정지원 기간이 10년을 경과하여 지원 일몰된 축제들을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홍보마케팅 등 후속 지원

■ 시군 대표축제

-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 목적 브랜드 가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시군 대표축제 관련 선택과 집중지원 함. 2024년 기준, 시군 대표축제는 총 14개(대표축제 2개, 최우수축제 6개, 우수축제 4개, 유망축제 2개)임

[표 3-5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문학관 현황(2024)

(단위 : 백만 원)

등급	축제명	개최기간/장소	예산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4개		18,171	96	900	16,792	383	
대표 축제 (2개)	김제지평선축제	9~10월 중/ 벽골제 일원	2,691		100	2,591		명예문화 관광축제
	무주반딧불축제	6월 9월 중/ 무주군 일원	2,612		100	2,512		명예문화 관광축제
최우수 축제 (6개)	고창모양성제	10.29~11.2(예정)/ 고창읍성 일원	1,740		70	1,670		
	순창장류축제	10월 중/ 고추장만족마을, 발효테마파크	1,401	32	70	1,299		문화관광 축제
	임실N치즈축제	10.8~10.10/ 임실치즈테마파크	1,112	32	70	627	383	문화관광 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10월 중/ 시간여행마을 일원	1,230		70	1,160		
	부안마실축제	5.2~5.5/ 부안군 일원	1,370		70	1,300		
	RED FOOD페스티벌 장수한우량사과랑축제	9월 중/ 임동원 및 누르파크 일원	1,220		70	1,150		여비축제
우수 축제 (4개)	진안홍삼축제	9.26~9.8/ 마이산북부 일원	876	32	50	794		문화관광 축제
	완주와일드& 로컬푸드축제	9~10월 중/ 완주군 일원	1,050		50	1,000		
	정읍구절초꽃축제	10.10~10.26/ 구절초농장 일원	1,050		50	1,000		
	익산서동축제	5.3~5.6/익산서동공원	950		50	900		
유망 축제 (2개)	전주비빔밥축제	10월 중/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440		40	400		
	남원흥부제	10.24~10.26/ 사랑의 광장 일원	429		40	389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나) 기타 축제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 축제

- 전북특별자치도는 소규모 축제의 체계적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관광객 유치 증대, 브랜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작은마을 축제를 육성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작은마을 축제는 총 14개임

[표 3-55]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 축제

(단위 : 백만 원)

축제명	개최기간/장소	2024년 예산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4개		663	224	405	34	
전주얼굴없는천사축제	10.3~5/ 노송동 천사공원	30	12	18		
군산콩당보리축제	5.4~6/ 공항로 보리밭 일원	50	20	30		
익산두동편백마을힐링숲축제	9.27~9.28./두동편백마을 일원	50	20	30		
정읍솔티모시축제	10.19~10.20./ 송죽(솔티)마을 일원	30	12	18		
남원훈불문학신행길축제	11.2~11.3./ 훈불문학관	55	20	30	5	
김제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4.20.~21./광활초등학교 운동장	70	20	30	20	
완주오성한옥마을오픈가든축제	5.18~19/ 오성한옥마을 일원	32	12	20		
진안운장산고로쇠축제	3.9.~10/주천면 삼거광장	62	12	50		
무주안성두문마을낙화놀이축제	6.7~8./두문마을 일원	50	20	30		
장수번암물빛축제	7.26~27./ 번암면 물빛공원 일원	36	12	24		
옥정호 벚꽃축제	3.30~31/ 옥정호 요산공원 일원	47	12	35		
순창섬진강슬로슬로발효마을축제	4.26~28/ 적성면 체계산 출렁다리 제2주차장	46	12	30	4	
고창바지락오감체험페스티벌	5.10~12/ 하전갯벌체험장	55	20	30	5	
부안상서개암동벚꽃축제	3.30~31./ 상서면 감교리	50	20	30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축제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의 특색이 있는 향토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축제와 관광비수기인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한 겨울축제 등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지역특화형 축제는 총 13개(지역특화 6개, 겨울축제 2개, 유망축제 5개)임

[표 3-56]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축제

(단위 : 백만 원)

구분	축제명	개최기간/장소	2024년 예산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6개		679	132	482	65	
우수축제 (3개)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9.27~28/ 우체통거리일원	70	28	42	-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4 임실N팻스타	5.4~6/ 오수약령지공원 일원	328	28	300	-	
	진안고원김치보쌈축제	11.16~17/ 마이산북부 일대	70	28	42	-	
육성축제 (3개)	정읍칠보선비마을 너나들이축제 (축제취소)	11월중/ 태산선비마을 일원	40	16	24	-	
	김제 진봉 새만금보리밭축제	5.4~6/ 진봉면 심포리	65	16	24	25	
	완주삼례딸기축제	3.8~10/ 진봉면 심포리	106	16	50	40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표 3-57]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겨울축제

(단위 : 백만 원)

구분	축제명	개최기간/장소	2024 예산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2개		140	56	84		
겨울축제 (2개)	무주공공놀이축제	12.28~'25.2.2/ 적상면 초리마을 일원	70	28	42		
	임실산타축제	12.22~25/ (재)임실치즈테마파크	70	28	42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표 3-58]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축제

(단위 : 백만 원)

구분	축제명	개최기간/장소	2024 예산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5개		475	60	406	9	
유망축제 (5개)	완주 동상계곡 물소리축제	7.6~7.7/ 운장상 계곡 일원	19	3	11	5	
	부안 위도 상사화 축제	8.26~9.5/ 위도면 일원	27.5	10	15	2.5	
	임실 사선문화제	9.19~9.22/ 임실 관촌면 사선대	260	30	230		
	남원 동동동화축제	12.21.~22., 25/ 남원여촌지구일원	157	7	150		
	2024 임실N캐롤페스타	12.23.~12.24/ 임실치즈테마파크 분수대광장	11.5	10		1.5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바. 레저스포츠 관광자원²⁹⁾

- 레저스포츠 관광자원은 경륜장, 경마장, 골프장 등 관광객이 운동경기를 관람하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해당됨. 해당 자원은 계절별 스포츠 종목에 따라 사계절 내내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여가 향유 기회를 제공함
- 현대사회에서 여가 향유 시간 증가와 여가문화 발전, 그리고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비록 국내 스포츠 관광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으나 코로나19 이전 스포츠관광산업은 2015~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5.5%였음. 2022년 기준 매출 규모가 78조 원, 종사자 수는 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3%, 8.4%가량 증가함
- 국내외 스포츠관광 시장 규모 성장에 주목하여 중앙부처도 「제4차(2024~2029) 스포츠 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스포츠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려 함. 특히 지역 특화 스포츠콘텐츠 개발, 인프라 보급, 스포츠산업 내실화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스포츠산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이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원을 활용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스포츠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가)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을 등록·신고한 사업을 의미함. 체육시설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은 공공안전·위생의 관리·감독대상이 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등록 체육시설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로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이 해당됨.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점검 대상
 - 신고체육시설업은 상대적으로 볼링장, 스크린 골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이 해당되며, 간단한 안전점검 및 신고절차로 운영

29) 문화체육관광부(2024).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 산업,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 참고

- 2023년 기준 전국의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은 총 60,644개소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에는 2,183개소(등록 29개소, 신고 2,154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3.6%를 차지함

[표 3-59]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23)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록	555	1	10	6	13	3	3	5	3
신고	60,089	10,920	3,631	2,710	3,511	1,930	1,880	1,354	375
합계	60,644	10,921	3,641	2,716	3,524	1,933	1,883	1,359	37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표 3-60]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23)_(표계속)

(단위 : 개소)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록	161	73	42	25	29	42	56	42	41
신고	15,459	1,809	1,957	2,538	2,154	2,225	3,034	3,621	981
합계	15,620	1,882	1,999	2,563	2,183	2,267	3,090	3,663	1,02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표 3-61] 전북특별자치도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23)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록	29	1	1	4	3	3	4	2	1	3	1	1	2	3	-
신고	2,154	939	428	254	97	74	72	99	10	31	19	15	15	42	59
합계	2,183	940	429	258	100	77	76	101	11	34	20	16	17	45	5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나) 자전거 도로

- 2023년 기준 전국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은 약 5천 7백만 건으로 2022년 약 5천 1백만 건에 비해 11.8%(약 6백만 건) 증가함. 이는 2019년 약 3천만 건에서 약 87.5% 증가(약 2천 1백만 건)한 수치임
- 자전거는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수립과 부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24년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50선을 선정·발표하는 등 자전거 여행을 적극 장려함

- 자전거도로도 2022년 26,225km에서 2023년 26,872km로 2.5%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2024년 기준 전국 자전거도로는 총 20,103개소이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74개가 있어 전국 대비 1.4%를 차지함

[표 3-62] 전국 자전거도로 현황(2024)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3	375	221	169	500	489	532	711	-	524	598	390	261	274	337	913	801	118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표 3-6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자전거도로 현황(2024)

(단위 : 개소)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74	-	146	-	-	47	-	-	13	25	-	1	-	42	-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다) 공공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체육시설로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을 의미함. 관광사업에서 공공체육시설을 메가이벤트(ex. 월드컵, 올림픽) 개최장소 및 체험형 관광지 등으로 활용함
- 2024년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26,838개소이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784개가 있어 전국 대비 2.9%를 차지함

[표 3-64]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24)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838	2,534	1,554	711	989	1,081	409	268	50	242	2108	2109	1,728	784	3339	4089	2173	49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표 3-65]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2024)

(단위 : 개소)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784	144	32	56	60	52	94	37	41	27	84	13	18	55	7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사. 시사점

-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에서 지역·역사·생태자원은 중요 비중을 차지하며, 외부인의 방문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자연 및 풍경감상’, ‘역사유적지 방문’ 관광활동 만족도는 연간 꾸준히 전국 5위 안에 들고 있음
 - 자연공원은 지역 대표명소로 많은 방문객을 유입시켜 지역 관광산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람사르협약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습지 등도 분포하여 전북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전북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농촌체험자원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교육적·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전북 관광산업이 단순 소비형 관광을 넘어 체험형·학습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통문화 보존 및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관광사업과 정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도시로의 경쟁력을 제고 및 지역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음
 - 대표축제 외 다양한 지역 소규모 축제를 운영하며, 시군별로 문화시설도 고르게 분포함. 이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 보장 및 지역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문화를 경쟁력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줌
- 전북특별자치도는 역사문화유산을 지역브랜딩의 주요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화관광 중심지’라는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
 -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전주비빔밥, 경기전 등을 군산시는 근대문화유산을 익산시는 백제문화유산을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전북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도 개발하는 등 관광객의 방문 지역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음
 -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에 등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지역농수산물을 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 차별화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이를 통해 농촌지역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2. 관광자원 실태분석

- 본 절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빅데이터(KT POI, T-map 등)를 기반으로 전북 지역 관광지의 실제적인 수요를 진단하고, 유형별 트렌드 변화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관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가. 활용데이터 개요

- 본 분석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자원을 관광객의 '방문욕구를 자극하는 매력적 요소인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레포츠 시설 등으로 정의함
- 이상의 개념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T-map 검색 건수 및 KT POI(Point of Interest) 방문자 수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광객 규모와 증감 추이를 분석함
- T-map 검색 건수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유형 분류에 따라 대분류(자연, 인문·문화, 레포츠 등)와 중분류(자연경관·역사유적·체험관광지 등)를 바탕으로 각 관광유형별 관광객 규모와 증감 추이를 분석함
- KT POI 방문자 수는 관광지 유형에 따라 건축/조형물, 육상 레포츠, 수상레포츠, 관광자원, 문화시설, 역사관광지로 분류하고 관광지 유형별 관광객 규모와 증감 추이를 분석함
- 데이터는 2023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T-map 데이터는 실제 방문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지점 검색 건수 기반으로 잠재 수요와 관광 관심도 파악이 가능한 반면, KT POI 데이터는 SK텔레콤 이동통신 기반 위치 데이터로 실제 방문자 수를 기반으로 관광지 실 방문 수요 측정이 가능함
- 이러한 상이한 특성을 지닌 데이터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수요의 '관심 단계'와 '행동 단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함

[표 3-66] 관광자원 실태분석 활용데이터 및 분석 방법

구분	내용
데이터 출처	· T-map 관광지 검색 건수 데이터(네비게이션에서 관광지를 검색한 횟수) · KT POI 방문자 수 데이터(방문자가 실제 해당 POI에 기록한 수)
분석 기간	· 2023년과 2024년(기간 전체 또는 상반기 기준)
분석 내용	· T-map 검색 건수 : 관광유형별 검색량 증감 추이 · KT POI 방문자 수 : 관광지 유형별 방문자 수 변화를 중점적 분석

나. 활용데이터 분석 결과

1) T-map 관광지 검색 건수 분석 : 관광유형별 검색량 증감 추이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내 관광지 검색 건수는 전년 대비 +4.6% 증가하며(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가 회복세임을 보여줌
-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분류 간 순위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각 유형별 검색 건수 증감률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관광객의 선호도 변화와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음

■ 자연관광의 관심도 증가 : 자연 기반 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및 관리

- 자연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큰 폭으로 증가함. 2024년 기준 ‘자연관광-자연경관(하천/해양)’ 유형의 검색 건수는 474,543건(전년 대비 +22.1%)으로 1위를 차지함
- 또한 ‘자연관광-자연경관(산)’ 유형도 +41.3%라는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며 순위가 상승함
- 자연경관(하천/해양, 산) 유형의 검색 건수 급증은 자연 기반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하천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자연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환경 수용력을 고려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역사관광의 관심도 변화 : 역사문화자원의 재해석 및 현대적 활용

- 반면 2023년 1위였던 ‘역사관광-역사유적지’는 검색량이 12.8% 감소하여 2위로 밀려남. 이는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 선호와 환경 관심 증가로 관광객의 선호가 역사문화 중심에서 자연환경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역사관광-역사유적지’의 검색량은 다소 감소한 것에 반해 ‘역사관광-역사유물’의 검색량은 순위권으로 신규 진입하였음. 이러한 역사유적지의 검색 건수 감소와 역사 유물의 신규 진입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함
- 역사유적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하고, 스토리텔링을 강화하여 방문객의 몰입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역사 유물을 중심으로 테마형 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통합 관광상품을 구성함
- 특히 역사·문화 관광지의 경우, MZ세대 등 젊은 층 대상의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한류 콘텐츠와의 연계 마케팅,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체험관광과 레저스포츠의 양극화 : 체험관광 프로그램 고도화, 레저스포츠 인프라 개선

- 체험관광과 레저스포츠 분야에서는 유형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체험관광-농/산/어촌체험’은 9.1% 감소한 반면 ‘체험관광-웰니스관광’은 3.8% 증가함. 또한 ‘레저스포츠-육상레저 스포츠’는 2.5% 증가한 반면 ‘레저스포츠-수상레저스포츠’는 42.2%라는 큰 폭으로 감소함. 이는 단순 체험이나 특정 레저활동보다는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관광 활동이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줌

- 농산어촌체험의 검색 건수 감소는 기존 체험 프로그램의 혁신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 기존의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관광, 농촌 숙박시설 고도화 등을 통해 체류형 농촌관광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수상레저 스포츠의 검색 건수 급감은 관련 인프라와 프로그램의 재검토가 필요함. 수상 안전 관리체계 강화, 수상레저 스포츠 시설의 현대화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수상레저 스포츠의 접근성과 매력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육상레저 스포츠의 안정적 성장세를 고려하여 트레킹, 골프, 등산 등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도시공원 및 랜드마크 시설의 복합문화공간화

- 도시공원과 랜드마크 관광의 검색 건수 증가는 도시 내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도시공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랜드마크 시설을 중심으로 한 야간관광 활성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함. 특히 랜드마크 시설의 경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포토존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MZ세대 유입을 촉진해야 함

[표 3-67]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유형별 T-map 검색 건수 변화

(단위 : 건수, %)

순 위	2023년			2024년		
	대분류	중분류	검색 건수	대분류	중분류	검색 건수 (증가율)
1	역사관광	역사유적지	473,011	자연관광	자연경관 (하천/해양)	474,543(22.1)
2	자연관광	자연경관 (하천/해양)	388,797	역사관광	역사유적지	412,688(-12.8)
3	레저스포츠	육상레저스포츠	388,367	레저스포츠	육상레저스포츠	398,243(2.5)
4	기타관광	기타관광	381,324	기타관광	기타관광	395,252(3.7)
5	문화관광	도시공원	275,244	문화관광	도시공원	317,882(15.5)
6	역사관광	종교성지	267,626	역사관광	종교성지	274,293(2.5)
7	문화관광	전시시설	216,405	문화관광	전시시설	212,562(-1.8)
8	문화관광	테마공원	183,483	문화관광	테마공원	206,406(12.5)
9	문화관광	공연시설	164,582	문화관광	공연시설	170,429(3.6)
10	자연관광	자연공원	120,498	자연관광	자연공원	127,759(6.0)
11	문화관광	레저스포츠시설	118,703	문화관광	레저스포츠시설	116,041(-2.2)
12	문화관광	기타문화관광지	106,647	문화관광	기타문화관광지	110,554(3.7)
13	레저스포츠	기타레저스포츠	87,325	자연관광	자연경관(산)	101,012(41.3)
14	자연관광	자연경관(산)	71,505	레저스포츠	기타레저스포츠	81,298(-6.9)
15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	52,493	문화관광	복합관광시설	49,206(-1.7)
16	문화관광	복합관광시설	50,059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	47,694(-9.1)
17	체험관광	웰니스관광	37,921	체험관광	웰니스관광	39,365(3.8)
18	문화관광	랜드마크관광	16,207	문화관광	랜드마크관광	18,845(16.3)
19	레저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	2,699	역사관광	역사유물	4,385 (전년 집계 안됨)
20	문화관광	도시/ 지역문화관광	1,870	문화관광	도시/ 지역문화관광	1,961(4.9)
21	역사관광	역사유물	집계안됨	레저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	1,560(-42.2)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참고 : 증가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

■ 관광유형별 T-map 관광지 검색 건수 변화

- 세부적으로 자연관광, 역사관광, 레저스포츠, 기타관광, 문화관광, 체험관광 등 6개 관광유형의 2023년 대비 2024년 T-map 관광지 검색 건수 변화를 분석 결과, 각 유형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임
- 자연관광 유형 내에서는 해양 중심의 관광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격포해수욕장’(99.3%), ‘선유도해수욕장’(78.4%), ‘구시포해수욕장’(83.3%), ‘장자도’(68.4%) 등 해변과 섬 관광지의 검색 건수가 급증했으며, ‘무주구천동계곡’(139.8%), ‘뱀사골계곡’(119.3%), ‘옥정호’(58.0%) 등 내륙 수변 관광지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자연 친화적이고 개방된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 해양데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시사함. 이에 서해안과 내륙 수변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역사관광 유형 내에서는 ‘전주한옥마을’(-14.4%), ‘고창읍성’(-10.7%), ‘군산신흥동 일본식가옥’(-13.7%) 등 전통적인 역사유적지의 검색 건수가 감소한 반면, ‘선운사’(1.1%), ‘금산사’(5.3%), ‘내소사’(5.0%), ‘강천사’(9.5%), ‘내장사’(8.8%) 등 사찰 관련 검색 건수는 증가함. 이는 전통 사찰이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휴식과 명상의 공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함
- 역사관광지의 검색 건수 감소는 콘텐츠 혁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도입, 역사 스토리텔링 강화, 야간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역사관광의 매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찰 중심 관광의 경우, 불교문화와 연계한 치유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레저스포츠관광 유형 내에서는 골프 관광의 안정적 수요와 함께 다양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계절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계절 레저스포츠 관광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타관광 유형 내에서는 ‘메타세콰이어길’(125.1%), ‘머루와인동굴’(109.8%), ‘장자교스카이워크’(91.4%), ‘호남제일문’(57.6%), ‘적벽강’(60.3%), 등 이색 체험공간 및 자연 조망시설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메타세콰이어길’, ‘머루와인동굴’, ‘장자교스카이워크’ 등 자연과 이색 관광시설의 검색 건수 급증은 관광객의 새로운 경험과 체험에 대한 니즈가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함. 이에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고, 포토존 및 뷰포인트 조성을 통해 홍보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관광 유형 내에서는 ‘전주동물원’(23.9%), ‘임실치즈테마파크’(16.0%), ‘한국소리문화의전당’(76.6%), ‘전북도립미술관’(15.2%), ‘아가페정원’(25.2%), ‘팔복예술공장’(38.6%) 등 체험형 콘텐츠와 문화예술 시설의 검색 건수가 크게 증가함. ‘붕어섬생태공원’, ‘고창청보리밭축제’ 등이 신규 진입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이는 단순 관람형에서 참여형, 체험형 관광으로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전주동물원, 임실치즈테마파크, 팔복예술공장 등 체험형 문화관광 시설의 검색 건수 증가는 관광객들이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과 연계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콘텐츠와 MZ세대를 겨냥한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mable) 공간 조성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체험관광 유형의 경우 ‘석정온천휴스파’(8.9%), ‘강천힐링스파’(16.4%), ‘익산온천랜드’(4.2%) 등 온천·스파시설은 검색 건수가 증가한 반면, ‘상하농원’(-2.0%), ‘학원농장’(-11.2%), ‘정읍허브원’(-22.1%), ‘진안홍삼스파’(-16.2%), ‘왕궁온천’(-13.5%), ‘상하농원 유기농목장’(-15.3%) 등 농촌·웰니스 체험시설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웰니스 관광 수요의 양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이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콘텐츠의 차별화와 고급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즉,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방, 명상, 힐링 등 한국적 웰니스 콘텐츠의 특성화 및 고급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농촌 체험의 경우,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로컬 푸드, 팜스테이, 건강 식단 등과 연계한 통합적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68]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유형별 T-map 검색 건수 변화_세부 관광지(1)

(단위 : 건수, %)

순위	자연관광		역사관광	
	관광지	검색건수 (증가율)	관광지	검색건수 (증가율)
1	선유도해수욕장	75,904(78.4)	전주한옥마을	268,052(-14.4)
2	변산해수욕장	55,272(-1.4)	선운사	73,428(1.1)
3	격포항	47,450(-0.8)	금산사	45,548(5.3)
4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40,807(-0.4)	내소사	37,095(5.0)
5	선유도	33,606(-28.6)	미륵사지	24,950(-4.4)
6	구시포해수욕장	30,182(83.3)	고창읍성	23,859(-10.7)
7	마이산	23,252(-2.9)	마이산탐사	20,741(-0.9)
8	곰소항	22,920(-11.4)	강천사	16,538(9.5)
9	격포해수욕장	19,078(99.3)	송광사	13,751(1.4)
10	동호해수욕장	19,043(-9.4)	군산신흥동 일본식가옥	12,809(-13.7)
11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15,713(2.6)	동국사	10,135(-16.1)
12	고산자연휴양림	15,102(5.5)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	9,373 (전년 집계 안됨)
13	고사포해수욕장	14,096(16.0)	내장사	8,943(8.8)
14	내장산	13,377(5.5)	아원고택	8,421(0.2)
15	국립변산 자연휴양림	11,888(5.5)	개암사	6,858(3.6)
16	아중호수	11,233(-11.7)	풍패지관	6,835(-10.6)
17	장자도	10,603(68.4)	실상사	6,507(-5.0)
18	뱀사골계곡	10,528(119.3)	라제통문	6,085(3.1)
19	무주구천동계곡	10,182(139.8)	수성당	5,865(-28.5)
20	옥정호	9,588(58.0)	익산미륵사지석탑	5,668(7.9)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참고 : 검색 건수는 2024년 기준, 증가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

[표 3-69]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유형별 T-map 검색 건수 변화_세부 관광지(2)

(단위 : 건수, %)

순위	레저스포츠		기타관광	
	관광지	검색건수 (증가율)	관광지	검색건수 (증가율)
1	무주덕유산리조트곤돌라	53,383(-1.9)	광한루원	68,109(-7.6)
2	군산CC	51,337(-0.6)	채석강	62,271(-7.7)
3	클럽디금강	24,090(-17.6)	대둔산케이블카	39,071(15.9)
4	김제스파힐스CC	18,296 (전년 집계 안됨)	옥정호출렁다리	30,291(-32.8)
5	고창CC	17,942(-12.4)	용굴산하늘길	21,722 (전년 집계 안됨)
6	내장산 골프앤리조트	17,899(-0.02)	태권도원	19,522(-9.6)
7	상떼힐익산CC	17,332(-5.9)	호남제일문	17,785(57.6)
8	석정힐CC	16,451(-2.7)	머루와인동굴	16,466(109.8)
9	전주상그릴라CC	15,472(6.2)	금강하구둑	14,574(-7.8)
10	골프존 카운티드래곤	15,085(2.9)	채계산출렁다리	13,034(-15.0)
11	골프존카운티무주	14,576(85.1)	내장산케이블카	10,959(5.8)
12	골프존카운티선운	13,485(4.9)	춘향데마파크	7,730(-9.0)
13	써미트컨트리클럽	13,085(-11.9)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탐방안내소	5,714(34.1)
14	장수골프리조트	12,959(9.6)	메타세콰이어길	5,461(125.1)
15	태인CC	12,816(-1.4)	부안누에타운	5,397(-10.8)
16	무주덕유산리조트스키장	12,379(-14.7)	적벽강	4,880(60.3)
17	남원상록골프장	11,536(73.7)	장자교스카이워크	4,171(91.4)
18	전주빙상경기장	10,765(-2.4)	군산기차길	3,239(26.3)
19	더나인골프클럽	10,572(5.0)	팔복동철길	3,187 (전년 집계 안됨)
20	아네스빌CC	9,498(3.7)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전시관	3,118(24.9)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참고 : 검색 건수는 2024년 기준, 증가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

[표 3-70]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유형별 T-map 검색 건수 변화_세부 관광지(3)

(단위 : 건수, %)

순위	문화관광		체험관광	
	관광지	검색건수 (증가율)	관광지	검색건수 (증가율)
1	전주월드컵경기장	95,387(0.3)	석정온천휴스파	24,230(8.9)
2	전주동물원	73,355(23.9)	상하농원	17,368(-2.0)
3	은파호수공원	46,986(-5.9)	학원농장	16,136(-11.2)
4	임실치즈테마파크	45,503(16.0)	정읍허브원	5,968(-22.1)
5	전주덕진공원	38,279(-20.0)	진안홍삼스파	5,047(-16.2)
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36,823(-3.9)	고창청농원	4,736(-5.4)
7	국립전주박물관	27,332(3.0)	강천힐링스파	4,644(16.4)
8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5,981(76.6)	익산온천랜드	3,252(4.2)
9	익산보석박물관	21,894(-9.4)	왕궁온천	2,192(-13.5)
10	봉어섬생태공원	19,256 (전년 집계 안됨)	상하농원 유기농목장	2,095(-15.3)
11	초원사진관	18,741(-10.0)	렛츠런팜장수목장	1,391(-5.1)
12	고창청보리밭축제	17,459 (전년 집계 안됨)		
13	전북도립미술관	16,815(15.2)		
14	아가페정원	16,508(25.2)		
15	완산생활체육공원	16,366(15.7)		
16	중앙체육공원	15,597(13.6)		
17	소노벨변산 오션플레이	15,349(7.8)		
18	팔복예술공장	15,263(38.6)		
19	CGV전주고사	15,197(2.2)		
20	무주반디랜드	14,464(0.3)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참고 : 검색 건수는 2024년 기준, 증가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

2) T-map 관광지 검색 건수 분석 소결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유형별 T-map 검색 건수 변화 분석 결과, 자연관광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체험관광에서는 유형별 양극화가 나타나는 등 관광 트렌드의 뚜렷한 변화가 확인됨
- 또한, 세부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유형별 T-map 검색 건수 변화 분석 결과, 자연관광 특히 해양·수변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체험·참여형 문화관광과 이색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 패턴과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디지털 정보 획득 방식의 변화, MZ세대의 소비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연 기반 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역사문화자원의 현대적 재해석, 도시공원 및 랜드마크의 복합문화공간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혁신, 레저스포츠 인프라 개선,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도내의 풍부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수변 관광, 체험형 문화관광, 이색 관광지 등 성장하는 분야에 대한 통합적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 특화 관광 브랜드 구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역사문화관광과 농촌·웰니스 관광 등 정체 또는 감소하는 분야는 콘텐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순위 변동과 증감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변화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KT POI 방문자 수 분석 : 관광지 유형별 방문자 수 변화 중점 분석

- 2023년과 2024년의 관광자원 유형별 순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상위 5개 유형(자연관광지, 역사관광지, 휴양관광지, 체험관광지, 문화시설)의 순위는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자연-관광자원’ 유형이 7위에서 6위로 상승한 반면에 ‘레포츠-육상 레포츠’ 유형은 6위에서 7위로 하락됨
- 이는 관광객들이 단순한 레저활동보다 특화된 자연관광 경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특히 관광 패턴이 일시적 방문에서 자연 속에서의 체류와 힐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7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지 유형별 KT_POI 방문자 수 변화

(단위 : 명, %)

순위	2023년			2024년		
	대분류	중분류	방문자수	대분류	중분류	방문자수 (증가율)
1	자연	자연관광지	59,936,065	자연	자연관광지	57,539,398 (-4.0)
2	인문(문화/예술/역사)	역사관광지	46,699,566	인문(문화/예술/역사)	역사관광지	44,453,052 (-4.8)
3	인문(문화/예술/역사)	휴양관광지	27,500,526	인문(문화/예술/역사)	휴양관광지	26,596,129 (-3.3)
4	인문(문화/예술/역사)	체험관광지	22,203,192	인문(문화/예술/역사)	체험관광지	20,763,869 (-6.5)
5	인문(문화/예술/역사)	문화시설	19,089,095	인문(문화/예술/역사)	문화시설	18,573,643 (-2.7)
6	레포츠	육상 레포츠	1,921,948	자연	관광자원	1,743,249 (7.9)
7	자연	관광자원	1,616,143	레포츠	육상 레포츠	1,738,359 (-9.6)
8	인문(문화/예술/역사)	건축/조형물	672,637	인문(문화/예술/역사)	건축/조형물	536,113 (-20.3)
9	레포츠	수상 레포츠	60,484	레포츠	수상 레포츠	51,636 (-14.6)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참고 : 증가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

■ 자연 유형 : 고유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필요

- 자연관광지는 방문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방문자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관광자원’ 유형의 방문자 수가 증가한 점은 자연관광자원의 특성화 및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 세부적으로 ‘자연-자연관광지’는 전반적인 방문자 수 감소 추세 속에서도 ‘금강하구둑’, ‘장자도’, ‘선운산 생태숲’ 등 특색 있는 자연관광지의 방문자 수 증가는 차별화된 자연 경험과 활동 다양화의 중요성을 시사함
- 단순 경관 감상을 넘어 생태해설, 자연체험 프로그램, 계절별 특화 행사 등을 확대하여 자연관광자원의 매력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격포해수욕장, 적상산 등 방문자 수가 크게 감소한 관광지의 경우,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연-관광자원’ 유형에서는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경관이 높은 방문률을 기록함.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48만여 명의 방문자수를 기록함. 특별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라제통문’(37.4%)과 ‘장수 장수리 의암송’(37.5%)의 급격한 방문자수 증가임. 이는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스토리와 가치를 지닌 특화된 관광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군’(-22.8%), ‘지리산 천년송’(-12.7%) 등 일부 관광자원은 방문자수가 감소하고 있음. 이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인지도는 있으나, 접근성이나 연계 관광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즉, ‘자연-관광자원’ 유형의 전반적인 특징은 방문자 수의 규모가 문화시설이나 역사 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여주고 있지만, 특색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이는 관광자원이 지닌 잠재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도내의 주요 자연관광지 고유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확대해 지역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7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지 유형별 KT_POI 관광지 방문자 수 변화_세부(1)

(단위 : 명, %)

순위	자연-자연관광지		자연-관광자원	
	관광지	관광자수(증가율)	관광지	관광자수(증가율)
1	변산반도 국립공원	5,687,626(-1.3)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487,057(15.0)
2	건지산	2,995,206(-3.0)	진안마이산 출사철·무군락	404,303(-4.8)
3	모악산도립공원	2,807,676(3.0)	라제통문	296,828(37.4)
4	금강하구둑(군산)	2,049,369(13.0)	상관 공기마을 편백숲	296,167(-4.4)
5	무녀도	2,044,028(0.02)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120,246(-22.8)
6	채석강 (전북 서해안 국가자연공원)	1,938,104(-4.4)	장수 장수리 의암송	80,668(37.5)
7	원등산	1,921,091(1.8)	지리산 천년송	57,981(-12.7)
8	대둔산도립공원(전북)	1,902,072(-5.7)		
9	선운산 (전북 서해안 국가자연공원)	1,900,112(-2.1)		
10	옥정호(물안개길)	1,861,517(-1.0)		
11	격포해수욕장	1,553,314(-31.8)		
12	선유도해수욕장 (명사십리 해수욕장)	1,469,073(-8.6)		
13	기지제	1,125,415(5.0)		
14	덕유산국립공원 (본소, 적상본소)	1,088,654(1.1)		
15	선운산 생태숲	996,954(10.6)		
16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899,665(3.5)		
17	적상산	841,043(-33.4)		
18	향적봉(덕유산)	840,301(-9.7)		
19	장자도	768,674(14.0)		
20	방장산	753,718(-5.6)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참고 : 검색 건수는 2024년 기준, 증가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

■ 인문 유형 : 전통적인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형, 몰입형 프로그램 확충

- 인문·문화관광자원의 전반적인 방문자 수 감소는 기존 콘텐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역사관광지와 체험관광지의 방문자 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관람 중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야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객의 경험을 확장하고 체류시간을 연장할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함
- ‘인문·역사관광지’ 유형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이 668만여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전북도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전년 대비 0.3%의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여전히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
- ‘인문·휴양관광지’에서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관광지들이 보이고 있음. ‘석정온천휴스파’는 전년 대비 116.9%라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약 56만 명이 방문함. 또한 ‘전주동물원’(16.9%), ‘중앙체육공원’(9.6%), ‘월명공원’(8.2%), ‘켄싱턴리조트 남원점’(6.5%) 등도 방문자 수 또한 증가함
- 이는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치유(웰니스) 관광, 가족 단위 휴양, 도심 속 휴식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도내 온천, 자연환경, 식문화 등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복합 휴양데저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인문·역사관광지’ 유형의 전반적인 특징은 전통 건축물이나 유적지보다 역사적 스토리와 체험이 결합된 관광지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의 방문자 수 증가는 국내·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역사문화자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인문·체험관광지’의 양극화 현상은 관광객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남원 추어탕 거리, 익산 액션하우스 등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 문화, 액티비티를 결합한 복합 체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음
- 기존 체험 프로그램의 혁신과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참여형 프로그램,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체험 요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문-문화시설’ 유형에서는 ‘전주 공예품 전시관’(289만여 명)과 ‘최명희문학관’(206만여 명)이 1, 2위를 차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두 시설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9%, 11.2% 감소한 방문자 수를 기록함
- 반면, ‘전북도립미술관’은 78.6%라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48만여 명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관람형 문화시설보다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담은 특화된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 ‘인문-건축/조형물’ 유형에서는 5개 주요 관광지의 방문자수 데이터가 분석됨. ‘군산 해망굴’ 등 건축·조형 관광지 방문자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덕유산 국립공원 적상전망대’는 3.2% 증가함
- 반면, ‘하섬전망대’(-23.9%), ‘3.1동산’(-56.3%), ‘순창 향가터널’(-23.1%) 등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대책이 필요함. 특히 ‘3.1동산’의 56.3%라는 급격한 방문자 수 감소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축/조형물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인문-건축/조형물’ 유형의 방문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 감상형 관광보다 체험과 활동이 결합된 복합적 관광 경험을 선호하는 관광 트렌드 변화를 반영함
- 또한 ‘인문-건축/조형물’ 유형의 방문자 수 규모가 다른 관광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은 이 분야의 관광 자원화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이에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건축/조형물 유형의 스토리텔링 강화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줌

[표 3-73]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지 유형별 KT_POI 관광지 방문자 수 변화_세부(2)

(단위 : 명, %)

순위	G인문-역사관광지		인문-휴양관광지	
	관광지	관광자수(증가율)	관광지	관광자수(증가율)
1	전주한옥마을[솔로시티]	6,686,288(0.3)	완산칠봉(완산공원)	2,284,793(5.9)
2	전주 풍패지관 (전주객사)	2,968,599(3.1)	새만금	2,174,344(3.9)
3	경기전	2,712,654(-9.0)	덕진공원	1,702,967(-11.6)
4	전주전동성당	2,464,403(-7.3)	진포해양테마공원	1,427,909(5.1)
5	오목대와 이목대	2,212,518(6.4)	소노벨 변산 오션플레이	1,027,996(-9.7)
6	전주향교	2,150,393(9.1)	남원관광단지	1,021,979(5.4)
7	광한루원	1,605,604(14.0)	춘향테마파크	1,005,232(3.7)
8	남천교 청연루	1,109,059(-8.5)	세병공원	91,337(-3.4)
9	춘향사당	1,052,436(5.3)	중앙체육공원	835,058(9.6)
10	동국사(군산)	928,575(2.0)	전주동물원	790,433(16.9)
11	고창읍성	715,026(-10.6)	켄싱턴리조트 남원점	713,272(6.5)
12	임실향교	592,662(4.3)	은파호수공원 (은파국민관광지)	634,914(-3.8)
13	한벽당	520,408(-12.1)	월명공원	626,808(8.2)
14	선운사(고창)	447,724(10.5)	석정온천휴스파	560,137(116.9)
15	금산교회	439,751(-3.6)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555,625(-21.9)
16	국립임실호국원	430,910(1.3)	새만금어린이랜드	483,350(3.9)
17	익산 미륵사지	419,986(9.6)	다가공원	471,902(1.0)
18	창주서원	404,537(242.6)	장자도여객터미널	465,448(3.3)
19	마이산 신제	404,303(4.8)	새만금유람선	440,843(-10.0)
20	천양정	350,791(-0.7)	둔산공원	437,108(-2.6)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참고 : 검색 건수는 2024년 기준, 증가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

[표 3-7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지 유형별 KT_POI 관광지 방문자 수 변화 세부(3)

(단위 : 명, %)

순위	인문-체험관광지		인문-문화시설		인문-건축/조형물	
	관광지	관광자수(증가율)	관광지	관광자수(증가율)	관광지	관광자수(증가율)
1	서해금빛열차	158,45,904 (-4.1)	전주 공예품 전시관	2,892,593 (-2.9)	군산 해망굴	200,333 (-6.9)
2	우체통거리	928,575 (2.0)	최명희문학관	2,062,732 (-11.2)	덕유산국립공원 적상전망대	154,025 (3.2)
3	전주목판서화 체험관	515,092 (-3.1)	군산근대 역사박물관	1,205,008 (5.1)	하섬전망대	78,026 (-23.9)
4	정읍 생화차거리	432,453 (-0.6)	테디베어 뮤지엄 군산	928,575 (2.0)	3.1동산	71,841 (-56.3)
5	남원 추아탕 거리	377,241 (47.81)	동학혁명기념관	849,195 (-12.8)	순창 향가터널	31,889 (-23.1)
6	보리나라 학원농장	347,736 (-9.3)	강암서예관	711,830 (-12.2)		
7	상하농원	328,426 (-24.6)	국립전주박물관	683,855 (5.8)		
8	고창읍성 도예체험장	281,978 (-47.1)	전주자연생태관	608,549 (-10.6)		
9	고스락	209,626 (9.5)	전주역사박물관	585,890 (6.7)		
10	비비정예술열차	195,545 (-3.7)	순창장류박물관	577,178 (1.1)		
11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163,006 (12.5)	전주한벽문화관	520,408 (-12.1)		
12	전주전통한지원	129,189 (11.2)	익산아트센터	494,064 (-10.0)		
13	무주머루와인 동굴	117,884 (-23.3)	전북도립미술관	488,250 (78.6)		
14	전북에어 포스스쿨	88,288 (-24.9)	전주한지박물관	469,126 (15.0)		
15	모항갯벌체험장	76,570 (-48.6)	보석박물관	425,170 (7.2)		
16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69,304 (-45.5)	남원향토박물관	365,785 (-6.9)		
17	익산 액션하우스	65,625 (86.7)	남원다움관	360,528 (8.9)		
18	말순농장	64,841 (6.0)	원불교 역사박물관	353,003 (4.4)		
19	무주 트리스쿨	62,720 (-26.9)	국립 익산박물관	310,548 (7.3)		
20	백학관광농원	60,151 (-11.6)	진안역사박물관	306,194 (0.6)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참고 : 검색 건수는 2024년 기준, 증가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

■ 레포츠 유형 : 고유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필요

- 레포츠 관광자원은 전반적으로 방문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육상 레포츠 유형에서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이 유일하게 통계에 포함되었으며, 9만 5천여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대비 9.6% 감소함. 수상 레포츠 유형에서도 ‘내장산 워터파크’가 유일하게 포함되었으며, 5만 1천여 명의 방문자수로 전년 대비 14.6% 감소함
- 이러한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레포츠 관광이 특정 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성이 부족함을 보여줌. 또한 두 시설 모두 방문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시설의 노후화,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최신 트렌드 반영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 특히,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은 겨울철에 집중된 계절성이 강한 관광자원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내장산워터파크’도 여름철 중심의 운영으로 연중 안정적인 방문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즉, 육상 및 수상 레포츠 시설의 현대화와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레포츠 관광의 접근성과 매력도를 제고하고 계절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레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레포츠, 문화, 교육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등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3-7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지 유형별 KT_POI 관광지 방문자 수 변화 세부(4)

(단위 : 명, %)

순위	레포츠-육상 레포츠		레포츠-수상 레포츠	
	관광지	관광자수(증가율)	관광지	관광자수(증가율)
1	무주덕유산 리조트 스키장	95,387(-9.6)	내장산워터파크	51,636(-14.6)

자료 : 한국관광데이터랩

참고 : 관광자수는 2024년 기준, 증가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

4) KT POI 방문자 수 분석 소결

- 관광지 방문자 수 변화 분석 결과(KT POI), 방문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연-관광자원’ 유형의 방문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관광지 방문자들의 선호도가 대중 관광지 방문에서 맞춤형 경험 및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연-자연관광지’는 전반적으로 방문자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금강하구둑’, ‘장자도’, ‘선운산 생태숲’ 등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색을 가진 자연관광지의 방문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별화된 자연 체험과 활동 다각화의 중요성이 나타남
- 이에 따라 기존의 단순 경관 감상형 관광을 넘어 생태 상태 안내, 자연학습 프로그램, 계절별 맞춤 행사 등을 관련 관광 활동을 다각화하여 자연관광자원의 흡입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연-관광자원’은 ‘문화시설’이나 ‘역사관광지’에 비해 방문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장수 장수리 의암송’ 등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중심으로 방문객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내 핵심 자연관광지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생태관광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문·문화관광자원’의 경우, 방문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존 콘텐츠에 한계가 점차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며, 콘텐츠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역사관광지’와 ‘체험관광지’의 방문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람 위주의 관광 체험에서 벗어나 몰입형, 실감형 콘텐츠 등을 확충하여 방문객의 관광 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하섬전망대(-23.9%)’, ‘3.1동산(-56.3%)’, ‘순창 향가터널(-23.1%)’ 등 ‘인문-건축/조형물’ 자원 분야의 관광지들의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관람, 체험, 활동이 결합된 복합형 관광 경험을 선호하는 고나광객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또한, 방문객 규모가 다른 관광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적다는 점은 ‘인문-건축/조형물’ 자원 분야의 관광자원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건축/조형물 분야의 스토리텔링화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성 향상이 필요함을 보여줌

- ‘역사관광지’는 역사적 스토리와 체험이 결합된 형태의 역사관광지에서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의 방문자 수 증가는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역사문화자원의 중요성을 보여줌. 따라서 기존 체험프로그램 개선과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체험 관광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레포츠 관광(육상 및 수상)의 경우, 전체적인 방문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시설에 집중화되는 현상 및 계절적 한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 이는 레포츠 관광자원의 콘텐츠 개선 및 프로그램 다각화, 시설 현대화 등이 시급함을 나타냄
- 이에 레포츠 관광의 다양화 및 고도화,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계 관광 활성화,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접근성 개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환경 관리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시사점

■ 전북의 해양·수변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 지속적인 해양관광 및 섬 관광 추진 필요

- 자연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큰 폭으로 증가함. 2024년 기준 ‘자연관광-자연경관(하천/해양)’ 유형의 검색 건수는 474,543건(전년 대비 +22.1%)으로 1위를 차지함
- 자연관광 유형 내에서는 해양 중심의 관광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선유도해수욕장’(78.4%), ‘구시포해수욕장’(83.3%), ‘격포해수욕장’(99.3%), ‘장자도’(68.4%) 등 해변과 섬 관광지의 검색 건수가 급증했으며, ‘뱀사골계곡’(119.3%), ‘무주구천동계곡’(139.8%), ‘옥정호’(58.0%) 등 내륙 수변 관광지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자연관광지의 선호도 증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의 다양한 섬 및 내륙 수변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전북의 생태·경관 자원에 대한 관심 급증 및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확보 필요

- 관광지 방문자 수 변화 분석 결과(KT POI), 방문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연-관광자원’ 유형의 방문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관광지 방문자들의 선호도가 대중 관광지 방문에서 맞춤형 경험 및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의 관광지를 단순 관람형에서 나아가 체험형/특화형 관광지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단순 경관 감상을 넘어 생태해설, 자연체험 프로그램, 계절별 특화 행사 등을 확대하여 자연관광자원의 매력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확충,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자연-관광자원’ 유형의 전반적인 특징은 방문자 수의 규모가 문화시설이나 역사

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장수 장수리 의암송’ 등 특색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도내의 주요 자연관광지 고유 특성을 살린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관광콘텐츠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AR·VR 기술로 생태관광 트레킹 및 야간 생태투어를 디지털 체험 콘텐츠로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전북 내 다양한 역사관광자원의 체험 강화 및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필요

- 전북의 역사관광(역사유적지) 검색 건수는 2024년에 전년 대비 약 12.8% 감소하며 ‘자연관광-자연경관(하천/해양)’에 밀려 2위로 나타났으나 전북 관광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다양한 역사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역사관광에 대한 강화전략 마련이 필요함
- 인문·문화관광자원 중 역사관광지와 체험관광지의 방문자 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콘텐츠의 한계를 보여주며, 혁신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함. 즉, 전통적인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야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객의 경험을 확장하고 체류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역사관광지 유형의 전반적인 특징은 전통 건축물이나 유적지보다 역사적 스토리와 체험이 결합된 관광지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의 방문자 수 증가는 글로벌 가치를 인정받은 역사문화자원의 중요성을 보여줌
- 이에 기존 체험 프로그램의 혁신과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참여형 프로그램,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체험 요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익산 왕궁리유적을 중심으로 가상현실(VR) 기반 고대왕궁 복원 체험, 전주향교와 무주 적상산성 등 전통문화 행사(전통혼례, 강강술래) 연계,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전통문화전당·백제왕도문화제 등 문화시설과 축제 간 연계로 역사·문화코스 루트를 기획하여 체류형 관광수요를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염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명상과 휴식의 장소로서의 사찰 재발견

- 전통 역사유적지의 검색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선운사’(+1.1%), ‘금산사’(+5.3%), ‘내소사’(+5.0%), ‘강천사’(+9.5%), ‘내장사’(+8.8%) 등 주요 사찰의 검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방문객에게 사찰이 단순 유적 탐방지를 넘어 휴식과 명상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현상은 사찰 자원이 기존 역사관광자원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힐링 관광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찰자원을 역사문화적 자원으로써의 보존·활용 뿐만 아니라 힐링과 치유가 결합된 치유관광자원으로 사찰관광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사찰관광의 활성화 방안으로 도내 주요사찰 인근에 명상센터·치유림 산책로·힐링 스파 시설 등 사찰 치유관광 시설을 조성하고, 주요 사찰과 농가체험 및 지역음식체험을 연계한 ‘사찰 힐링투어’ 또는 사찰 연계 한방·명상·요가 등의 통합 힐링프로그램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3. 전문가 심층인터뷰

가. 인터뷰 개요

-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실행계획의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모색을 위해 관광빅데이터 분석 적합성, 전북의 잠재 관광자원(장소·테마 등), 전북의 자연명소, 전북의 역사관광자원, 전북의 관광자원(예: 문화, 음식 등)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표 3-76] 심층인터뷰 주요 질문

연번	내용
1	관광빅데이터 분석 적합성에 대한 의견
2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전북의 잠재 관광자원(장소·테마 등)에 대한 의견
3	전북의 자연명소 관광상품화 전략에 대한 의견
4	전북의 역사관광자원 관광상품화 전략에 대한 의견
5	전북의 관광자원(예: 문화, 음식 등)에 대한 추가제언 및 관광상품화 전략에 대한 의견

- 인터뷰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외 소재 대학교의 관광학과 교수와 관광분야 전문가 총 4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반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의 특수성,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및 정책 동향 등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함

[표 3-77] 전문가 조사 대상

인터뷰 대상자				
K	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위원	준정부기관	전문가	박사
Y	관광분야 출연기관 과장	출연기관	전문가	박사
J	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 대학교 교수	국립대학교	전문가	박사
C	관광분야 위원회 사무총장	협회	전문가	박사

나. 인터뷰 결과

■ 분석 적합성 측면 : 정성적 방법론 병행을 통한 데이터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분석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포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자연(하천, 해양)과 역사자원의 반영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지역 및 계절적 편중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과 같은 정성적 분석방법을 병행하여 신규 자원발굴과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표 3-7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범주화(1)

세부내용	하위범주	범주화
전북의 14개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빅데이터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특히 자연(하천, 해양)과 역사(사찰 중심)의 관광자원이 국내 최신 관광트렌드와 잘 부합됨(관광분야 위원회 사무총장 C)	분석 내용의 포괄성 및 빅데이터 분석 우수성	분석 적합성
T-map 검색건수와 KT POI 방문자수를 함께 활용한 이중 검증 체계가 관광수요의 잠재성과 실제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평가됨(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원 K)		
관광객의 검색 및 방문 데이터(T-map, KT POI)가 실제 관광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지역 특화 관광자원(자연·역사)의 강점을 잘 분석한 것으로 평가됨(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 대학교 교수 J)		
데이터 분석이 방문자의 특성(연령대, 행동패턴 등)을 깊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므로, 추가적인 정성 분석과 전문가 의견, 미래 예측 등이 필요함(관광분야 출연기관 과장 Y)	빅데이터 분석의 한계점	
최신 관광트렌드(반려동물 동반 관광, 웰니스 관광, 음식 관광 등)를 반영한 자원들의 추가 분석 및 포함이 필요함(관광분야 위원회 사무총장 C)	정성적 방법론을 통한 데이터 보완 필요성 제시	
전주·군산·익산 같은 주요 도시와 산간·도서 지역 간 관광데이터의 편중성을 보완하고, 계절별·기상조건별 분석이 추가로 필요함. SNS 버즈 데이터, 소셜미디어 해시태그 분석 등을 추가하여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원 K)		
전통문화 및 축제·이벤트 같은 지역만의 차별적 역량 분석이 부족하며, 이를 정성적 자료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 대학교 교수 J)		

■ 자연관광자원 측면 : 유네스코 자원의 관광콘텐츠화, 산·해안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 전북특별자치도는 국제적 가치를 지닌 고창 갯벌 등 유네스코 인증 자원을 보유하여 글로벌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자연 자원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교육적 요소가 결합된 생태체험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함이 언급됨
- 또한 최근 증가하는 웰니스 관광 트렌드와 연계한 치유·힐링 콘텐츠의 전략적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같은 다양한 자연 지형의 복합자원은 선형 또는 체류형 관광루트로 개발하여 지역 내 관광객 체류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됨

[표 3-7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범주화(2)

세부내용	하위범주	범주화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고창 갯벌 등)의 유네스코 등재 등으로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짐(관광분야 출연기관 과장 Y)	국제적 경쟁력과 유네스코 인증	자연관광 자원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갯벌, 습지 등을 교육적 요소와 결합한 에듀테인먼트형 생태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필요함(관광분야 위원회 사무총장 C)		
뛰어난 생태자원을 웰니스 트렌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전라북도 외 소재 대학교 교수 J)		
선유도·고군산군도 등 도서지역 자원의 방문객이 급증하여 국제적 해양관광지와 비교 가능한 경쟁력을 보이며, 덕유산과 내륙 계곡(무주구천동, 뱀사골)도 높은 관광 잠재력 보유함(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위원 K)	도서 및 해양관광	
선유도 아일랜드 호핑, 덕유산 사계절 리조트, 스마트 관광(AR/VR 안내) 등 자연관광자원의 특성에 맞춘 글로벌 마케팅과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위원 K)		
변산반도 국립공원(해양과 산악 복합), 고창 운곡습지(람사르습지), 내장산 국립공원(단풍과 사찰연계 가능) 등 자연과 문화유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원 활용도가 뛰어남(관광분야 위원회 사무총장 C)	다양한 자연자원의 결합성	
자연 자원을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점적 관광이 아닌 선형·체류형으로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함(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 대학교 교수 J)		

■ 역사관광자원 측면 : 디지털 및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륵사지 석탑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대의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역사자원은 현대적 관광트렌드에 맞춰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대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AR/VR 등 디지털 기술과 스토리텔링 기반의 체험형 이벤트로 전환이 필요함이 제시됨

[표 3-80]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범주화(3)

세부내용	하위범주	범주화
미륵사지 석탑은 동아시아 최대·최고 석탑으로, 20년간의 해체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백제 공예기술의 정수를 보여 세계적 수준이므로 본 자원을 활용한 상품화가 필요함(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위원 K)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활용	역사관광 자원
남원 유곡리, 장수 삼봉리 등 유네스코 등재 가야 고분군의 매력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도슨트 해설, 체험·굿즈 상품 개발) 추진이 필요함(관광분야 출연기관 과장 Y)		
고창 고인돌유적,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정읍 무성서원 등 유네스코 등재 자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 대학교 교수 J)		
선사시대(고창 고인돌)부터 백제역사(익산 미륵사지), 조선시대(경기전), 근대 문화(군산 근대역사)까지 다양한 시대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관광가치를 가짐(관광분야 위원회 사무총장 C)	다양한 시대의 역사자원 활용	
선운사의 동백숲과 내소사의 전나무숲은 '자연 속 불교문화'의 전형으로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명상과 힐링 공간으로 현대적 활용 방안 강화가 요구됨(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위원 K)	웰니스 관광 트렌드 접목	
역사자원을 활용한 도보길, 체험형 관광콘텐츠(예: 웰니스형 역사 도보길) 개발과 이벤트 콘텐츠(예: 조선시대 생활체험, 백제왕궁 체험 등)가 필요함(관광분야 위원회 사무총장 C)		
자원을 연계한 도보길을 추가 조성하고, 다양한 세대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AR/VR,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필요함(관광분야 위원회 사무총장 C)	디지털 및 실감형 콘텐츠 활용	
실감형 체험 콘텐츠(스토리 기반의 역사적 이벤트 등)를 개발하여 역사관광의 단순 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전환이 필요함(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 대학교 교수 J)		

■ 문화·음식 관광자원 측면 : 음식관광의 산업관광화, 전통문화자원의 공연관광 상품화

- 전북특별자치도의 음식문화(전주비빔밥, 순창 고추장 등)는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단순한 미식 체험에서 나아가 전통문화 계승과 학습적 요소를 결합한 산업관광 형태로 발전시켜야 함이 제시됨
- 또한, 판소리와 농악 등 무형문화유산을 현대적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국제적인 공연관광 상품화 및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특화된 음식문화 체험시설, 한류 문화체험공간 및 드라마 촬영 스튜디오와 같은 콘텐츠 융합형 관광시설의 확충과 활성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표 3-8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범주화(4)

세부내용	하위범주	범주화
전북지역 음식 관광자원(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남부시장 야시장 등)이 빅데이터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음. 전북의 K-푸드(전주비빔밥, 순창 발효음식, 고창 복분자 와인 등)의 글로벌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큼(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위원 K)	음식 관광의 산업관광화	문화·음식 관광자원
전북 음식자원(비빔밥, 장어, 추어탕 등)을 단순히 맛보는 관광을 넘어 전통문화 계승과 교육적 요소를 갖춘 산업관광 형태로 발전시키는 거점형 교육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 대학교 교수 J)		
최근 관광객이 선호하는 먹거리 관광(뽕지순례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화 시설을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함(군산 이성당 등 사례 제시)(관광분야 위원회 사무총장 C)		
전통공예(한지, 합죽선, 소목장 등)의 체험형 자원도 저평가됨(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위원 K)	문화콘텐츠(문화예술, 공예문화 등) 융합형 관광	
전통공예(한지, 소목장)의 글로벌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며 관광상품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함(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위원 K)		
판소리와 농악 등 전통공연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적 공연 축제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위원 K)		
K-컬처 체험빌리지와 한류 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등 문화콘텐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한류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지역 콘텐츠 특화 축제의 글로벌화	
전북이 보유한 축제 및 이벤트 자원(전주 한지문화축제, 전주비빔밥축제, 전주가맥축제 등)이 데이터 분석에서 반영되지 못했으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관광분야 출연기관 과장 Y)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축제·이벤트와 같은 관광 콘텐츠가 모호하게 분석되어 있으며, 이를 추가로 보완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여야 함(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 대학교 교수 J)		

■ 슬로시티, 농촌관광 등의 체계적 개발 필요

- 전북 지역이 보유한 미발굴 관광자원으로서 슬로시티, 농촌관광, 웰니스 및 반려동물 관련 관광콘텐츠의 발굴 및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함
- 특히 최근 관광 트렌드와 부합하는 반려동물 동반시설과 슬로시티 콘텐츠는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이므로, 이들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적극적 홍보 전략 수립이 시급함을 제시함

[표 3-8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범주화(5)

세부내용	하위범주	범주화
순창 설랜드, 성수산 왕의 숲, 진안 홍삼스파와 같은 웰니스 관광자원들이 추가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관광분야 위원회 사무총장 C)	산악 및 웰니스 관광	미발굴 자원
무주 덕유산의 사계절 관광, 진안 마이산의 독특한 자연경관 등 동부권 산악자원의 잠재력 및 신비관광 콘텐츠가 미발굴 상태임(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위원 K)		
임실 오수익전 관광지, 남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공원과 같은 반려동물 관련 관광자원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추가로 발굴하여 활성화해야 함(관광분야 위원회 사무총장 C)	반려동물 관광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진안 마령 슬로시티 등 새로운 농촌관광 모델의 가치와 잠재력이 미반영됨(관광분야 준정부기관 책임연구위원 K)	농촌·슬로시티 관광	

다. 시사점

■ 국제 인증자원 및 복합형 관광자원의 고도화

- 고창 갯벌 등 유네스코 인증자원은 국제적 인지도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므로, 이를 활용한 에듀테인먼트형 생태체험, 웰니스·치유·힐링 등 다양한 체험형 관광상품으로의 고도화가 필요함
- 선유도, 고군산군도 등 도서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AR/VR 안내와 같은 스마트관광 시스템, 선형·체류형 루트 개발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자연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복합형 자원은 지역 내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테마의 체류형 관광루트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체험형·참여형 콘텐츠 확장 및 관광경쟁력 강화

- 미륵사지 석탑, 고창 고인돌, 익산 백제유적 등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은 도슨트, AR/VR 등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체험콘텐츠, 굿즈 개발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양한 시대의 역사 자원을 단순 관람에서 벗어나 주제별·스토리텔링 기반의 체험형 이벤트, 디지털 기술(AR/VR 등)을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로 전환하여 전 세대의 관광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식·공예·공연 등 지역 고유문화의 전략적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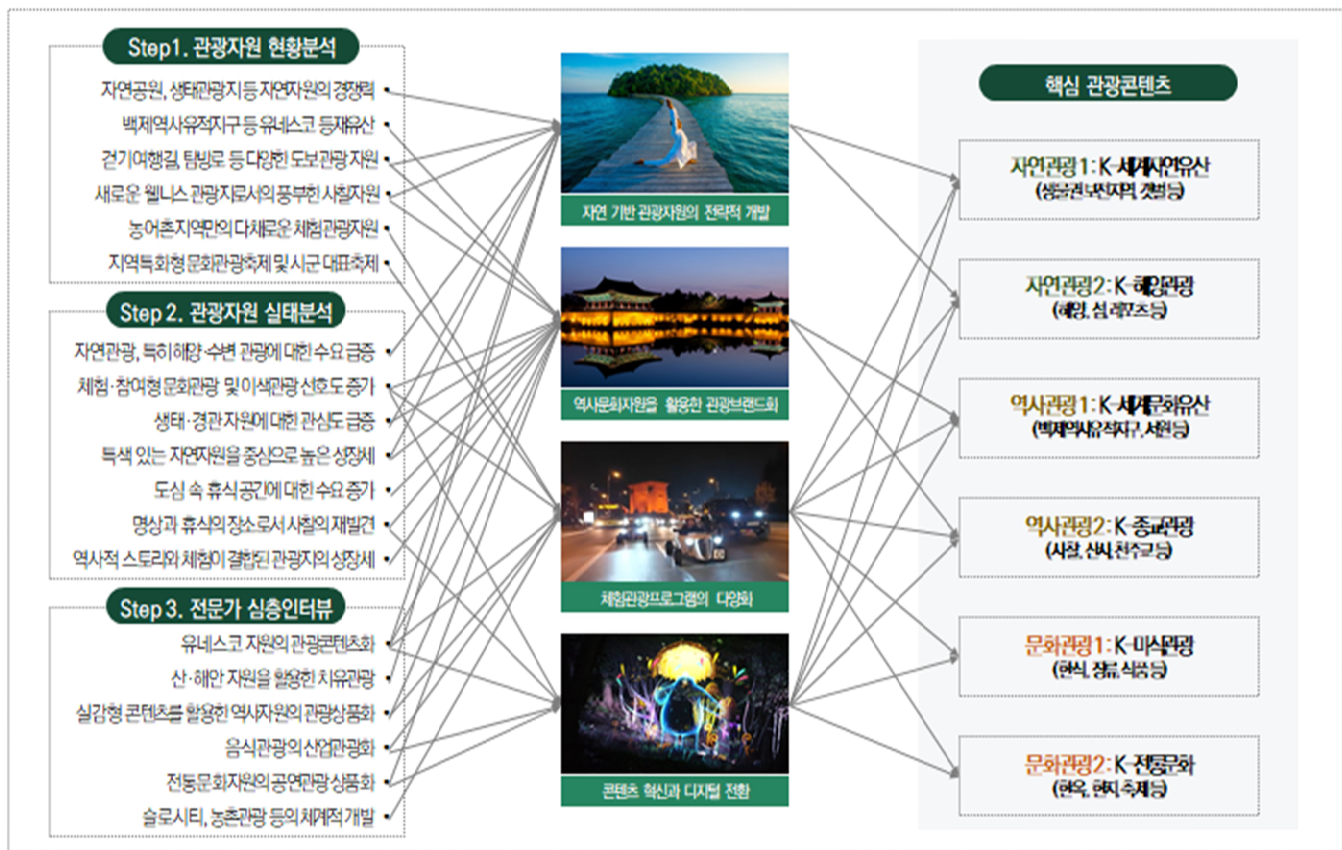
- 전주비빔밥, 순창 고추장 등 K-푸드를 단순 미식 체험에서 산업관광, 교육, 체험이 결합된 복합모델로 확장하여 글로벌 음식관광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더불어 K-컬처 체험빌리지, 드라마 촬영지 등 문화·음식·축제를 융합한 한류관광 생태계 조성, 전주 한지문화축제·전주비빔밥축제 등 고유 축제의 세계적 브랜드화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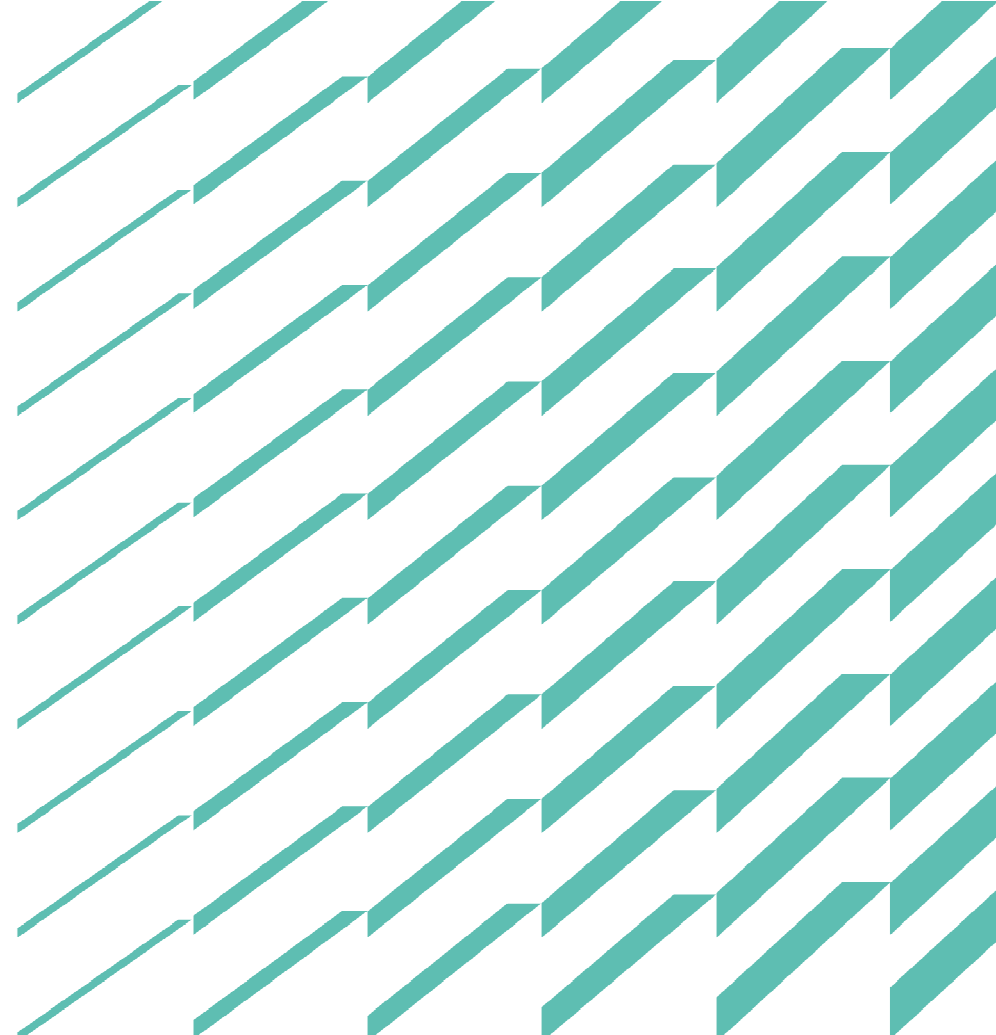
4. 종합분석

-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자원은 풍부한 자연·생태·역사유산, 그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음식자원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자연 및 풍경감상’, ‘역사유적지 방문’과 같은 관광활동 만족도는 연간 꾸준히 전국 5위 이내에 들고 있으며, 자연공원·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고창 갯벌), 람사르협약 등록 습지 등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자원 분포
- 최근 T-map 검색 건수, KT POI 방문자 수 등 데이터 분석 결과, ‘자연 및 풍경감상’, ‘역사유적지 방문’과 같은 전통적인 관광활동이 여전히 방문객의 주요 동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전북 내 자연공원, 람사르협약·유네스코 등재 습지, 다양한 문화·체험 자원이 지역 대표 명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
 - ‘자연관광-자연경관(하천/해양)’ 유형의 T-map 검색 건수는 474,543건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하며 전체 1위를 기록. 선유도해수욕장(78.4%), 구시포해수욕장(83.3%), 격포해수욕장(99.3%), 장자도(68.4%) 등 해변 및 섬 관광지의 검색 건수가 크게 늘었고, 뱀사골계곡(119.3%), 무주구천동계곡(139.8%), 옥정호(58.0%) 등 내륙 수변 관광지도 비약적으로 성장
 - ‘금강하구둑’, ‘장자도’, ‘선운산생태숲’ 등은 방문자 수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장수장수리 의암송’ 등은 고유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KT POI 방문자 수 분석)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통문화 보존, 문화예술축제, 주민참여형 문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주요 도시권인 전주, 군산, 익산은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유산, 익산 백제유적 등 ‘역사문화기반의 문화관광 중심지’라는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
- 반면, 관광자원 편중과 방문자 수 감소, 콘텐츠의 혁신 부족 등은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나타남. 일부 도시권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의 관광자원은 아직 체류형·복합형 관광지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존 인문·문화관광자원의 방문자 수 감소 역시 뚜렷함
-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 변화, 건강·웰빙 수요 증대, 디지털 정보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해양·수변·산림 등 자연관광과 이색·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전통적 관람 중심 관광은 감소 추세임

- 이러한 변화는 단순 경관 감상에서 벗어나, 생태해설·체험프로그램·계절별 행사 등 체험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접근성 개선·편의시설 확충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도서관·유네스코 유산·농촌체험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교육적·문화적 가치로 전환하는 관광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소비형 관광을 넘어 체험형·학습형 관광으로의 전환 기반이 점차 마련하고 있음
- 또한, AR·V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야간 프로그램, 웰니스·치유형 관광 등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며, MZ세대 등 변화하는 관광객의 취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참여형 상품 개발이 요구됨
- 자연관광자원 측면에서는 유네스코 인증 자원과 해양·산림·내륙 수변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통합적 생태·치유관광 루트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역사관광은 스토리텔링·디지털·야간관광 등 현대적 기법과 결합한 체험형 상품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 자연관광은 단순 경관 감상을 넘어 생태해설, 자연체험 프로그램, 계절별 특화 행사 등을 확대하여 자연관광자원의 매력도를 높이고, 특히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역사관광은 기존 체험 프로그램의 혁신과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참여형 프로그램,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체험 요소 등을 강화
- 음식관광은 지역 대표 먹거리와 연계한 산업관광, 문화·공연자원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관광상품으로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미발굴 관광자원으로서 슬로시티, 농촌관광, 반려동물·웰니스 등 최근 부상하는 신규 콘텐츠에 대한 전략적 개발과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음식문화(전주비빔밥, 순창 고추장 등)는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단순한 미식 체험에서 나아가 전통문화 계승과 학습적 요소를 결합한 산업관광 형태로 전환
- 결론적으로, 기존의 강점 자원 고도화와 동시에 디지털 기반 혁신, 신규 관광트렌드 반영을 통한 복합·체험형 관광자원 육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아가 이를 통해 전북의 풍부한 특화 자원이 지역 균형 발전과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

[그림 3-2] 글로벌 관광콘텐츠 사업계획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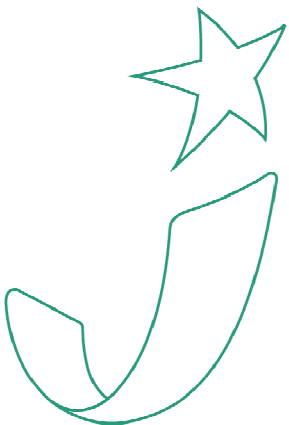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관광콘텐츠 추진방향 및 과제

1. 비전 및 목표
2. 추진방향
3. 추진과제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관광콘텐츠 추진방향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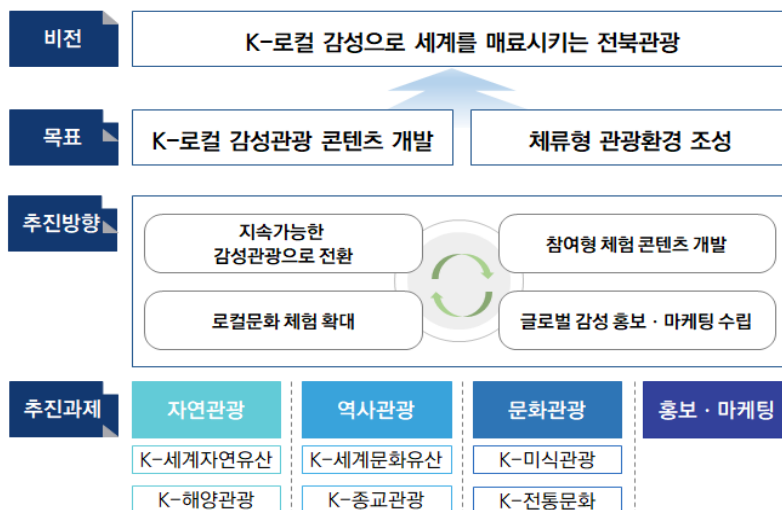
1. 비전 및 목표

- 전북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여 지역 고유의 감성과 문화를 경쟁력으로 삼는 새로운 관광비전을 수립하고자 함. 세계 관광시장은 대량 소비 위주의 패키지여행에서 벗어나 현지의 지역성(Locality)과 몰입형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K-팝과 드라마 등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 미적 감성까지 하나의 종합 문화체험으로 향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 속 전북은 풍부한 전통문화자원과 삶의 이야기를 간직한 지역으로서, 'K-로컬 감성'을 앞세워 글로벌 관광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최적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본 장에서는 전북 관광 비전의 의미와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함

가. 비전의 의미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통과 자연,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로컬 정체성'의 보고(寶庫)임. 예컨대 전주의 한옥마을,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거리, 익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순창의 장류문화와 임실의 치즈마을, 고창의 선사시대 고인돌과 갯벌 등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전북 고유의 삶과 철학, 감성이 깃든 공간들임
- 이러한 지역 자산들은 K-컬처에 익숙한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의 지역문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차별화된 매력 요소가 됨. 한편, 전 세계 관광 패턴은 과거의 단순 관광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 현지 생활을 체험하고 문화적 교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히 높게 나타남

- 또한 전 세계 여행자들은 유명 관광명소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인처럼 먹고 생활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하길 원하고 있음
- K-컬처 붐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관광객들은 한복 입어보기, 한식 만들기, 한국어 배우기, 전통 예술 배우기와 같은 진정성 있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느끼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대량 소비형 관광에서 개인화되고 감성적인 경험 중심의 관광으로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
- 전북이 제시하는 ‘K-로컬 감성’ 비전은 이 같은 흐름에 부응하는 전략의 일환임. ‘K-로컬 감성’이란 전북의 전통문화와 자연, 사람과 음식, 생활양식이 어우러진 지역 정체성을 감각적으로 재해석하여 관광객이 몸소 체화(體化)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이는 관광객이 단순히 전통문화를 눈으로 보기만 하는 관광을 넘어, 스스로 “입고, 먹고, 만들고, 이야기하는” 참여형 관광을 통해 그 지역의 삶과 감성을 느끼도록 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지향함. 다시 말하면, 관광객을 단순한 외부 방문자가 아닌 지역 문화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 현지인의 정서와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임



[그림 4-1] 비전 및 목표

- 이상의 맥락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관광 비전으로 “K-로컬 감성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전북관광”을 선정함. 이 비전 문구에는 전북 고유의 콘텐츠를 세계인의 언어와 감성으로 큐레이션하여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있게 내놓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담겨 있음
 - 관광객에게는 여행자가 아닌 전북 삶의 한 부분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전북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세계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임
- 이러한 비전을 통해 전북은 K-푸드에 이어 K-로컬리티(Locality)의 시대를 열고, 세계인에게 한국의 지역문화와 감성의 깊이를 매력적으로 기대하게 함
- 비전 및 목표에서 제시된 ‘로컬 감성(K-local sensibility)’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 역사문화, 생활양식 등에 담긴 정서적 가치와 분위기를 관광객이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전달하는 콘텐츠화 전략임. 이는 지역의 물리적 자원뿐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기억, 소리, 색, 향, 이야기 등이 지닌 정서적·심미적 요소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재구성하는 접근임
-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관광 비전을 “K-로컬 감성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전북관광”을 도출하였음. 이는 전북만의 콘텐츠를 국내·관광객들의 욕구에 맞게 큐레이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나. 전략 목표 설정

■ 전북형 K-로컬 감성관광 콘텐츠 개발

-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역사유산, 전통문화, 자연생태, 식문화 등의 고유자산을 감성 중심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며,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공연·체험·음식·공예 등 체험형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임
- 예를 들어, 전주의 전통주 만들기 체험, 무형문화재 장인과 함께하는 공예 워크숍, 지

역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 투어 등 지역 고유의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북만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연계시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

- 전북특별자치도는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체험 깊이를 높이는 체류형 관광환경을 조성함. 워케이션(work+vacation)환경 조성, 미식관광 활성화, 야간관광지 조성, 전북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장기 체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광객이 오래 머무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의 체재 시간 연장 및 소비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전북은 2024년 워케이션 거점센터 개소를 통해 2천여 명의 이용객을 유치한 바 있으며, 국악 배우기(남원), 전통 장 담그기(순창), 승마 체험(익산) 등 배움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야행(夜行) 프로그램, 고궁 야간개장 등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체류형 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객 1인당 체재 일수와 지출을 늘리고,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

2. 추진방향

- 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각 추진 방향별로 주요 전략과 예시를 들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들 전략은 전북의 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한 감성 체험형으로 전환하며, 참여형·야간형 콘텐츠 확충으로 일상의 로컬 문화를 관광자원화로 글로벌 감성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지속가능한 감성관광으로 전환

-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을 단순 경관 감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치유 중심의 감성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전환이 필요함. 전북은 이에 부응하여 친환경·지역 특유의 관광모델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이러한 관광콘텐츠 구성은 국제관광 트렌드인 환경을 책임지는 여행(Responsible Travel)에 부합하면서, 관광객들에게는 치유와 쉼의 감성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국제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숙소, 로컬 식재료 식당, 오버투어리즘 제도 등을 도입해 관광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구현함. 이를 통해 전북은 청정 자연과 지역공동체를 지키면서도 관광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구축할 것임

■ 참여형 체험 콘텐츠 개발

- 전북의 역사·문화유산에 참여형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관광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이 필요함. 과거의 문화유산 관람이 일방형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관광객이 직접 이야기에 참여하고 체험하는 양방향 콘텐츠로 제작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전북의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 서사 자원을 활용함. 예컨대 백제 시대의 숨결이 남아있는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서는 미디어아트와 AR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역사체험을 마련함. 전북의 문화유산에 첨단기술과 창의적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감성형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낮과 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입

체적 관광경험을 제공해야 함

■ 로컬문화 체험 확대

- 관광 소비패턴이 ‘명소 관람’에서 ‘현지생활 체험’으로 변화했으므로, 전북의 일상 속 음식·공예·문학·생활양식 등 로컬문화 요소를 감각 중심의 체험 콘텐츠로 전환해야 함
- 전북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자체가 관광객에게 신선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삶과 지혜가 담긴 프로그램을 개발함. 예를 들어, 전주의 전주비빔밥 명인은 관광객과 함께 전통 비빔밥을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순창의 장 담그기 마을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메주를 주고 장을 숙성시키는 발효식품 담그기 체험을 제공함
-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나 MZ세대 여행자들은 특별한 개인 경험을 선호하는데, 전북의 로컬콘텐츠를 DIY형 체험거리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음. 예컨대 한복을 직접 디자인하여 입어보는 체험, 나만의 막걸리 빚기,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공방 체험 등 디자인 감성과 개성 표현 욕구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마련함

■ 글로벌 감성 마케팅 체계 확립

- 전북의 독자적인 관광콘텐츠를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국가별 관광시장 특성과 플랫폼 환경에 맞춘 다층적·감성 중심 홍보·마케팅 전략을 전개해야 함
-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광고를 도입하여 검색어나 소셜미디어 상의 관심사를 분석해 개인별 취향에 맞는 전북 여행콘텐츠를 추천함. 그리고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 전북 관광을 대표하는 키워드와 이미지를 명확히 정립함
- ‘K-로컬 감성’이라는 핵심 콘셉트 하에 BI(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일관된 디자인의 홍보물과 기념품을 통해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함. 이러한 통합 마케팅 체계를 통해 전북의 관광비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와 선호도를 확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국제관광객 유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

3. 추진과제

1) 자연관광 콘텐츠 사업계획

가) K-세계자연유산 : 고창 유네스코 복합유산 관광벨트 구축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고창군에 분포한 세계자연유산(갯벌), 세계문화유산(고인돌), 생물권보전지역(운곡습지)을 연계한 통합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K-자연문화관광의 글로벌 대표지로 육성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 사업위치 : 고창군 일원 (심원면, 아산면, 고창읍 등)

■ 사업 배경

- 고창은 세계자연유산(고창 갯벌), 세계문화유산(고창 고인돌), 생물권보전지역(운곡습지)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복합유산 지역으로서, 생태·역사·문화가 융합된 국제 관광자산으로의 가치가 높음
- 현재 유산별 개별 운영으로 인해 관광동선, 콘텐츠, 스토리텔링 간 연계 부족으로 시너지 창출에 한계
- 생태감수성과 지속가능성, 참여형 체험 중심의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적합한 전북형 K-에코관광 모델로 개발 필요
- 지역 고유 자원을 연계·통합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주도형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 필요

■ 사업 내용

○ 유네스코 복합유산 통합 브랜드 구축

- 고창의 3대 유산을 연계한 통합 BI(Brand Identity) 및 감성 슬로건(예: “시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고창”, “K-ECO × K-HERITAGE: 고창”)을 개발하고, 통합 브랜드로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함. 유산 통합해설 자료와 홍보물을 다국어로 제작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

○ 권역별 특화 콘텐츠 및 관광거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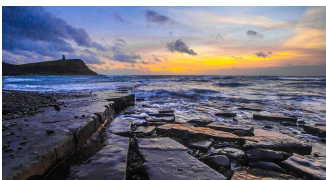
- 고창 갯벌권·고인돌권·운곡습지권별로 특화된 체험 콘텐츠와 거점 시설을 조성
- 갯벌권에는 세계자연유산 탐방센터, 철새 관찰 데크, 조간대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고인돌 권에는 선사문화 테마공원, VR 기반 고인돌 유적 시뮬레이션, 야간 콘서트 등을 운영함. 운곡습지권에는 생물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람사르습지 방문자센터 개선, 습지 생태교실 등을 구축하여 권역별로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

○ 체류형 생태문화 관광환경 조성

- 전통 한옥 등을 활용한 숙박+체험 결합 프로그램(예: 고인돌 명상여행, 운곡습지 자연명상 투어)을 개발하여 체류형 여행을 유도
- 또한 자전거·도보·전기차 등을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탐방로를 정비하고, 지역 생태해설사와 마을 관광가이드, 주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강화
- 글로벌 홍보·마케팅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 다국어 디지털 콘텐츠(AR 해설, 숏폼 영상, 전용 누리집) 제작 및 운영
- 글로벌 OTA(KKday, Klook 등) 상품 입점, 팸투어 운영
- 유네스코 국제 행사, 생태관광 글로벌 캠페인 등과 연계한 홍보전략 수립

■ 해외사례 : 영국 도싯 해안(Jurassic Coast)

- 영국 도싯 해안은 도싯(Dorset)과 이스트데번(East Devon)에 걸쳐 약 155km 길이로 이어지는 해안선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역임
- 공룡 화석과 중생대 지층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지질학의 박물관’으로 불리며, 세계 각국의 관광객과 지질학 연구자들이 찾는 대표적 자연관광지이며, 유산 보존과 관광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
- 도싯 해안 관광을 위해서는 방문자센터와 지질공원 박물관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안 탐방로를 정비하여 관광객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탐방할 수 있도록 안내함. 전문 가이드와 지역민 해설사가 투입되어 지질유산의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디지털 앱을 활용한 자체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됨
-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숙박시설(B&B),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유네스코 지위에 힘입어 도싯 해안은 지역 경제에 연간 수천만 파운드 이상의 관광수입을 창출하며 청년 일자리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시사점
 - 고창의 갯벌·고인돌·습지를 하나의 자연·문화 복합유산권으로 묶어 도싯 해안과 같은 통합 보존·관리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 체험·교육·보존이 연계된 관광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깊이 있는 경험을,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도싯 사례처럼 지역민이 참여하는 해설·숙박·상품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이 극대화될 것임



[그림 4-2] 영국 도싯 해안(Jurassic Coast)

자료 : Pixabay 홈페이지

■ 기대효과

- 유산 통합 효과 : 고창의 세계유산 자산을 복합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체류시간 및 관광 만족도 향상
- 브랜드 경쟁력 제고 : ‘고창=K-세계자연유산’이라는 통합 인지도를 형성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
- 국제관광 경쟁력 확보 : 유네스코 브랜드와 결합한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삼아 홍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지로 성장

나) K-해양관광 : 군산·부안 K-해양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서해안 대표 해양도시인 군산과 부안을 연계하여 해양자원, 문화유산, 해양레저, 섬관광을 통합한 K-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 사업기간 : 2026년 ~ 2033년
- 사업위치 : 군산시·부안군 일원 (고군산군도, 격포·변산 해안권, 위도 등)

■ 사업 배경

- 전북 서해안의 핵심 거점인 군산과 부안 일대는 해안 절경, 다도해 섬, 풍부한 해양생태계, 다양한 해양레저 인프라와 근대문화유산까지 어우러진 복합 해양관광자원 밀집지역임. 천혜의 해양환경과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큼
- 군산은 고군산군도와 선유도, 새만금 방조제 등 섬·해양 관광지와 근대도심이 결합된 특색있는 해양도시이며, 부안은 변산반도국립공원, 채석강, 격포항, 위도 등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두 지역의 해양관광 자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통합 마케팅이나 체류형 콘텐츠가 부족하여 관광객이 분산·일정 체류 후 떠나는 경향이 있었음
- 코로나19 이후 국내외적으로 섬 관광, 해양 치유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한적한 섬과 해안에서 여유를 즐기는 슬로우 투어, 해양 스포츠와 웰니스 결합 여행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서해안의 관광 매력도 재조명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군산·부안 지역을 연계한 융복합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과 친환경 섬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체류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특히 군산은 국제적 해양관광 허브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부안 또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자원으로 국내 관광객이 꾸준하며, 향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확충이 요구됨

■ 사업 내용

○ 해양자원 활용 융복합 콘텐츠 개발

- 군산 고군산군도부터 부안 격포권까지 서해안 해양문화·생태 관광축으로 설정하고 해당 권역에 해양전시관, 해양생태체험장, 해양설화 체험코스 등 스토리가 있는 해양관광 융합 콘텐츠를 개발
- 군산의 근대역사문화(시간여행마을 등)와 선유도·무녀도 등 섬마을의 생활사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과 문화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

○ 해양레저 및 친환경 체험관광 고도화

- 요트 투어, 카약·SUP, 바다낚시, 해상 캠핑 등 기존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종류를 다양화
- 부안 위도와 군산 선유도 일대에 해양치유(Thalasso Therapy)와 연계한 슬로아일랜드 힐링 코스를 운영하여 웰니스 관광 수요를 흡수함. 프로그램 운영 시 환경보호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지향

○ 섬·연안권역 연계관광 체계 확립

- 군산 연안(고군산군도)과 부안 연안(위도·격포·채석강)을 연결하는 해상 셔틀 및 소형 크루즈를 도입하여 섬-육지 간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섬들을 묶는 순환형 관광루트를 개발
- 연안 탐방로와 자전거길, 해상 카페리 노선을 연계한 체류형 해양탐방 코스를 설계하여 관광객이 여러 지역에 걸쳐 머무르도록 유도

○ 글로벌 마케팅 및 지역공동체 기반 확산

- K-해양문화 브랜드(BI) 개발, 글로벌 SNS·OTA 마케팅 추진
- 해양문화해설사, 어촌체험마을, 수산물 연계 푸드투어 등 지역주도형 관광 콘텐츠 운영

■ 해외사례 :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Lofoten Islands)

- 노르웨이 북부 해안에 위치한 로포텐 제도는 빙하가 만든 기암절벽의 피오르드 지형, 전통 어촌문화, 풍부한 해양생태를 한데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클러스터임
- 연간 약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북유럽 대표 관광지로서(2017년 기준 약 100만 명 방문), 자연경관 감상부터 레저·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달함. 이 지역은 생태 보존을 최우선 전제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짐. 어촌 공동체와 협력하여 레저관광을 운영하는데, 낚시 체험, 오로라 관찰 투어, 해양박물관 관람, 지역 해산물 미식체험 등 현지 생활문화와 연계된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
- 관광객들은 겨울철 오로라와 한밤중의 태양을 감상하고, 여름철에는 섬마을 축제와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 계절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음
- 로포텐은 지역 내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여 관광객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는 지역임. 섬들을 잇는 다리와 페리, 크루즈 항로가 잘 발달해 있어 관광객이 여러 섬을 순환하며 여행할 수 있음. 또한 섬 곳곳에 전통 어부 오두막을 개조한 숙소(rorbuer)와 해산물 레스토랑, 박물관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긴 시간 체류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음
- 시사점
 - 군산시와 부안군 관광지도 노르웨이 로포텐 사례처럼 섬 문화+생태+레저를 통합한 체류형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섬과 연안을 모두 아우르는 순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어촌마을 민박과 해양 글램핑 등을 활성화하면 체류 증대에 기여할 것임



[그림 4-3]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

자료 : Pixabay 홈페이지

■ 기대효과

- K-해양문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 : 한국형 섬문화, 어촌라이프, 해양자연이 결합된 독창적 해양관광 콘텐츠로 글로벌 인지도 확보
-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기반 강화 : 어촌 주민, 청년창업자, 로컬 크리에이터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

2) 역사관광 콘텐츠 사업계획

가) K-세계문화유산 : 익산 백제왕도 세계문화유산 융복합 관광도시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쌍릉 등)를 중심으로, 역사문화·디지털·체험 콘텐츠를 융합한 글로벌 K-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 사업기간 : 2026년 ~ 2035년
- 사업위치 : 익산시 일원 (금마면, 왕궁면 등)

■ 사업 배경

- 익산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핵심 지역으로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유적, 쌍릉 등 고대 백제 왕도의 유산을 품고 있음
- 백제의 후기 가야 수도였던 익산은 고대 동아시아 국제도시로서 역사적 위상이 높았지만, 현재 관광콘텐츠 다양성 부족과 몰입형 콘텐츠의 부족으로 방문객들의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국내외 MZ세대 및 가족 관광객이 선호하는 디지털·체험형 콘텐츠가 미흡하여 젊은 층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역사유산 위주의 관람에 머물러 방문객 체험 만족도와 체류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임. 유적 보존 중심의 정적 관람에서 스토리텔링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동감 있는 역사관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글로벌 역사문화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백제왕도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국내·외 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백제유산의 브랜드화는 익산을 세계적 역사관광지로 도약시킬 잠재력이 있는 전북의 대표 관광상품임

■ 사업 내용

○ 세계유산의 디지털·스토리텔링화

- 백제왕도 역사 이야기를 현대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첨단 ICT기술과 스토리텔링을 접목
- 미륵사지 유적지에 AR 글라스 투어를 도입하여 옛 사원의 웅장함을 가상복원하고, 왕궁리유적에는 VR 복원관을 설치하여 방문객이 백제 왕궁의 옛 모습을 몰입감 있게 체험하도록 함
- 주요 유적 주변에서 야간 미디어파사드 쇼를 상설화하여 백제의 미학과 서사를 빛과 소리로 즐길 수 있게 하고, 관광 비수기 밤시간대의 새로운 콘텐츠로 활용

○ 참여형 역사체험 콘텐츠 개발

- 가족 단위와 청년층을 위한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함. 예를 들어 백제시대 의상을 입어보는 '백제 복식 체험', 어린이를 위한 미륵사지 고고학 발굴 체험 프로그램, 백제 무예 배우기, 전통 공예 만들기 등 오감으로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
- 해당 체험행사는 주말 정례화하거나 축제 형태로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일정에 맞춰 방문도록 유도

○ 체류형 역사문화 관광인프라 확충

- 세계유산 권역 내에 역사문화공원, 전통가옥 숙박촌, 역사 테마 카페거리 등을 조성하여 머무르며 즐기는 관광환경을 만듦
- 익산역-유적지 간 전동 투어버스나 순환열차 노선 개설 및 통합 관람패스를 개발해 방문객 편의를 높임

○ 글로벌 캠페인 및 국제교류 강화

- 'Back to Baekje'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하여 해외시장에 백제역사유산을 홍보
- OTA(온라인 여행사)와 SNS를 통해 다국어 콘텐츠를 확산하고, 품질 높은 외국어 해설 투어 프로그램을 상품화하여 개별 해외여행객(FIT)의 유치를 적극 도모

■ 해외사례 : 프랑스 폰텐블로 궁전(Fontainebleau Palace)

- 프랑스 파리 교외에 위치한 폰텐블로 궁전은 16세기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과 나폴레옹 황제 시대의 궁정 문화를 간직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임
- 폰텐블로 궁전은 단순 관람에 머물지 않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음. 궁전 내부에서는 왕실생활을 재현한 방을 꾸며 관람객이 당대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황제 연회 장면을 배우들이 연출하는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음. 어린이를 위해 궁전 정원에서 보물찾기 미션 투어를 제공하고, AR 앱을 통해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디지털 스캐빈저 헌트도 인기 콘텐츠임
- 또한 궁전 외부 정원과 마을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의 장터, 전통 음식 시연, 승마 체험 등 지역문화와 연계한 이벤트가 열려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그 결과, 폰텐블로는 한때 파리 근교의 부속 관광지 정도로 여겨졌던 위상을 벗어나 역사관광의 대표지역으로 성장함
- 시사점
 - 폰텐블로의 사례처럼 익산의 경우에도 다감각적·참여형 콘텐츠를 도입함으로써 관광객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음. 예를 들어 백제 왕궁에서의 하루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나, 백제 무사 캐릭터와 함께하는 이모험 투어 등을 개발하면 가족단위 관광객을 모객 할 수 있음
 - 또한 지역 예술·공예·음식과 결합한 축제를 열어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관광으로 발전시킨다면 익산이 '살아있는 백제왕도'로서 국내외에 각인될 수 있을 것임



[그림 4-4] 프랑스 폰텐블로 궁전

자료 : Pixabay 홈페이지

■ 기대효과

- 유산의 몰입형 관광자원화 :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세계유산의 감성적 몰입도와 해설의 질 제고
- 글로벌 유산관광 브랜드 구축 : ‘Back to Baekje’ 등 브랜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OTA·SNS를 통한 외국인 유치 및 이미지 확산
- 중장기 국제관광시장 대응력 확보 : 백제세계유산 중심의 K-역사문화관광권 조성을 통해 외국인 FIT 수요 적극 대응

나) K-종교관광 : 전북 K-종교관광 융복합 거점도시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전북이 보유한 대표 불교 유적(김제 금산사, 완주 송광사, 남원 실상사 등)과 가톨릭 성지(전주 치명자산, 초남이 성지)를 연계하여 종교문화, 순례, 치유, 체험이 융합된 글로벌 K-종교문화관광 대표 거점으로 육성
- 사업기간 : 2026년 ~ 2032년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 배경

- 전북은 한국 불교문화의 중심지(금산사 등 호남 불교의 본산)이자 한국 천주교 초기의 순교성지가 밀집한 가톨릭 성지권을 모두 보유한 지역으로, 종교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함
- 금산사·송광사 등은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사찰이며, 치명자산 성지는 한국 가톨릭 최초의 순교자들이 잠든 성역으로 의미가 큼. 이러한 불교·가톨릭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 종교적 치유와 문화관광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콘텐츠 개발이 가능함
- 현재까지는 불교와 가톨릭 유산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해설 콘텐츠나 순례 인프라도 충분치 않아, 그 잠재력에 비해 고부가가치 관광자원화가 미흡하였음. 특히 외국인 순례자가 선호할 만한 장기 순례 코스, 명상 체험, 종교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웰니스 관광과 마음치유 여행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추세에서, 전북의 종교유산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은 매우 유망함. 마침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한국 천주교 성지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흐름을 전북이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불교·가톨릭·치유 자원을 통합한 K-종교 관광 콘텐츠와 국제 순례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됨

■ 사업 내용

- 불교·가톨릭 복합 순례루트 및 스토리 개발
 - 전북의 불교와 가톨릭 성지를 하나로 잇는 통합 순례 코스를 개발함. 불교권에서는 금산사·송광사·실상사를 연결한 백제·신라불교 순례루트를 조성하고 (금산사의 미륵신앙, 송광사의 선(禪) 사상, 실상사의 교학 전통 등 각 사찰의 정신적 가치를 연계 스토리텔링), 가톨릭권에서는 전주 치명자산 성지에서 완주 초남이 성지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길' 순례 코스를 구축함
 - 각 코스마다 순례자의 여정을 담은 감성적 해설 스토리를 개발하고, 다국어 오디오 가이드와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이야기가 있는 순례여행을 실현함
- 종교체험 및 치유·명상 콘텐츠 고도화
 - 불교의 전통문화와 명상 수련, 가톨릭의 예배와 치유활동을 관광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예를 들어 금산사·실상사 등 사찰에서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업그레이드하여 선사(禪師)와의 대화, 다도, 야간 숲속 참선 등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함
 - 한편 치명자산 성지 일대에는 '치명자산 힐링숲'을 조성하여 묵상 산책로, 침묵의 휴식처 등을 마련하고 가톨릭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치유 명상, 성가음악 힐링세션 등을 개최함. 또한 요가, 필라테스 등 현대적인 웰니스 요소를 가미한 종교+치유 결합 프로그램으로 젊은 층의 관심을 높임
- 체류형 종교문화 관광기반 확충
 - 순례자들이 불편함 없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인프라와 서비스를 보강함. 주요 거점에 순례자 전용 숙소(예: 게스트하우스형 순례자 하우스)를 마련하고, 사찰음식·성지 주변 향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식당, 휴식 카페 등을 조성함
 - 순례 인증 여권 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코스를 완주한 순례자에게 인증서와 기념 배지를 수여하고, 전북 순례여권으로 참여할 경우 일부 숙소나 교통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또한 종교문화 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불교·가톨릭 분야별 전문 해설사를 배치하고, 자원봉사 통역 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 수용태세를 강화함

○ 국제교류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 전북은 보드가야, 바티칸, 루르드 등 해외 주요 종교관광지와 자매결연 및 네트워크를 맺고, 국제 불교 청년 캠프, 세계 가톨릭 청년 순례 주간 등 행사 유치 및 공동 개최해 전북 종교관광의 위상을 알림
- 온라인에서는 글로벌 순례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전북 순례여행 후기 공유, Q&A, 종교 지도자의 메시지 등을 제공함. 또한 WYD 2027 서울 대회와 연계한 특별 순례코스를 개발하여, 대회에 참석하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전북을 방문하는 홍보전략을 구사함

■ 해외사례 : 인도 보드가야(Bodh Gaya) 불교 성지

- 인도 비하르주에 위치한 보드가야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불교 성지로서 불교 신자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곳 중 하나임. 마하보디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00만 명에 이르는 순례자와 관광객이 방문함
- 아시아 각국의 불교도, 서구의 명상 수련자들이 다수 방문하며, 세계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음. 또한, 보드가야는 전통적인 불교 성지이자 현대적 명상문화와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장소임
- 지역에는 수많은 나라의 불교사원이 있어 순례객들이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또한 연중 국제명상캠프, 세계불교도대회 등 각종 글로벌 행사가 개최되어 종교 관광과 치유관광이 발전하고 있음
- 이 지역의 운영은 순례자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순례자의 편의를 고려해 명상센터, 도서관, 박물관, 채식식당 등이 동선에 따라 잘 갖춰져 있으며, 주민들도 안내, 통역, 숙소 관리 등에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참여형 형태로 보드가야는 영적인 충전과 문화체험, 지역경제 발전이 조화를 이룬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그림 4-5] 인도 보드가야 불교성지

자료 : Pexel 홈페이지

○ 시사점

- 전북의 금산사, 송광사, 치명자산 성지 등도 인도의 보드가야처럼 세계적인 명상·순례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전북 불교권 사찰들이 해외 불교대학·명상단체와 협력하여 국제 명상캠프를 개최하고, 가톨릭 성지에서는 교파와 국적을 초월한 다국적 순례 페스티벌을 열어 종교와 문화를 나누는 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또한 보드가야처럼 여러 나라의 언어로 안내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공동체가 숙박·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면 전북이 종교관광의 대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K-종교문화유산의 융합 관광자원화 : 불교와 가톨릭의 역사·정신·건축·명상 자산을 연계한 스토리 중심 관광콘텐츠 확보
- 글로벌 순례관광 거점 구축 : 세계청년대회(WYD) 연계 홍보 및 글로벌 OTA·SNS 마케팅을 통한 청년 순례자 유치 확대
- 전북형 치유·명상관광 국제화 선도 : 종교관광+웰니스+역사문화 융합 콘텐츠로 외국인 FIT 및 MZ세대 수요 대응력 강화

3)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계획

가) K-미식관광 : 전북 미식관광 특화도시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한식문화 중심지인 전주와 전통 장류의 본고장 순창을 연계하여, 미식·장류·식품문화 콘텐츠를 통합한 글로벌 K-푸드 관광거점으로 육성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 사업위치 : 전주시(한옥마을, 남부시장 일원), 순창군(장류단지, 고추장마을, 발효테마파크 등)

■ 사업 배경

- 전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미식 도시)로 지정된 대한민국 대표 한식 관광지임. 비빔밥·한정식·전통주·길거리음식 등 전주의 고유한 식문화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
- 특히 전주한옥마을은 음식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2023년 방문객이 1,536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가장 큰 방문 목적도 음식(43.7%)으로 조사될 만큼 미식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음
- 순창은 고추장·된장·간장 등 전통 장류의 원산지이자, 장류산업과 관광이 결합된 발효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음. 순창 장류단지와 발효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장 담그기 체험, 장아찌 만들기 등 체험관광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발효식품 웰니스 트렌드와도 부합해 국제적 관심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최근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식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방한 외국인 대상 설문에서 한국음식 체험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 중 하나로 꼽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미식관광이 문화체험 관광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전주와 순창의 미식자원은 주로 국내 관광객 위주로 소비되고 있고, 외국인 맞춤형 프로그램과 글로벌 마케팅은 미흡한 실정임. 전북의 풍부한 음식자원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K-미식관광 콘텐츠로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브랜드 제고를 이를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전통 한식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 전주의 한식(韓食)과 순창의 장류가 지닌 전통성과 가치를 관광 스토리로 재구성함. 전주비빔밥 유래담, 전통 한정식의 철학, 순창 고추장의 역사 등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발굴하여 콘텐츠로 제작함
 - 예를 들어 전주한옥마을 ‘음식창조타운’ 활용해 한식의 조리법과 식사예절을 체험하는 전시를 운영하고, 순창 고추장마을에는 장담그는 계절행사(봄 술빚기, 가을 장가르기 등)를 미식 프로그램으로 연계함.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오감 체험으로 구현하여 관광객의 이해와 흥미를 높임
- 장류산업 연계 발효식품 체험관광 상품 개발
 - 순창 장류단지과 연계한 발효식품 체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관광객이 직접 메주를 주고 장을 담가보는 체험을 상품화하고, 전통 장독대에서 숙성 중인 장을 맛볼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함
 - 장류단지에 소재하는 발효테마파크에 미생물과 건강을 주제로 한 사이언스 투어를 도입하고, 전통 장과 현대 식품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전시를 확대함. 이를 통해 순창을 살아있는 발효 박물관이자 교육 관광 일번지로 발전시킴
- 미식 테마의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 전주와 순창에 미식여행 특화 숙소와 편의를 확충함.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스테이 중 일부를 미식 콘셉트로 꾸며 전통 조반(朝飯)을 제공하고, 순창 고추장마을에도 전통민박을 개선하여 장아찌·장국으로 아침상을 차려내는 체험을 마련함
 - 또한 전주 국제영화제 등 문화 행사와 연계한 미식 투어 패스를 출시하여 문화예술 관람과 음식 체험을 결합한 상품을 선보임

○ 글로벌 미식관광 브랜드 및 마케팅 강화

- “K-Food in Jeonbuk”과 같은 통합 슬로건으로 전북 미식관광을 해외에 홍보함.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전북 미식투어 영상을 제작·확산하고, 숏폼 콘텐츠 챌린지(예: #JeonbukBibimbap 챌린지)를 진행하여 온라인 입소문을 유도함
- 또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미식분야) 회의 등을 전주에 유치하고, 순창의 장류산업 수출특구 지위를 활용해 국제 미식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북의 위상을 높임. 해외 주요 도시에서 K-푸드 팝업 이벤트를 열어 전북의 식재료와 요리를 소개하고, 현지 여행사와 협력한 미식관광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

■ 해외사례 : 일본 오사카 & 교토 식문화 관광 모델

- 일본의 오사카시는 다양하고 풍부한 음식문화로 유명하여 흔히 “일본의 부엌”이라 불리고 있음.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등 서민 거리 음식부터 격조 높은 가이세키 요리,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까지 음식 스펙트럼이 넓어 음식관광의 중심도시임
- 오사카 시내 도톤보리 거리의 음식 테마거리, 구로몬 시장의 신선식품 시식투어, 요리 학교의 외국인 대상 쿠킹클래스 운영 등 관광객이 오사카 음식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음식에 재미와 풍류를 즐기는 오사카 특유의 ‘쿠이다오레(먹다 지칠 때까지 먹는 다)’ 문화가 관광마케팅에 활용되어 전 세계 식도락 여행자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
- 또한, 일본 교토부는 전통문화의 도시답게 우아한 음식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사례임. 교토 중심부의 니시키 시장은 400여년 역사를 지닌 전통 식재료 시장으로, 약 130여 개의 점포에 신선한 채소, 해산물, 절임류 등을 판매하며 현지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이곳은 ‘교토의 부엌’이라 불리며 방문객이 교토 고유의 식재료와 조리도구, 전통 간식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명소임. 또한 교토는 다도(茶道), 정진요리(사찰음식) 등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 상품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교토의 미식을 문화와 함께 소개하고 있음

- 고급 료칸 숙소에서는 제철 교토요리와 마치야(伝統町家)를 개조한 레스토랑에서는 전통 분위기 속 가이세키를 맛보는 등 미식과 전통공간의 융합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그림 4-6] 도톤보리 음식테마거리·구로몬 시장·교토 니시키 시장

자료 : 1. Pixabay 홈페이지
2. Pexel 홈페이지

○ 시사점

- 오사카와 교토의 사례는 전북이 미식관광을 특화하는 데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음. 첫째, 전북은 전주의 거리음식부터 순창의 장류까지 폭넓은 음식자원을 활용해 남녀노소 즐기는 미식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음. 둘째, 전통시장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현지 밀착형 미식체험 제공, 한옥·한식당 등의 전통공간 관광 자원화를 통해 음식에 문화적 깊이를 더해야 함. 마지막으로, 미식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음식 자체에 이야기를 입히는 전략이 중요함

■ 기대효과

- 전북형 K-미식관광 콘텐츠 육성 : 전통 식문화, 장류산업, 체험관광을 융합한 전북 대표 미식자원 확보 및 차별화
- 글로벌 미식관광 브랜드화 실현 : “K-Food in Jeonbuk” 브랜드 기반 글로벌 콘텐츠 확산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 식품·관광 산업 간 연계 시너지 창출 : 장류 제조, 농산물 생산, 숙박·외식 등 관광 연계 로컬 경제 활성화
- 지속가능한 지역 식문화 생태계 구축 : 지역주민, 청년창업자, 식문화 전문가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식관광 거버넌스 형성

나) K-전통문화 : 전북 K-전통문화 대표축제 글로벌 관광자원화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김제지평선축제(세계청년농업축제), 남원춘향제(전통연애담 축제) 등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를 세계인이 참여하는 K-전통문화 관광축제로 리디자인하여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 사업위치 : 김제시, 남원시 등 도내 주요 축제 개최지 일원

■ 사업 배경

- 전북에는 김제지평선축제, 남원춘향제, 무주반딧불축제, 임실N치즈축제 등 사계절 내내 개성 있는 지역축제가 열림. 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체험, 춘향제는 고전문화를 주제로 오랜 전통과 인지도를 갖춰 문화관광축제로 여러 번 선정돼 우수성을 인정받았음
- 그러나 이들 축제가 지닌 브랜드 가치의 글로벌화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프라 부족, 홍보의 한계, 축제 간 연계 부재 등으로 전북 축제들이 세계적 콘텐츠로 도약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 최근 관광시장에서 이벤트성 축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축제가 그 지역을 찾는 주요 목적으로 부상하고 있음. 해외 사례를 보면 브라질 리우 카니발, 독일 옥토버페스트, 일본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 등은 자체가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기능하며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음
- 예컨대 일본 아오모리현의 네부타 축제는 매년 2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세계적인 여름축제로, 다양한 외국인 참가 프로그램과 온라인 중계 등으로 글로벌 전통문화 콘텐츠로 성공한 사례임
- 전북의 축제들 역시 고유한 전통문화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콘텐츠를 재창조하고 축제간 연계를 강화한다면 글로벌 관광축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함

- 따라서 전북의 대표 축제를 선정하여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중심 축제형 콘텐츠로 전환하고, 축제기간에 한정된 이벤트를 상시적인 관광자원으로 연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전북을 ‘축제와 전통문화의 도시’로 브랜딩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대표축제 리더디자인 및 스토리텔링 고도화
 - 김제지평선축제와 남원 춘향제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각 축제의 전통문화 요소를 글로벌 감성에 맞게 재해석함. 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 축제라는 강점을 살려 다감각 체험형 프로그램을 추가함. 춘향제는 고전 “춘향전”의 사랑 이야기를 K-로맨스 콘셉트로 부각시킴. 리더디자인을 통해 각 축제가 지닌 서사와 콘셉트가 국내외 MZ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도록 함
- 연계형 축제 관광코스 및 상설화 추진
 - 전북의 주요 축제들을 공간적·시간적으로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함. 예를 들어 지평선축제(가을)와 춘향제(봄)를 잇는 전북 전통문화 축제 투어 패키지를 만들어 1년 주기로 방문을 유도함
 - 전북 14개 시군의 대표축제를 하나로 묶어, 연중 축제가 끊이지 않는 축제 로드맵을 구축함. 축제와 축제 사이 공백기에는 각 축제의 핵심 콘텐츠를 소규모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예: 남원 광한루원 상설 춘향 퍼포먼스,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 상설 체험장 등) 연중 즐길 거리로 발전시킴
 - 이렇게 축제 콘텐츠를 상시 관광자원화하면 특정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축제 인프라의 활용도도 높아짐
- 외국인 참여 및 홍보 강화
 - 축제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늘림. 지평선축제에서는 외국인 전통농경 경기(모심기 대회 등)를 개최하고, 춘향제에서는 ‘외국인 춘향 선발’ 부문을 신설하여 글로벌 관심을 끄
 - 축제기간 다국어 안내소와 통역 봉사자를 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 전용 여행상품(인근 숙소+교통이 포함된 축제패스)을 판매하여 편의성을 제고함. 아울러 축제 현장을 실시간으로 유튜브 등 온라인 중계하고, VR 영상으로 제작하여 해외에서도 가상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온라인상의 파급효과를 높임
 - 해외 자매도시나 문화원 등을 통해 축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K-팝이나 한류 콘텐츠와 결합한 홍보 (예: K-팝 커버댄스 경연을 축제에 포함) 전략을 추진

■ 해외사례 : 일본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

- 일본 아오모리 현의 네부타 축제는 매년 8월 초에 열리는 대규모 여름축제로, 수 세기 전통의 등불 퍼레이드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사례임. 매해 2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아오모리시를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일본 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마츠리(祭り) 중 하나임
- 축제의 볼거리인 거대한 등불(네부타)은 일본의 전설 속 무사나 귀신 등을 형상화한 등 장식으로, 지역 장인들이 수개월에 걸쳐 한지와 대나무로 정교하게 제작함. 수십 명이 끄는 등불 수레 주위로 수백 명의 하네토(춤꾼)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라세라, 라세라” 구호를 외치며 춤을 추며, 누구나 현지에서 의상을 빌려 하네토로 참여할 수 있어 관광객도 함께 춤의 대열에 끼는 개방형 축제로 유명함
-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철저한 글로벌 홍보와 인프라임. 축제 운영위원회는 공식 영어 웹사이트와 예매 시스템을 갖추고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 축제 기간에는 영어·중국어 통역 안내원이 배치되고, 외국인을 위한 관람석과 체험 프로그램(등불 제작 워크숍 등)도 제공됨
- 또한 일본 NHK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축제 퍼레이드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여 현장에 오지 못한 이들도 즐길 수 있게 함. 축제 후에는 네부타등불 일부를 해외 도시 축제에 출품하거나 순회 전시하여 국제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네부타 브랜드의 세계화를 이루었음
- 시사점
 - 네부타 축제 사례는 전북의 지역축제들을 스토리텔링 중심의 축제형 콘텐츠로 통합하고 세계시장에 선보이는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줌. 전북의 각 축제도 각기 고유한 이야기(농경, 사랑, 자연 등)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현대적 상상력을 더해 대형 퍼포먼스나 행렬(parade)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평선축제에 버 이삭을 형상화한 대형 창작등불 퍼레이드를 도입하거나 춘향제에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를 퍼레이드 차량으로 재현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음. 아울러 전북의 축제를 한데 묶어 “전북 전통문화 페스티벌”과 같은 통합 브랜드로 해외에 홍보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이를 통해 전북은 다채로운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글로벌 축제의 고장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7] 일본 아모리 네부타축제

자료 : Unsplash 홈페이지

■ 기대효과

- K-전통문화 관광자원 확장 및 대표 콘텐츠화 : 지평선축제, 춘향제 등 지역축제를 글로벌 콘텐츠로 리디자인하여 K-전통문화 대표관광지로 육성
- 전통과 감성 중심의 글로벌 관광 전략 실현 : 고전문학, 농경유산, 전통의례 등 전북 고유문화자산을 세계인이 공감하는 감성콘텐츠로 전환

4) 홍보·마케팅 사업계획

가) 전북 K-관광 콘텐츠 통합 홍보·마케팅 전략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전북이 보유한 자연·역사·문화 관광콘텐츠를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디지털·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 배경

- 전북은 지리산·내장산·고창갯벌 등 자연관광 자원, 익산·정읍·남원 중심의 역사관광 자원, 전주·남원·고창의 문화관광 자원을 고루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각각의 자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홍보되어, 관광객에게 전달되는 인지도가 단편적이며 브랜드 연계성과 시너지 부족
-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아우르는 주제별 통합 홍보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 기반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강화가 시급
- 특히 외국인 개별여행객(FIT), MZ세대 관광객, 체류형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감성형·참여형 콘텐츠 마케팅이 요구됨

■ 사업 내용

- 관광자원 통합 브랜드 전략 수립
 - 자연·역사·문화 분야 핵심 콘텐츠를 K-관광 대표 브랜드로 통합(예: “Feel Jeonbuk”, “Live the Heritage” 등)
 - 콘텐츠 유형별 브랜딩 키워드 개발 및 지역관광 BI와 연계한 시각 아이덴티티 강화

○ 국가별 전략

- 일본 : 한옥마을, 명상, 힐링 콘텐츠 중심으로 감성적 이미지 전달,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블로그 등을 통한 SNS 콘텐츠 운영, 일본어 해설 앱 및 여행지도 제작
- 중국 : K-미식(전주비빔밥, 순창장류 등) 및 전통문화 체험 중심 콘텐츠 개발, 위챗,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 플랫폼 중심 마케팅 전개, 왕홍 및 인플루언서 활용 온라인 캠페인 실시
- 동남아(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 드라마 촬영지, 야시장, 전통의상 체험 콘텐츠 집중 노출, 틱톡, 인스타 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 중심 확산, SNS 챌린지형 콘텐츠 운영 및 인플루언서 여행기 공유
- 미국·유럽 : 지속가능 관광, 웰니스, 전통문화 중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Feel Korea in Jeonbuk' 캠페인 등 감성 캠페인 전개, 관광저널리스트·여행작가 협업 콘텐츠 활용

○ 연령별 전략

- Z세대 (18~25세) : 감성·트렌디 콘텐츠(브이로그, 포토스팟 등) 중심, 틱톡,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활용, 체험형 콘텐츠(한복, 디저트, 트렌디 맛집) 강화
- MZ세대 (26~39세) : 취향 기반 코스형 콘텐츠(미식 + 숙소 + 문화), 지역 브랜딩 콘텐츠 제작 (e.g. “슬로우 트래블 in 전주”), 웹사이트·앱의 모바일 최적화 및 예약 연계
- 중장년층 (40~59세) : 전통문화, 역사자원 중심 고품격 콘텐츠 제공, 맞춤형 투어패키지 및 전문 가이드 콘텐츠 병행, 단체·부부여행객 대상 테마형 콘텐츠 기획
- 노년층 (60세 이상) : 고령친화 관광코스(전통시장, 사찰, 온천 등) 구성, 이동 편의 중심 콘텐츠(교통·숙소 정보) 강조, 종교·치유 중심 관광 상품 개발

○ 디지털 기반 홍보·참여 시스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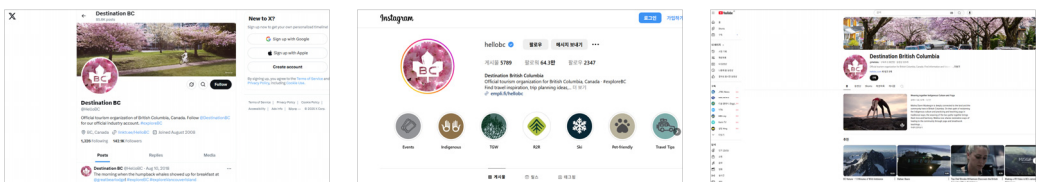
- 전북관광 다국어 누리집 고도화, AI 챗봇 관광안내, 디지털여권 연계 스탬프투어 개발
- 전북 대표 관광지별 VR·AR 체험 콘텐츠 제작 및 메타버스 플랫폼 연계

○ 글로벌 플랫폼 및 OTA 연계 마케팅

- 트립닷컴, 클룩, KKday 등 주요 OTA와 연계한 전북 관광상품 상시 노출 강화
- 외국인 인플루언서 초청 투어, 글로벌 관광박람회 참가 및 K-컬처 행사와 연계된 교차 마케팅 실행

■ 해외사례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 관광마케팅 전략

- B.C.주는 로키산맥·밴쿠버·빅토리아 등 관광자원을 통합 브랜드(Hello BC)로 운영하며, 지역별 관광 특색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콘텐츠 마케팅 사례
 - 자연, 역사, 원주민문화, 도시문화 등 이질적 자원을 감성 중심 캠페인으로 통합해 외국인 체류객 유치
- 시사점
 - 전북 역시 자연-역사-문화를 통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하나의 브랜드 아래 홍보하는 전략이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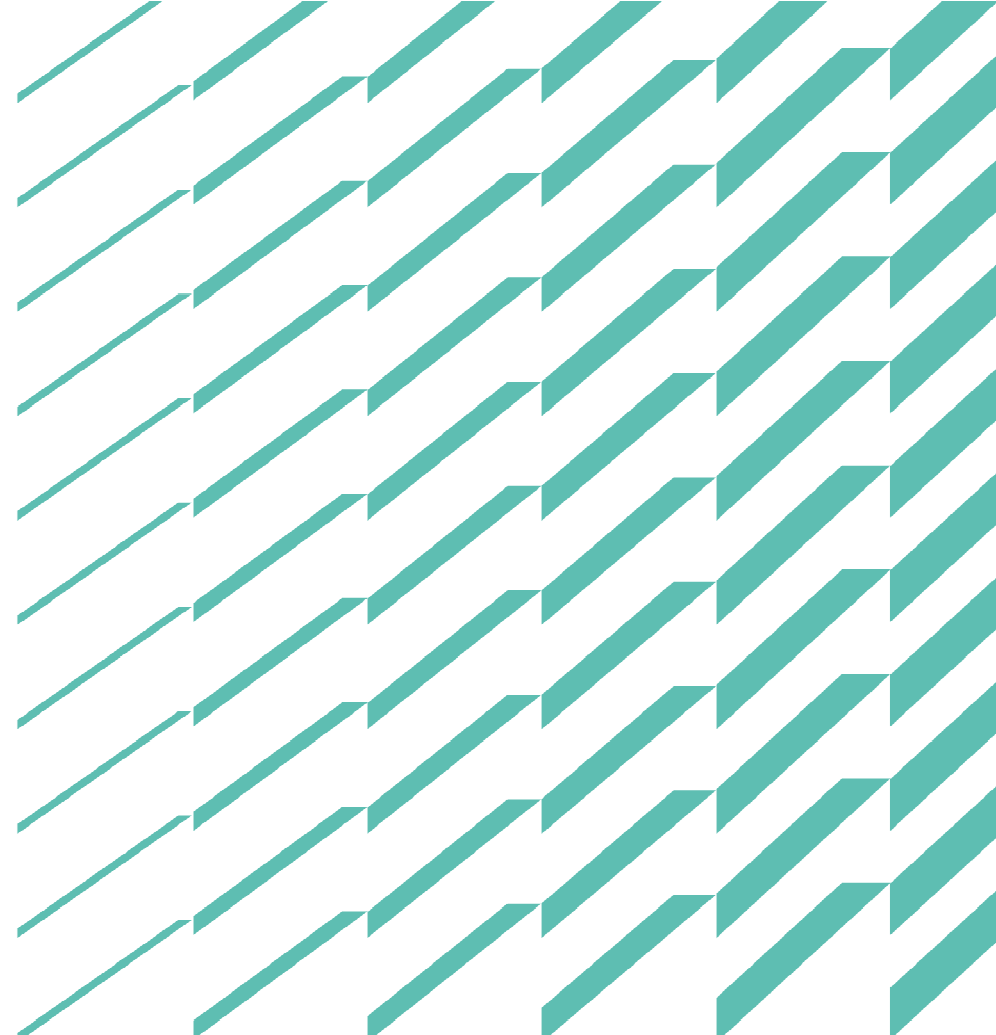


[그림 4-8]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 통합 브랜드(Hello BC) 공식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자료 : 1. Instagram 계정 @Hellobc, Destination BC
 2. Twitter 계정 @HelloBC, Destination British Columbia
 3. YouTube 계정 @HelloBC 채널, (Destination BC)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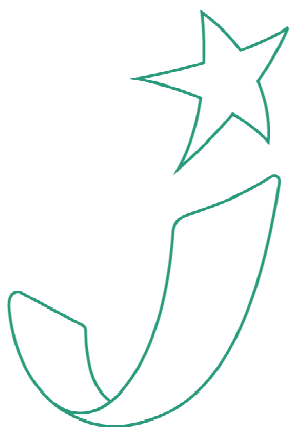
- 전북 K-관광 통합브랜드 구축 : 자연·역사·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통합 콘텐츠와 브랜딩 체계를 통해 전북관광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 가치 상승
- 글로벌 타깃 맞춤 마케팅 실현 : 국가별 관심 콘텐츠를 반영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공으로 외국인 유입 및 지역 인지도 확대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통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스포츠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도 이를 국제관광 수요와 연결하는 전략이 부족하여 글로벌 관광시장 진출에 제약이 있음. 특히 그간의 관광정책은 내국인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외국인 대상 인바운드 관광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글로벌 수요에 부응할 지역의 전략적 역량도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음
- 이에 따라 전북의 고유자원을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연구임.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K-컬처 산업거점 전략을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계하고, 지역특화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임
- 이를 위해 전북 관광산업의 현황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외 관광 트렌드 및 정책동향을 검토하였으며, 관광자원 실태분석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비전 및 추진과제를 도출함

나. 지역특화관광의 정책적 배경과 글로벌 트렌드

- 지역특화관광 개념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부가가치화하려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화(特化)”란 단순히 지역자원의 양이 많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의 질적 우수성과 특별함을 의미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유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접근방식임

- 다시 말해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자연·역사 자원에 기반하여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창출하고 브랜드화하는 것이 지역특화관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광수요의 다변화와 소비자 맞춤 상품개발, 관광서비스의 질 제고, 공공부문의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 관광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앤데미크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제관광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음. UNWTO와 OECD에 따르면 2023년 국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의 89% 수준까지 반등하여 약 13억 명에 달했고, 2024년 말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을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관광 트렌드 또한 이러한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워케이션(workation)과 같은 재택근무 기반여행이 확산되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찾으려는 수요가 늘었고, 이를 지역 활성화와 연결하려는 현상이 나타났음. 또한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힐링을 중시하는 여행 경향이 두드러져, 여행 활동과 음식 소비 전반에 걸쳐 건강과 치유를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지속 성장하고 있음

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현황 : 자연·역사문화·체험자원을 중심으로

-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연·역사문화·체험 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일부 자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 만족도로 평가될 만큼 경쟁력이 높음
 - 동부권(무주·진안·장수 등)은 국립공원과 휴양림 등 자연치유 관광자원이 강점이고, 서부권(군산·부안·고창)은 바다와 갯벌, 근대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콘텐츠가 강점임
 - 익산과 김제는 농경문화와 역사유적을 전주·남원·완주·임실·순창은 전통문화와 예술, 음식자원을 기반으로 한 도시·농촌 복합관광이 강점임
- 이러한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특화전략이 필요하며, 각 유형의 관광자원을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략 마련이 요구됨

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전략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자원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 제시되었음. 전북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여 지역 고유의 감성과 문화를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는 새로운 관광 비전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K-로컬 감성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전북관광”으로 집약됨
- 이 비전 문구에는 전북의 고유 콘텐츠를 세계인의 언어와 정서에 맞게 큐레이션하여 글로벌 시장에 내놓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담겨 있음. 관광객에게는 더 이상 외부 방문자가 아닌 전북 삶의 일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전북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세계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미임
- 이를 통해 전북은 K-푸드에 이어 K로컬리티(K-locality)의 시대를 열고, 세계인이 한국 지역문화의 깊이와 감성을 매력적으로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을 궁극적 지향으로 삼고 있음
-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된 3대 전략 목표는 ① 전북의 감성관광 경쟁력 강화, ② 관광 체류환경 기반 조성, ③ 글로벌 마케팅 역량 확보임. 이들 목표는 각각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로 연계되며,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5-1]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관광콘텐츠 추진과제 종합

추진과제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 우선순위
자연관광 콘텐츠 사업계획	K-세계자연유산 : 고창 유네스코 복합유산 관광벨트 구축	고창군 일원	5
	K-해양관광 : 군산·부안 K-해양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군산시·부안군 일원	6
역사관광 콘텐츠 사업계획	K-세계문화유산 : 익산 백제왕도 세계문화유산 융복합 관광도시 조성	익산시 일원	4
	K-종교관광 : 전북 K-종교관광 융복합 거점도시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2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계획	K-미식관광 : 전북 미식관광 특화도시 조성	전주시, 순창군 일원	1
	K-전통문화 : 전북 K-전통문화 대표축제 글로벌 관광자원화 사업	김제시, 남원시 등	3
홍보·마케팅 사업계획	전북 K-관광 콘텐츠 통합 홍보·마케팅 전략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2. 정책제언

- 본 연구의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관광콘텐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과제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필수

-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전북이 뛰어난 콘텐츠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해외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국가 차원의 마케팅 채널과 연계하고 한국관광공사, 해외 문화원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북 관광브랜드를 홍보해야 함
-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유효함. 가령 한류 스타나 K-콘텐츠와 전북 관광자원을 연계한 홍보 영상 제작, 글로벌 SNS 캠페인, 해외 여행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Jeonbuk”이라는 지역명을 국제 관광시장에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음식(K-푸드), 한복·한옥 등 한류와 연관된 지역자원을 전략적으로 브랜딩하여 “K-로컬리티”라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도 강화해야 함. 외국어 안내체계 확충, 다국어 가능한 인력 양성,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안내 서비스 등 관광 편의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전북을 찾는 국제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함

■ 실행력 담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 협력 강화

- 전략 실현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는 우선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협력 강화가 꼽힘.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는 행정 주도의 톱다운 방식만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실제로 전북의 미식관광 추진 활성화 사례에서 지역 주민, 청년 창업자, 식문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형성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민관 협력 사례를 다른 관광 분야로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시 무형문화재 장인과 지역 예술가, 기획자가 함께 팀을 이루고, 주민 단체가 협업하는 방식도 필요함. 이를 통해 현장의 전문성과 지역의 창의성이 정책에 반영되고, 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음

■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필요

- 관광의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모든 전략에 내재화해야 함. 관광콘텐츠 개발이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생태·문화 자산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려면, 친환경적 접근이 중요시됨
-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시에는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또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 활용에서는 유산의 원형 훼손 및 과잉 관광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또한 주민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관광지 관광객 수용력 유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관광개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지속가능성은 관광 분야의 최근 트렌드이므로, 탄소중립 관광, 녹색관광 인증제 등의 도입도 향후 검토 대상임

■ 글로벌 관광콘텐츠로서 성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

- 관광콘텐츠 사업은 가시적 성과 창출에 장기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 전북특별자치도 이번 K-컬처 거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예산의 안정적 확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그리고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개발 등이 필요함. 또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역량도 중요한 변수이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글로벌 관광콘텐츠로서의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자부심 고취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의 방향은 단순히 관광객 수 증대가 아니라, 지역 정체성의 세계화와 지역민의 자부심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함.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추진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전북은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넘어, 전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관광 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K-로컬 감성”을 앞세운 전북의 관광콘텐츠 글로벌화 전략은 지역특화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역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 향후,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K-컬처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관광거점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참 고 문 헌

REFERENCE

- 국토교통부. (2024). '24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경기콘텐츠진흥원. (2023).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 공고문(보도자료).
- 김향자. (2022). 지역특화 관광개발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22쪽.
- 농림축산식품부. (2024). 2025년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추진계획(안)
- 농림축산식품부. (2024). 놀며 배우며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농촌!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4). 2025년도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 사업자 선정 계획(안) [보도자료].
- 문화재청. (2024).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사업 신규 공모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0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2).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2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3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3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3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2024).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을 더 빛나게, 발전방안 모색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4). 문화의 힘으로 도시 전체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최종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통사찰 현황(2024.9.9.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 (재)지역문화진흥원. (2024). 100가지 지역문화이야기 로컬 100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2025). 관광컨설팅 이슈발굴
- 서울특별시 & 서울관광재단. (2023), 서울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전라북도. (2021).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80>

전북생태관광육성센터. (2024). 전북 천리길 가이드북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정광민. (2021). 관광거점도시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진보라. (2022).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3-2025. 한국관광정책, (90), 128-138.

한국어촌여항공단. (2022).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으로 이색 변신 기대!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

해양수산부. (2022). 재생과 회복의 바다, 태안 해양치유센터 첫삽 뜨다!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3). 2023 국가어항 기초조사

행정안전부. (2024). 산촌마을부터 광역시 변화까지 지역 고유 특성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행정안전부. (2024).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계획

환경부 & 해양수산부. (2022).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환경부. (2023).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현황('08 ~'23, 72개소)

환경부. (2023). 한국하천 일람(2022.12.31. 기준)

환경부. (2024).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 현황('24년 2월)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https://www.data.go.kr/>).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s://www.khs.go.kr/main.html>).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s://kosis.kr/index/index.do>).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eb/kfs/idx/Index.do>).

에코뱅크 홈페이지. (<https://www.nie-ecobank.kr/cmmn/Index.do>).

지표누리 홈페이지. (<https://www.index.go.kr/>).

한국관광데이터랩 홈페이지. (<https://datalab.visitkorea.or.kr/>).

Fortune Business insights 홈페이지. (<https://www.fortunebusinessinsights.com/ko/>).

GLOBAL WELLNESS INSTITUTE 홈페이지. (<https://globalwellnessinstitute.org/>).

Pexel 홈페이지. (<https://www.pexels.com/ko-kr/>).

Pixabay 홈페이지. (<https://pixabay.com/>).

Precedence Research 홈페이지. (<https://www.linkedin.com/company/precedence-research>).

UNWTO 홈페이지. (<https://www.unwto.org/>).

Unsplash 홈페이지. (<https://unsplash.com/ko>).

경남 고성군, 해양자원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박차.(2020.01.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142200052>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지역특화 관광자원’ 새롭게 선정, 발표. (2021.01.27.). [티티엘뉴스]. https://www.ttlnews.com/article/KOREA/9333?utm_source=chatgpt.com

군산시,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2023.06.24.). [우리문화신문]. https://www.koya-culture.com/news/article.html?no=141073&utm_source=chatgpt.com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7곳 신규 지정.(2023.10.18.).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675>

누가 췌! 소리를 내었나..공공도서관은 변신 중. (2024.02.26.).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khnm.html?art_id=202402190530051&code=115&mode=view&utm_source=chatgpt.com

2025년까지 4개 해양치유센터 문 연다.(2024.03.15.).[현대해상].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8>

ChatGPT. (2025.5~6) 아이디어 도출 및 보고서 윤문 등에 활용함.

Developing Jeonbuk-Specific Resources into Global Tourism Content

Hyeong-O Kim · Suji Kim · Hyo-In Sung

1. Research Goals and Methods

■ Research Background and Goal

- In 2023, Jeonbuk State declared its vision “Jeonbuk State: Industrial Hub for K-Culture, Sports, and Tourism.” Thus, it is currently promoting a plan to establish itself as a global industrial center by transforming the region’s cultural, sports, and tourism assets into compelling global content that reflects Jeonbuk’s unique identity.
- Despite this policy initiative, Jeonbuk State still has significant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scaling up its tourism resources to create impactful content in an effort to strengthen its global presence.
- This study aimed to propose ways to develop Jeonbuk’s tourism resources into engaging global tourism content. To this end,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Jeonbuk’s tourism resources, identified and analyzed unique resources that offer a competitive advantage, and selected those with high inherent value.

■ Research Scope and Methods

- This study covered 14 cities and counties in Jeonbuk State for the base year (2024) and the target years (2026-2033).
- For the abovementioned temporal and spatial analyses, we engaged in the following research activities: investigating travel and tourism trends at home and abroad; exploring the concept of specialized local tourism and related policy trends; and conducting comprehensive surveys and analyses of Jeonbuk's tourism resources. We then formulated strategies for transforming local resources into global tourism content and proposed relevant project roadmaps.
- We identified specialized resources in Jeonbuk that offer a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reviews of literature and travel and tourism-related websites, big data analysis, and in-depth expert interviews. Based on our extensive research, we proposed strategic action plans to facilitate the creation of global tourism content.

2.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Jeonbuk's Vision and Initiatives for Global Tourism Content

-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e developed the tourism vision "Jeonbuk Tourism: Captivating the World with K-Local Sensibility." This vision highlights Jeonbuk's strategic determination to synergistically adapt its unique content to the languages and emotions of the global audience to secure an edge in the global market.
- To realize the vision, we set the following three key strategic goals: ①

strengthening Jeonbuk's competitiveness in emotional tourism, ② enhancing tourism infrastructures, and ③ nurturing global marketing competencies. These goals will be achieved through specific corresponding strategic roadmaps and action plans, including six projects in three content categories of nature,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and related PR and marketing activities.

-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establishing an effective governance structure and strengthening private-public collaboration to reinforce the region's ability to not only devise effective global marketing strategies but also put them into practice in order to appeal to the global market with its specialized resources. Additionally, proac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s urgently needed to ensu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owth of Jeonbuk's local resources into global tourism content.

Key Words

Tourism industry, Tourism resources, Tourism content, Local specialty resources, Local specialty tourism

기획연구 2025-0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발 행 인 | 이 남 호

발 행 일 | 2025년 6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74-6 953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예코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익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